

제 11 호

2002.

# 驪州文化



여주문화원

여

백

2002.

제 11 호

# 驪州文化

驪州文化院

여

백

## 문예중흥선언문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전환기에 처하여 새로운 문화창조의 사명을 절감한다.

한겨레의 운명을 결정짓는 근원적 힘은 그 민족의 예술적 문화적 창의력이다. 예술이 창조력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문화가 자주성을 찾았을 때 나라는 흥한다. 신라 통일의 위대한 업적과 세종시대의 문화창조는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유산을 개발하고 민족적 전통성을 이어받아 오늘의 새문화를 창조한다. 맹목적인 복고경향을 경계하고 분별없는 모방행위를 배척하며 천박한 퇴폐풍조를 일소하여 우리 예술을 확고한 전통속에 꽃 피우고 우리문화를 튼튼한 주체성에 뿌리박게 한다.

우리는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영광된 겨레의 내일을 위하여 가치의식과 사관을 바로잡고 표현의 자유와 문화의 자주성을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문화의 전당을 세워 온겨레가 함께 예술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자신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세계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문화의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하여 인류문화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예술가 모든 문화인들은 온 국민과 동참하는 대열에 서서 예술과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정성을 다해 문예중흥을 이룩할 것을 선언한다.

1973年 10月 20日

# 여주의 노래

유달영 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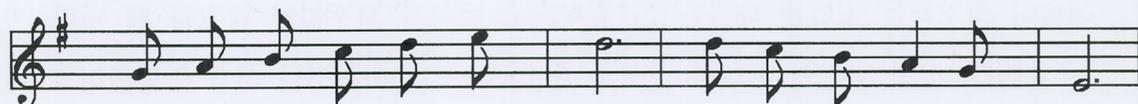
김동진 작곡



봄 마 다 푸 른 솔 에 싱 싱 히 어 ~ 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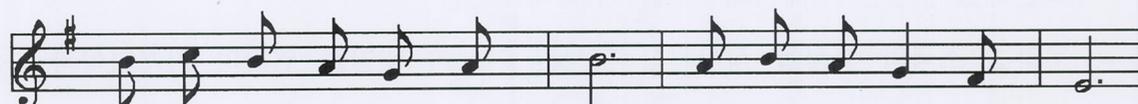
북 별 의 칼 을 갈 던 우 람 한 뜻 ~ 과



정 음 을 지 어 펴 신 어 - 진 슬 기 가



봄 하 늘 태 양 으 로 우 - 렬 기 른 다



급 이 쳐 흘 러 가 는 무 궁 한 강 - 물



강 물 처 럼 무 궁 한 여 주 의 마 ... 음

2. 명화에 그림같은 여주 팔경에  
포은도 찾아와서 시를 읊었네  
역사에 피고진 허다한 인걸  
유서깊은 고적마다 신운이돈다

3. 맑은강 넓은 들에 검은 멧부리  
홍겨운 농부가는 메아리 친다  
천마대 살아 나갈 우리 복지를  
자유의 깃발아래 이룩해 가자

# 여주문화원 연혁

## ▶ 설립배경

우리나라에서 문화원이 처음 생긴 것은 1950년대 초기로 복지관, 국민문화원, 공보원등의 명칭으로 사용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유지들의 지원과 원장의 사재로 운영되어 왔으며 1962년 한국문화원 연합회가 설립되던 해에 76개소의 문화원이 설립되어 증가추세에 있었음.

## ▶ 설립계기

1967년초에 [여음회]란 모임에서 설립 논의가 있었고 동년 12년 여주복지관에서 문화원 설립을 위한 종합예술제를 개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 ▶ 연혁 및 주요일지

- |             |  |
|-------------|--|
| 1967. 5.    | 여주읍 흥문리 15 여광기술학원내 비법인 세종문화원 사무실을 개설함. 박운한 학원장 무상임대)       |
| 1968. 1.    | 여주문화원으로 명칭을 개정   |
| 1969. 2. 25 | 발기인 총회(발기인 : 김운선, 박운한, 정춘식, 안금식, 임창선, 감사 : 최지복, 이영규)       |
| 1969. 4. 11 | 창립총회 정관개정  |
| 1969. 5. 14 | 이사회회 개최(원장 : 안금식, 이사장 : 김운선)                               |
| 1970. 2. 26 | 사단법인 여주문화원 설립허가(문화공보부장관)                                   |
| 1970. 4. 27 | 법인설립등기   |
| 1974. 6. 14 | 2대원장 감효정 선출 (이사장 : 안금식)                                    |
| 1981. 6. 23 | 3대원장 김덕배 선출 (이사장 : 안금식)                                    |
| 1981. 6. 23 | 정관개정   |
| 1981. 6. 23 | 사무실이전(중앙감리교회 별관)   |
| 1982. 2. 26 | 4대원장 안금식 선출 (이사장 : 이춘우, 박광식)                               |
| 1982. 10. 9 | 경기도주최 세종문화큰잔치를 여주문화원 주최행사로 인수 (강변봉화, 해촌낙화, 불꽃띄우기, 민속가두행렬등) |
| 1982. 12.   | 황여문화 창간 제9호까지 발간(90. 12)                                   |

1984. 1	가남본두리 낙화놀이 발굴(정월 대보름 낙화놀이 체계적 시연 유도 매년 음력 1월16일 시연)
1984. 5. 15	세종대왕 탄신 숭모제전 주관 (시조백일장, 국악인 초청공연등)
1985. 11.	원부리 열 담교놀이 시연지도(매년 정월대보름 시연)
1986. 1. 31	사무실 이전 (여주읍 홍문리 74-2 군민회관 내)
1986. 2. 7	정관개정(문화공보부장관 승인)
1986. 5. 15	세종벽담 문화상 제정
1986. 7.	마래리 거북놀이 발굴 시연
1986. 12. 20	여강문화 창간호 발간(72페이지) 계속 6호까지 발간 (90. 12. 20)
1987. 10.	제28회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혼암리 쌍용거줄다리기 대통령상 수상
1988. 2. 29	여주문화예술코너 개관(여주읍 하리 15블럭 9롯데)
1991. 8. 17	5대 원장 직무대리 황응구 선출
1991. 12. 30	사례집략 발간
1992. 4. 6	6대 원장 직무대리 박근출 선출
1992. 5. 6	시범문화원 지정(문화부장관)
1992. 11. 28	7대 원장 원중재 선출
1992. 11. 28	정관개정 (이사장 규정 삭제) 1992. 12. 22 문화체육부장관 허가
1993. 3. 5	여주문화사랑방 개설 (여주읍 홍문리 74-2 군민회관 내)
1993. 4. 9	문화원 치무규정 제정 (직제, 복무, 인사, 보수, 여비, 문화사랑방 및 문화코너 관리규정)
1993. 12. 30	황여춘추(제1호) 창간
1994. 7. 29	지방문화원진흥법 (94.1.7. 법률 4718호) 공포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정관 변경
1994. 12. 31	황여춘추 (제2호) 발간
1994. 12. 31	여흥문화재대관 발간

1995. 8. 27	8대 원장 조무호 선출 (95. 10. 5 승인. 95. 10. 23 등기)
1995. 11. 28	정관개정(대의원제 신설) 96. 2.29 문체부장관 허가
1996. 1. 12	사무실 이전 (북내면 천송2리 545-1 청소년수련실)
1996. 2. 16	문화사랑방 및 문화코너 관리규정 개정 (사용료 변경)
1996. 2. 28	운영규정 제정(규정 제8호), 회비규정 제정(규정 제9호)
1996. 5. 15	세종대왕 탄신 제599돌 송모제전을 제7회 도자기축제와 병합 추진하여 문화행사를 크게 확대 26개 문화행사 거행 (전시회 4건, 민속놀이 5건, 가무극 8건 등 기타 9건)
1996. 10. 9	세종문화큰잔치 및 학생백일장
1996. 12. 31	여주문화(3호) 발간
1996. 12. 31	지명유래집 발간
1997. 5. 15	세종대왕탄신 제600돌 기념행사
1997. 10. 9	제29회 세종문화큰잔치 세종대왕탄신 600돌 기념 경기도 학생백일장
1997. 12. 31	여주문화(4호) 발간
1998. 10. 9	제30회 세종문화큰잔치 및 제2회 경기도 학생 백일장 대회
1998. 10. 9	'왜, 다시 세종대왕인가' 발간
1998. 12. 24	세종대왕 달력 발행
1998. 12. 31	금사면지 발간
1998. 12. 31	여주문화(5호) 발간
1999. 3. 18	9대 원장 한만규 선출 (부원장 박광태, 차재윤)
1999. 5. 14	문화원 운영위원회 구성 (한만규, 박광태, 차재윤, 원무길, 정병성, 이필현, 강태희, 김영준, 박용희)
1999. 6. 8	문화원사무실 군민회관으로 이전
1999. 10. 9	제31회 세종문화큰잔치 및 학생 백일장
1999. 12. 31	여주문화(6호) 발간
2000. 4. 18	여주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제정(10억원)

2000. 5. 25 여주문화 편집위원회 구성  
(한만규, 차재윤, 강태희, 이일섭, 김태수)
2000. 6. 21 문화원창립 기념일 제정 (4월27일 법인설립등기일)
2000. 6. 30 여주문화(7호) 발간
2000. 6. 30 조선왕조실록에서 모은 여주사료집(Ⅰ) 발간
2000. 7. 12 명성황후 탄신일을 천문역학기관에 조회하여 음력 9월25일 탄신일을 양력 11월17일로 환산 확정함.
2000. 10. 9 제32회 세종문화 큰잔치 및 학생백일장
2000. 11. 17 명성황후 탄신 제149주년 송모제전
2000. 12. 30 문화유적 자료집 발간
2000. 12. 30 여주문화 (8호) 발간
2001. 4. 27 여주문화원 창립 31주년 기념 및 문화예술인의 밤 행사
2001. 6. 30 여주문화(9호) 발간
2001. 6. 30 여주사료집(Ⅱ) 발간
2001. 6. 30 세종대왕의 얼 발간
2001. 9. 25 한글반포 제555돌 기념 학술대회
2001. 10. 8 제33회 세종문화 큰잔치 및 학생백일장
2001. 10. 10 쌍용거줄다리기 시연
2001. 11. 17 명성황후 탄신 제150주년 기념 송모제전(遙賀禮)
2001. 12. 30 여주문화(10호) 발간
2002. 4. 30 사마방목과 여주 발간
2002. 5. 9 한글학술대회 (한글반포 556돌 기념)
2002. 6. 15 제34회 세종문화큰잔치 및 학생백일장
2002. 6. 30 여주문화 (11호) 발간

# 문화원 행사 이모저모



5월 9일 한글 창제 및 반포기념  
학술대회 (일성콘도)



5월 11일 제2회 세종가요제  
(박람회 행사장)





5월 12일 조선조 과거시험 재현(박람회 행사장)



6월 21일 문화유적답사 (통일전망대)



**6월 15일 제5회 경기도 학생백일장 대회 (세종대왕릉)**

# 「여주문학」 2002

제11호

- 1 문예중흥선언
- 2 여주의노래
- 3 여주문화원 연혁
- 7 문화원행사 이모저모

## 발간사

- 13 여주문화원장 한만규

## 축간사

- 15 여주군수 임창선
- 17 여주군의회의장 윤택남

## 논 단

- 20 우리나라文化의 發展方向 여주문화원부원장 박광태
- 26 아동문학의 방향 아동문학가 강태희
- 37 朝鮮後期 山神幀 小考 목야박물관 학예연구사 홍대한
- 55 우의정민진장(閔鎭長)의 묘소와 신도비 여주군지편찬위원회연구원 이민식

## 향토조명

- 62 고달사부도 국보제4호 편집부
- 64 신륵사의 다층전담 보물제226호 편집부

## 유적지탐방

- 68 영월루 편집부
- 69 혼암리 선사유적 편집부
- 71 기천서원지 편집부

**고장을 빛낸 인물**

- 74 원유남 여주문화원이사 강태희  
74 이 색 여주문화원이사 강태희  
77 이인영 여주문화원이사 강태희

**내고장 전설**

- 80 남이고개 문화원이사 이규범  
81 민비와 능현리 문화원이사 이규범  
82 청백리와 여주목사 문화원이사 이규범

**전통민속놀이**

- 86 거북놀이 편집부

**향토문예 / 시**

- 116 소나무 강태희  
117 자 아 김정인  
118 어머니 김홍렬  
119 허공을 나는 새처럼 박광태  
120 환 류 박찬수  
121 한계령 윤병희  
122 고 향 이경섭  
123 남한강 이일섭  
124 천년운수 이장호  
125 고운 설레임으로 이신재  
126 동 심 이문현

127	강가의 풍경	이상국
128	우체통	임춘봉
129	망선루	원용문
130	마라도	정기명
131	마드마제에서의 밤	양암 조현
133	생 존	주동훈
134	하얀비	최병숙
135	꿈	함은수
136	내가 청소하는 이유	홍은숙

**향토문예 / 수필**

138	분홍슬리퍼	구홍서
140	원칙을 찾아서	이상국
142	봄	이장호
145	전원주택	윤지현
148	어느 작은 결혼식	유지순

**장작동화**

152	고물들의 합창	강태희
-----	---------	-----



여주문화원장 / 한 만 규

“가 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은 향토의 고유성을 지키고 가꾸는 일이야말로 세계화 시대에 대처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임을 일깨우는 말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여주문화원은 자랑스런 여주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앞장 서 왔으며 그 결과를 문화원 정기간행물인 「여주문화」에 실어 왔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여주문화」 제11호는 4편의 논단과 향토유적소개, 전설, 민속놀이, 향토문예등으로 엮어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옥고를 보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 책이 널리 읽혀지기를 희망합니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우리 여주는 마을마다 조상들의 혼이 담긴 유형·무형의 문화재가 산재해 있으며 세종대왕, 효종대왕, 명성황후, 서희, 이완,

송시열, 홍영식, 최시형 등 수 많은 선열들의 정신이 이어져 내려오는 그야말로 천혜의 문화자원을 가진 축복받은 고장입니다. 이런 훌륭한 문화에 긍지를 갖고 여주군민이 합심하여 새로운 여주문화를 창조해 나갈 때 여주는 세계속에 우뚝 솟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여주문화원은 여주문화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 일에 여주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여주문화』제11호의 발간을 위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주군수 / 임 창 선

## 희망찬 새 여주 건설

“여주문화 제11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이 책자가 간생되기 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신 한만규 문화원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생활을 재는 척도로써 한 고장의 문화수준을 가치고 그 지역의 삶의 질과 지적인 수준을 가늠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21세기 “희망찬 새여주 건설”을 위하여는 향토문화를 일깨우고 그 전통을 이어 나가야 하겠으며, 이러한 전통적 정신문화를 계승하여 나갈 때 우리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여주문화”는 선현들의 맥박이 살아 숨쉬는 훌륭한 전

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군민들의 문화의  
식을 한차원 승화시키는 지역의 종합예술지  
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올바른  
길잡이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주 발전의 기본은 문화의 계승  
발전에서 비롯된다고 하겠으며, 여주의 전  
통문화를 굳건히 지켜 나아가 한차원 높이  
승화 발전시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  
입니다.

아무쪼록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원 가  
족 여러분들이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여주  
사랑을 소리 높일 수 있도록 한층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여주문화”가 발간되기 까지 어  
려운 여건속에서도 노심초사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  
며 “여주문화”를 통해 여주군의 문화와 예  
술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주군의회의장 / 윤 태 남

## 여주문화 제11호의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씨가 무더운 성하의 계절입니다. 작열하는 태양이 온 대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희망과 기대속에 출범하는 민선 4기 시대의 개막이 온 국민의 기대와 열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온 인류의 축제인 세계월드컵축구대회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성황리에 개최된바 있습니다. 우리의 대표팀은 세계4강의 신화를 만들어 냈고 온 국민의 뜨거운 응원과 경기 운영은 세계를 놀라게 하였으며 국가브랜드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특히 수천만이 넘는 길거리 응원단과 그들로부터 발산되고 터져 나오는 거대한 함성, 무서운 결집력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흔히 볼 수 있고 흔히 접할 수 있는 축구라는 하나의 체

육종목으로 인하여 수천만 국민이 이렇게 단합되어지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애국애족의 민족문화가 온 국민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고 맥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문학, 예술, 생활풍습, 관습, 종교, 오락, 교육, 스포츠, 예술, 철학 등 인간의 정신적 창조물 및 생활양식 어디에나 그 분야의 문화는 내재되어 있고 그 문화는 사회생활 직·간접적으로 지배해 나가고 있음이 역사적 사실로 인하여 입증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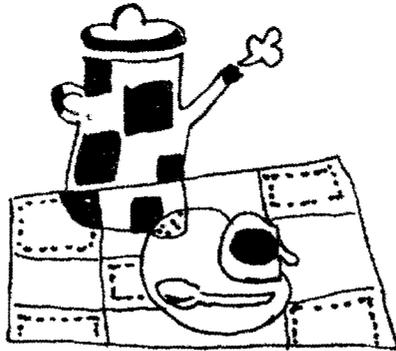
이번 발간되는 “여주문화”지도 우리 여주지역의 대표적 문화지로서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시대에 걸맞는 새 문화 창출을 위한 구축심이 되어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훌륭하게 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온 정성을 기울여 발간되는 책이니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혀지고 그 명성이 독자들 가슴속에 오래 오래 간직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고장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한만규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주문화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편 집

(편집부)



# 우리나라 文化의 發展方向

여주문화원 부원장 박 광 태

## 1. 서 론

21세기는 지식과 정보, 문화창조력이 경제의 핵심이 되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문화의 세기이다.

문화는 과거의 이념이나 경제를 초월하여 세계질서를 좌우하는 중요 요소로 부각되고 있고 나라의 경쟁력을 이끄는 핵심이 문화이며 문화 경쟁력을 통해서 국가경제의 핵심요소이자 생존의 조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문화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지방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 지표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언급해 보고자 한다.

## 2. 문화의 가치성

문화란 자연을 이용하여 인류(人類) 이상(理想)을 실현시켜 나가는 정신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기에 나라와 역사는 멸망하여도 문화(文化)는 영원한 것이다. 예를 들면 “기야” 나라는 망하였어도 우륵의 가야금과 음악은 영원하고 조선은 망하였어도 세종대왕의 한글은 길이 발전하는 것과 같이 문화가 없는 나라와 문화가 있는 나라는 그 생명이 다르다.

영국의 인류학 테일러가 「원시문화」라는 저서에서 문화는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습관등 인간의 사회적 구성으로서 획득할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이다

라고 말한 바와 같이 문화란 사회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는 지식, 신념 행위의 총체라 하겠다.

좁더 부연한다면 문화는 결코 개별화 되고 분리된 개인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역이나 향토 또는 국가민족과 같은 집단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형성된 관념이나 습관의 총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한민족은 어떤 문화를 이룩하였으며 그 전통은 무엇인가? 한국의 전통과 문화는 우리 선인(先人)들이 오랜 삶의 역사속에서 창조(創造)하여 후손에게 물려준 것이다. 이 전통문화 속에는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와 숨결이 스며 있으며 가치관과 세계관과 생활철학이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마땅히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전통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며 그 가치를 더욱 빛내고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면 우리의 의생활, 주생활, 식생활까지도 거의 모두가 서구화되어 가고 있으며 젊은 세대는 언어까지도 영어권으로 바꾸어 가는 경향이 있다.

원래 우리민족은 하늘을 섬기는 제천 사상과 조상을 숭배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이웃과 형제처럼 다정(多情)하고 가무(歌舞)를 즐기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민족이었다.

또 우리나라는 예절을 지키는 나라로서 “공자”같은 성인도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싶다고 했고 인도의 “타고르”는 우리나라를 동방의 태양이라고 노래하였고 일본의 “사세히” 박사는 부모를 한집에 모시고 사는 한국민족은 21세기에 세계의 지도국가가 될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그러므로 물질문명은 비록 서구에 뒤졌을 망정 전신문화는 우리가 앞섰다고 자부할 수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닌듯 싶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한글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고 현대음악을 보아도 음악적 수준이 높다는 “판소리” 예술과 고유한 우리의 춤 “김정희” 같은 만고에 보기 드문 명필과 “추사”의 「세한도」 같은 절조가 부모에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가족, 공동체 생활과 예절을 지키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찾을 수 없는

보기도문 민족이다.

따라서 우리민족은 우리문화의 가치성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것을 지키고 발전시켜 세계에 그 빛을 비추어 주는 민족이 되어야 하겠다.

### 3. 문화의 환경조성

우리문화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어떤 방향으로 하여 육성발전 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서술코저 한다.

첫째, 국민모두가 참여하고 누리는 문화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중앙과 지방간의 정책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여야 한다.

셋째, 문화기관과 단체를 연결하는 「종합문화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식 정보 사회에 부응하는 문화정보 인프라를 확대운영해야 한다.

넷째, 문화예술 발전의 근간이 되는 핵심문화 공간건립 등 문화기반 시설의 지속 확충과 관주도에서 주민 중심으로 운영방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다섯째,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체계적으로 해외에 보급 확대하여 훈민정음 등 한글의 문화사적 가치를 정립하고 주요거점 지역에 한국문화원 신설을 관광공사와 연계하여 현지 주류사회 중심으로 기능전환하여 우리문화의 전략적 해외 소개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 4. 문화예술 진흥사업 중점지원

정부는 문화예술 발전의 모태가 되는 문학과 미술등에 문화창작 여건을 중점조성 육성해야 하고 음악, 무용, 연극, 극악분야 등 시장성이 있는 공연예술 활동을 중점지원 육성하여야 할 것이며 첨단기술과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창

작활동등 사이버 시대에 부각되는 새로운 흐름의 예술활동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국민의 문화창조력을 신장시켜야 할 것이며 관객개발을 통한 저변확대로 창작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창작활동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종합문화 예술 연수원」의 확대 개편과 문화예술영재교육 확대 및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또한 「서편제」, 「판소리」 공원 등 전승보급시설을 확충하여 국악의 생활화를 위한 체계적 기반을 조성하고 설, 대보름, 단오, 추석등 계기별 생활문화의 보급 확산과 굿놀이, 탈놀이, 풍물등이 어우러진 전통 연희 작품을 개발하여 전통 문화를 창의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5. 문화복지시설 확대운영

문화복지 시설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과 지방, 도농간 문화격차를 해소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문화 창조력을 제고하고 주민참여를 위한 사업을 개발해야 하며 지역문화 공간과 생활권, 휴양관광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둘째, 여가생활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일터와 생활현장속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확대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국민화합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생명문화운동 청소년 예절교육등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등 문화생활 여건을 조성하여 함께 누리는 사회가 구현되어야 한다.

## 6. 지역문화원의 활성화 방향

지역문화는 자신이 태어난곳, 조상들이 생활한 곳 등 오랫동안 사람들이 공

동체로서의 의식을 갖고 있는 지역사회와 그 지방에서 면면히 전승되어 오는 역사 전통, 풍물, 생활, 전승, 예술, 유물, 유적등의 모든 문화적 유산과 정치 경제 사회분야 등 현대적 모습을 의미한다.

## 가. 지역문화원의 현실

지역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법률 제4718호)에 의거 지역문화 예술행사, 향토사료조사, 전통문화의 보존, 전승, 문화정보 전달의 기능을 하는 공익법인이라 할 수 있다.

지방문화원의 역사를 보면 다수의 지방문화원이 수십년 전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지역마다 전통문화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하고 홍보와 보존대책을 펼쳐 오면서 유물, 유적의 발견과 활용방안도 나름대로 제시하고 다양한 문화행사와 지역특유의 향토축제를 주인의식을 갖고 이끌는데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문화원의 현실은 사무조직이 취약하고 사옥 확보를 위한 다기능 복합공간이 점유되지 않아 현대문화예술, 정보의 중심기능을 펼쳐 나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다. 또한 지역문화원의 직원 조직체를 살펴보면 사무국장과 간사 1명이 상근하고 원장을 보필하면서 문화사업을 추구하는게 현실이다.

문화란 단순명료하다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로 얽혀있는 과거와 현대사회의 총체일진대 이러한 문화에 대한 수행능력과 기획을 적은 인원이 진행하는데 있어 시간적 육체적으로 쫓기면서 업무를 해야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 할 것이다.

## 나. 문화원의 활성화 방향

지역 문화원을 활성화 하려면 문화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정보화 및 세계화의 물결속에 지방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복지사회로의 전환속에 전통문

화 현대화를 위한 특별자금 지원으로 문화공간의 확대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진흥의 산실역할을 할수 있도록 문화원을 집중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둘째, 지역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각 문화원 별 지역주민 대상으로 내실있는 향토문화 상설 강좌를 개설하여 적극 운영해야 한다. 셋째,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꾸만 사라져가는 귀중한 우리고유의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뿌리의식을 보존함으로써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을 복합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 7. 맺는말

일반적으로 정보화 사회가 도래됨에 따라 문화의 수요는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역문화원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법을 개정하여 자금을 지원, 지역문화원이 지방의 문화를 발굴 보존함과 동시에 문화원별로 문화예술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간의 문화사업을 활성화 시켜 지역문화 발전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함으로서 내실있는 향토문화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가남면 정단리 축산인)

# 아동문학의 방향

## I. 서론



강 태 희 / 약력

- 「교단문학, 아동문예, 아동문학」 동화 당선
- 한국문협 여주지부 부지부장
- 한국아동문학회 경기지회장
- 한국아동문학회 작가상 수상
- 여주초등학교 교장 역임
- 여주문화원 이사
- 저서<동화집 : 천사의 얼굴 등 6권>  
<동요집 : 일곱색 무지개> 등 다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에 의하면, 산업혁명이후 시작된 제2의 물결(전기과 기계문명) 시대는 끝나고 있으며 지금 세계는 제3의 물결시대에 들어섰는데, 이 새로운 물결 속에서는 노동·가족 등의 모든 생활양식과 개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되므로 우리는 이 새로운 물결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업혁명이 수천 년에 걸쳐 완만한 진전을 보였고, 산업혁명이 3백년에 걸쳐 전개되었던 것에 비한다면 제3의 물결은 불과 20~30년만에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그 변혁을 완성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립잡은 컴퓨터와 전자공학의 발달은 인류문명을 전혀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가고 있다. 오늘의 세계는 맥루한이 지적한대로 활자문명에서 전자문명으로의 전환이며, 그것은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한 마을의 일원이 되는 이른바 지구촌(global village)의 시대라는 말로 압축할 수 있다. 전자문명시대에는 작가가 아무리 천재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글을 쓴다 해도 하루가 멀게 쏟아져 나오는 기상천외한 일들이나 쇼킹한 사건들에 대응하기 어

렵게 되었다. 일부 작가나 시인들이 외설적이거나 파격적인 기법을 통해 독자들에게 자극을 가하지만 정보화의 거대한 물결에 무디어진 독자들을 끌어당기려면 더욱 충격적인 경이로움이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문학의 흐름은 한마디로 경이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경이의 발견은 19세기 초 낭만주의 운동 이래 오늘날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주요한 문학운동의 특색이 되어왔다.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로, 낭만주의에서 다시 사실주의로 변천해 올 때마다 새로운 형식과 새로운 내용의 작품을 놓고 문학의 본질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고, 또한 그것은 문학의 기성 관념 앞에서는 전혀 새로운 경험, 놀라움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로 넘어갈 때 위어즈워드와 코올리지가 『서정민요집』에서 내세운 일상어의 강조라든지, 프랑스에서 비톨 위고가 『에르나니 논쟁』에서 고전주의 주장을 꺾고 낭만주의 문학을 확립시킨 것 등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독자들은 문학작품 속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할 때 경이로움에 도달한다. 따라서 작가나 시인은 독자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우리 문학사에서 李箱의 문학은 낯설음의 좋은 본보기라고 하겠다. 이상의 <鳥瞰圖>가 1934년 7월 24일부터 8월 8일까지 조선중앙일보에 14회에 걸쳐 연재되던 중 독자들의 비난과 항의 때문에 연재가 중단되었던 것은 주목할 일이다. 작품이 발표되던 당시부터 지금까지 <鳥瞰圖>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계속하여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모으게 된 까닭은 바로 낯설음 때문이다. 이른바 다른 사람의 시에서 보지 못했던 비문법성, 의식의 비약 등을 만나면서 독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한 것이다.

근대 이후 한국의 문학은 서구문학과 만나면서 다채로운 양상으로 변화되었다. 서구의 근대 문학이 걸어 온 모든 유평, 내용, 형식과 구성, 수법 등을 구사하는 작품들이 일찍이 없었다가 한꺼번에 피어나 마치 산만한 개화기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도 있듯이 지금까지 우리의 문학은 사실주의, 낭만주의, 상징주의, 실존주의, 초현실주의 등 다채로운 양상들이 뒤섞이고 공존하면서 이렇다 할 역사나 전통을 확립하지 못한 채 그 폭만 넓은 결과로 독자의 관심을 끌려

는 일련의 몸부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Ⅱ . 활자문명이 전자문명으로 전환

산업사회의 상징이었던 활자문명이 점차 전자문명으로 전환하면서 합리화, 획일화, 도시화, 집단화는 불가피하게 해체·재편성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컴퓨터와 정보통신의 발달은 도시나 공장이나 회사로 몰려들던 제2의 물결을 이제는 모든 생업적 활동이 가내에서 처리되는 제3의 물결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 시대는 직장 겸 주택으로 이용되는 electronic cottage가 생활의 거점이 되며, 가족제도의 변화로 자녀가 없는 생활을 선택하는 사람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개인의 역할도 다양해지고, 근로자가 자기의 노동시간을 편리할 때 선택할 수 있는 flextime 제도가 보급되며, 생산자 겸 소비자가 재등장하는 이른바 자급자족 시대를 맞게 되어 당분간은 시간에 의존하는 생활이 지속되나 마침내 탈시장 문명의 시대로 들어선다는 것이 엘빈 토플러의 주장이다.

문학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산업화 시대의 작가나 시인은 어느 특정한 개인을 위해 창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과 진실 추구를 위한 창작이나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한 상업주의적 수단으로 글을 써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모든 가치가 돈으로 환원되고 목적과 수단, 진실과 허위가 뒤바뀌는 시대를 골드만은 신이 숨어버린 시대, 즉 진정한 가치가 숨어버린 시대라고 규정짓고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는 소설의 구조도 타락한 방식(간접화의 방식)으로 드러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돈이 우선인 사회에서는 사물의 질적인 면과 인간들의 진정한 관계가 소멸되어 모든 것이 간접화, 추상화, 기호화의 구조를 드러낼 수 밖에 없다. 문학을 이루고 있는 언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언어는 원래 사물을 대신하는 부수적 기호에 불과했지만, 돈이 모든 사물이나 가치를 지배하면서 이제는 언어가 사물을 지배하고 인간을 지배

하는 주체로 변했다.

후기 산업사회 시대에 이르러 인간의 생활 패턴이 바뀌어 가듯이 2000년대 우리 문학의 패턴도 여러가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활자문명에 익숙했던 문인, 원고지를 메우는 것을 천직으로 생각했던 문인들의 창작 활동이 전자문명의 시대가 되면서 영상매체의 영향을 받아 더욱 무기력해질 것이며, 문인의 역할도 점차 약화되어 중국에는 순수문학 작품이 사멸의 위기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런 변화는 오늘날 인문학, 사학, 철학이 우리 사회에서 위기를 당하자 새로운 방향 찾기에 나서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

문학의 새로운 활로 찾기는 이미 지구촌 곳곳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선, 새로운 창작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전자문명 시대를 살고 있는 독자들에게 기존의 창작방법은 식상하고 너무나 낯익어 경이로움을 주지 못한다. 한 가지 예를 들면 1997년부터 일본에서 전개된 연시(連詩)운동은 사회적 주제가 상실되어 가는 상황에서 그 시대와 사회적 주제를 반영할 수 있는 장르를 만들고 싶다는 심리에서 비롯된 새로운 방향 찾기라고 할 수 있다. 연시는 테마를 정하고 모인 사람들끼리 이미지를 이어가며 한 편의 편의 시를 완성하는 방법으로 기승전결의 형식에 따라 교대로 창작하게 되는데 여러 사람이 참여 한다는 점에서 색다르다. 산문 분야에서도 한 편의 이야기를 여러 사람이 교대로 이어가면서 완성하는 방식의 장르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앞으로 2000년대에는 지금처럼 문인 혼자만의 독창성을 고집하며 창작한 작품보다 여러 사람의 다양한 체험과 생각이 담겨있는 작품이 독자들에게 훨씬 더 관심을 끌게되고 공동체 의식도 갖게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새로운 창작방법의 모색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꾸준하게 진행될 것이다.

둘째, 소집단 중심으로 문학이 발전하고 있다. 종전의 중앙문단 시대가 쇠퇴하면서 지역 중심의 문단이 형성되고 대단위 문학단체는 그 기능을 잃어 마침내 개인이나 소그룹의 문학 동인들에 의해 문학의 흐름이 변형되어 갈 것이다. 현재 프랑스 시단의 거목으로 손꼽히는 쥘 슈페르비엘과 필립 자코테 시인의 경우, 중앙문예를 형성하고 있는 파리와 너무 먼곳에서 작품활동을 했거나. 하

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앙에 있는 작가나 시인이 지방에 있는 문인들을 간섭하지도 않고 지방에 있는 문인들이 중앙에 있는 문인단체에 가입하려고 애쓰거나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않는다. 어디에 있든 열심히 작품을 쓰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 토론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미래의 문학은 소수 정예의 문인들에 의해 보존·발전될 것이다.

셋째, 문학의 위축에 대한 우려와 그에 비례하여 조용하고도 조직적인 대책들이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무엇보다도 문학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후원이 눈길을 끈다. 작가의 길을 건졌다는 소수의 사람들을 일단 출판사가 후원한다. 출판사에서 책을 내어 주면 그것이 등단이고, 한 번 책을 내어준 문인은 대부분 같은 출판사에서 평생 책을 내어준다. 학계의 후원도 대단하여 작품의 조명은 적어도 50세쯤 되어 저력을 검증 받은 문인에 한하며, 학문적 조명 역시 매우 조직적이어서 결국은 학자들의 무언의 합의를 통하여 문학사에 남을만한 작가들이 신중하게 선별된다. 창작에 대한 지원은 조그만 동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수많은 도서관의 책 구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다양한 상제도, 창작 장학금 등이 전업작가들에게 실제로 경제적 후원이 되고 있다. 문학을 시민들의 생활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문학의 집이나 시 전문 도서관 등 시설도 만들고 많은 극장들이 문학작품 낭송회를 자주 연다. 금년 괴테의 해를 맞이하여 8월 28일 그의 250주년 탄생일을 앞두고 독일 전역에서 헤아릴 수 없는 행사가 벌어지고 있으며, 괴테의 도시 바이마르 시에는 300여 행사가 예정되었다고 한다. 문학의 위축을 오직 문인들에게만 떠넘기고 정부나 국민들이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지구촌 어느 곳에서도 문학은 살아남을 수 없다.

### Ⅲ. 문학작품의 창작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문학작품이 창작되는 것처럼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도 창조적 행위임에 틀

림없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은 현재 세계적으로 대략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대부분의 상용 소프트웨어가 채택하고 있는 성당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모델이다.

성당모델은 화려하고 정교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뛰어난 소수의 최상급 프로그래머와 많은 자본을 투자해 그 개발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작업을 진행하듯이 조심스럽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모델이다. 개발과정에는 몇몇 선택된 전문가만 참여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뛰어난 소프트웨어가 생산될 것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의 기능향상 주기가 느리고 사용자와의 긴밀한 연계가 어렵다는 점이 단점이다. 성당모델을 추종하는 개발자들은 일반적으로 지적 소유권을 추구하며 개발된 산출물에 대하여 기업 내지 개인의 권리를 인정받기 원한다. 성당모델은 한마디로 폐쇄된(CLOSED) 개발형태다.

시장모델은 다수의 다양한 수준의 개발자가 참여하고 개발과정이 모두 공개됨으로써 마치 소란스런 시장과 같은 형태를 이루는 개발방법인데, 이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지구촌 어디에서나 서로의 의견을 동시에 실시 간으로 나눌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졌다. 시장모델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된(OPEN) 개발형태다. 이런 시장바닥에서 안정되고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다수의 소프트웨어(리눅스와 같은 운영체제, 넷스케이프와 같은 웹브라우저)에서 이미 성공을 거두고 있다. 시장모델을 추종하는 개발자들은 지식의 공개와 공유를 추구하며 개발된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대중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룹이다. 시장모델은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곧 개발자라는 입장에서 출발하므로 누구나 개발과정의 도중에 참여할 수 있으며 끊임없이 기능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사용자의 관심이 끊기거나 더 이상의 기능향상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 시장모델의 운명도 끝나는 것이다.

문학작품의 창작과정도 경우는 비슷하다. 활자문명 시대에는 작가나 글을 써서 출판사에 맡겨 책으로 출판된 후에야 비로소 독자는 문학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다. 이것은 마치 성당모델과 같은 것인데, 작가는 특수한 소수의 폐쇄

적 개발자 집단에 비유할 수 있으며 지적 소유권을 주장하고 창작된 문학작품을 통해 이윤을 추구한다. 독자는 작품이 개발 완료되어 책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비유할 수 있다. 그러나 영상매체의 발달로 독자들의 시야가 넓어지면서 문학에 대한 태도 역시 달라지고 있다. 전자문명 시대의 독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아주 빠른 속도로 다양한 문학작품을 만나고자 시도한다. 인터넷은 전세계를 통합하는 가장 강력한 의사소통 수단이 되었으며 문학도 인터넷에 의해 변화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통신작가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이 곧 시장모델의 전형이다. 통신작가들은 자신의 글을 200자 원고지 5~10매 분량으로 수백 회에 걸쳐 연재형식으로 통신에 올리게 되는데, 그때마다 통신을 사용하는 독자들로부터 즉시 반응이 온다. 내용이나 형식, 기교, 문학성 등 문학작품 전반에 걸쳐 작가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서술해 나갈 때마다 독자들의 평가를 받게 된다. 통신작가들은 독자들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따금 자신의 작품 방향을 수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시장모델은 이전의 성당모델 작가들이 자기의 작품을 책으로 출판한 후에야 독자들의 평가를 받았던 창작형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시장모델에서는 독자가 곧 독자이면서 작가가 되는 것이다. 다만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추구하는 방향이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이라고 전제할 때 시장모델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문예창작에서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는 더 두고 볼 일이다. 문학작품은 어느 정도의 예술성과 흥미성과 교육성을 추구해야 하는데, 기존의 통신작가들이 흥미성은 만족시켰다 하더라도 예술성이나 교육성을 만족시켰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예술성이나 교육성을 고집하며 성당에서 묵묵히 미사나 올리고 있는 작가들의 행위가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미 대중들을 흡입하는 기교와 유희는 예술성이나 교육성만을 고집할 수 없게 변화시키고 있어 성당의 사제들은 시장의 상인들에 비해 매력 없는 상품을 대중들에게 내놓는 격이 되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도 고상한 성당의 개발자들이 시장을 주목하고 두 상반된 개발형태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통합한 예가 있다. 문학에서도 컴퓨터 통신을 통해 완성된 시장형태의 문학작품이 큰 인기를 얻어 성당형태의 인

쇄매체인 책으로 출판되었다면 시장과 성당의 발전적인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시장에서 먼저 성당 쪽으로 손을 내민 경우다. 문학이 특정작가만의 것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독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성당의 종사자인 문인들이 먼저 시장에 손을 내밀어 일부 시장모델의 도입을 논의하고 성당모델과의 장단점을 취합해 2000년대 문학의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장모델 체제에서 작가는 불완전한 생산자이고 독자는 그것을 완성품으로 만드는 생산자가 되는 것이다. 독자는 단순히 작가가 서술한 내용을 따라가는 수동적 감상자가 아니라, 작가가 서술한 내용에 자신의 생각과 꿈을 보완하여 새롭게 글을 써가는 또 다른 작가라고 할 수 있다. 독자란 결국 빈자리를 채워가는 작가다.

문학은 문장 즉 SENTENCE가 아니고 DISCOURSE 즉 담화다. 성당모델과 시장모델에서도 언급했듯이 독자가 없는 문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문학은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고 동시에 남의 말을 듣는 것이다. 따라서 작가는 혼자 성당안에 군림하지 말고 시장으로 나가야 한다. 시장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찾아내야 한다. 모파상의 『보봐리 夫人』 서문에서 <나를 즐겁게 해달라>, <나를 슬프게 해달라>, <나를 감동시켜 달라>, <나에게 공상을 불러 일으켜 달라>, <나를 위로케 해달라>, <나를 전율케 해달라>, <나로 하여금 사색케 해달라>와 같은 독자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 이젠 문인들은 시장바닥으로 나가 시장 사람들과 만나야 한다.

## IV. 결 론

2000년대의 문학이 성공하려면 작가들 스스로 기존의 성당모델로부터 과감히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세대 문인들은 이미 시장 속으로 들어가 기성문학을 깨뜨리기 위해 시장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 인터넷 홈페이지

를 개설하여 독자들의 반응을 신속하게 확인하며 작품을 만들어간다. 시장 사람들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주문한다. 따라서 작가는 기성문학에서 얻지 못했던 섹스, 자살 등 우리문학이 기피해온 개인적 욕망에 대한 것을 과감하게 조명하고, 소재도 직접적인 삶의 경험보다 영상매체나 컴퓨터 등 2차적 가공을 통해 얻으며, 소설에 환상의 세계를 그린 판타지 기법까지 동원시키고 있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문학의 흐름이 경이로움의 역사라고 인정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몸짓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독자의 요구나 흥미성에 치우치다가 제일 중요한 문학성까지 상실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생산된 제품을 잘 팔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시장조사가 있어야 한다. 전자시대·컴퓨터시대에 문학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작가가 독자 속으로 침잠해야 한다. 시장의 어떤 물건들이 잘 팔리면 그 물건이 왜 인기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떤 물건을 만들어야 잘 팔릴지 미래를 내다보는 일은 더 중요하다. 어떤 의미에서 시장 속으로 작가가 들어가 시장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만 글을 써간다면 분명 잘못된 일이다. 어디까지나 문학이 주체가 되어 독자들을 이끌고 나가야 한다. 선도적인 위치에 문학이 존재할 때 독자들은 경이로움에 빠지게 마련이다.

앞으로 새 천년이 우리 앞에 우뚝 서게 된다. 급변하는 시대일수록 미래를 내다보고 신속히 방향을 모색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인간의 사고나 생활 패턴이 놀랍게 변하고 있으며 문학에도 유례없는 다음과 같은 변화들이 올 것이다.

첫째, 번역 프로그램이 개발되면서 세계 어느 나라 언어도 즉시 한글로 번역되어 독자들은 외국의 싱싱하고 우수한 작품들을 손쉽게 읽게 될 것이다. 아울러 독자의 시야가 넓어지면서 문학을 보는 수준도 상당히 높아져 국내의 졸작들은 자연 도태될 것이다. 이른바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 남으려면 우리의 문인들 모두가 비장한 각오 아래 분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 등단제도가 개선될 것이다. 현재 신춘문예나 문예지의 당선을 통한 등단방법과 그런 관문을 거치지 않고 작품집을 내거나 인터넷에 작품을 띄워 문

인으로 인정받는 방법이 한동안 양립할 것이다. 이른바 전문 문인과 비전문 문인이 공존하면서 또 다른 경쟁이 전개될 것이다. 앙데팡당의 활성화로 중국에는 등단제도 자체가 무의미해 질 것이다.

셋째, 개인 컴퓨터로 출판이 가능해지면서 출판물 홍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동안 출판되던 책들이 CD와 함께 무제한, 무검열, 무절제하게 쏟아져 나와 독자들을 당혹케 만들 것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1차적인 작품 선택을 평론가의 말이나 매스컴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 수요자들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작품의 우열을 가려줘야 하는 평론가들이 전문 직업인으로 급부상 될 것이다.

넷째, 문화의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어린이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아동문학 장르는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평론분야와 함께 가장 인기가 있는 장르로 부각되면서 기존의 소설가나 시인이 아동문학가로 전환되는 기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다섯째, 문학의 주제나 소재도 다양해 질 것이다. 인간성을 회복하자는 것이 중심 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면을 과감하게 드러냄으로써 독자의 양심에 말기는 방식을 택할 것이다. 소재로는 장수와 관련된 부수적인 것들, 환경 문제, 육아나 교육에 관한 문제, 취미나 오락 등이 깊이 있게 다루어질 것이다.

사람들은 오래 전에 자신의 모습이 흑백사진으로 찍혀 나온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흑백영화가 나왔을 때도 그랬고, 컬러영화가 나왔을 때도 큰 충격을 받았다. 새로운 문화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아왔다. 활자문명 시대에는 사람들이 오직 책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경이로움을 느꼈으나, 지금은 영상매체의 발달로 독서인구가 줄어들고 책에 의한 충격도 적어졌다. 시대적 요구나 독자의 기호에 맞추어 문학의 내용이나 형식, 전달매체도 갈수록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 잘 훈련된 소수의 문인이 교만하게 앉아서 인기나 누리던 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 성당 안에서 써대던 순수문학 작품은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문학이 다른 문화와 어깨

를 겨루려면 문인들 스스로 하루 빨리 권위와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독자들의 땀냄새가 물씬 풍기는 시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독자가 작가나 작품보다 우세해질 2000년대에 문학이 사는 길은 그것뿐이다. 대중 속으로 들어가되 끝까지 예술성을 잃지 말아야 오래오래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진리를 명심해야 한다.

---

## ▶ 참고문헌 ◀

朴喆熙, 文學概論, 형설출판사, 1988.

홍문표, 한국문학과 이데올로기, 양문각, 1995.

폴드만 J. E, 송기형·정과리 역, 숨은 神, 연구사, 1986.

엘빈 토플러, 전희직 역, 제3의 물결, 해원출판사, 1998.

프랭크 오그덴, 정영문 역, 미리 가본 미래세계, 매일경제신문사, 1995.

김광림 외, 동양 3국 현대시 어디로 가고 있나(대답), 다층·창간호, 1999.

이찬규, 쥘과 필립, 변경에 살다, 다층·여름호, 1999.

전영애, 시인 괴테의 해 1999년에 둘러보는 독일 시단, 다층·여름호, 1999.

에릭 레이먼드, 김종원 편역, 이눅스 성공배경에는 '성당과 시장' 이론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0월호, 1998.

(<http://www.earthspace.net/~esr/writings/cathedral-bazaa.html> 참조)

김광호, 문화반란의 기수들, 경향신문, 1999. 6. 17

# 朝鮮後期 山神幀 小考

- 木芽博物館 所長 山神幀과 花藏庵 山永閣 山神幀 중심으로 -

홍대한 (목아박물관 학예연구사)

## 目 次

- I. 머리말
- II. 山神信仰의 類型
- III. 山神幀 圖像形式과 奉安場所
- IV. 木芽博物館 山神幀과 花藏庵 山神幀 考察
- V. 맺음말

## I. 머리말

우리민족에게 있어 산은 생명의 시작이자, 인생의 종착지이다. 보통 사내를 '사나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산에서 온 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산[生] 사람은 산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삼신할미가 접지하여 산신의 보살핌 아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산신신앙은 단군신화로부터 시작된다. 삼위태백(三危太伯)이니 단군왕검(檀君王儉)이 그것인데 태백산에서 제단을 모시는 군주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고구려의 주몽(朱蒙), 신라의 박혁거세(朴赫居世), 백제의 견훤(甄萱), 고려의 왕건(王建), 조선의 이성계(李成桂) 등은 모두 건국영웅으로 모두 산신과 연관되어 있음이 『삼국유사』, 『고려사』, 『세종실록』, 『동국여지승람』

등에 기록되어 있다.

원시종교로 출발한 산신신앙은 불교에 흡수되는데, 이것은 상위문화에 하위문화가 흡수되는 것이 아닌 우리문화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즉 뿌리 깊은 토착신앙에 의해 한국적인 불교로 발전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유교, 기독교가 토착화되어 한국적인 형태로 재해석되는 실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루려하는 산신탱의 출현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록이 없다. 명문이 남아있는 가장 이른 예로 1817년 제작의 영천 은혜사 산신탱을 통해 1800년대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 Ⅱ. 산신신앙의 유형

山神이란 산을 맡아 수호하고 있다는 神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산신통이라고도 한다. 산신은 농경민에게 물이나 비를 내리는 降雨神이나 豊山神의 성격을 띠고, 유목민에게는 대체로 사냥감을 풍부하게 내리는 은인 이면서도 노여움을 내는 존재이며, 인간에게는 아이를 가져다주는 신이자 그 생명을 악귀들로부터 보호하는 수호신이다. 산신의 神體는 虎像과 神仙像이며, 산신에게 제사하는 일을 山祭·산신탱이라고 한다. 한국은 일찍부터 산신탱을 지냈으며, 지금까지도 그 풍습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러한 산신신앙의 뿌리를 찾는다면 좀더 원초적으로 山 자체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즉, 산악신앙내지 山岳崇拜가 精功化가 되고 다시 인격이 부가된 것이 산신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 1. 산악신앙(산악숭배)

산악신앙은 산악을 신성시하는 자연신앙행위이다. 예로부터 산악은 인간에

계 외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왔다. 산악은 구름을 뚫고 하늘의 신비한 영역에 닿아 있으므로 산은 天神이나 비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山頂은 세속으로부터 분리된 신비로운 곳이라고 생각되었다. 특히 산이 많은 한국은 산악신앙이 성행했다.

神仙信仰은 물론이고 민속이나 무속에 관련된 많은 민간신앙들이 산악과 직접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단군신화에서도 환웅이 태백산정에 하강했고 죽어서는 구월산 산신이 되었다는 것도 한국민족이 산악을 경건하게 여기는 좋은 예이다.

## 2. 산악신앙의 유형

산에 관한 신앙현상을 몇 개의 범주로 나누어보면,

첫째, 산의 인격화 현상을 볼 수 있다. 물론 산의 인격화가 이루어진 다음 단계에서는 山神, 즉 예배 받는 인격화된 신이라는 관념이 형성된다.

둘째, 하늘에서 신과 신선들이 산정을 통해 내려온다는 것이다. 신들의 영구적인 거주처나 인간세상을 방문하는 기점이 된다는 관념이다. 특히 높은 산은 신이나 여러 신선들이 놀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늘에서 천신이 직접 산을 내려와 거주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는 단군신화나 김수로왕의 신화에서도 확인된다.

셋째, 산은 사령(死靈)들이 사는 곳이라고 믿는다. 죽은 사람들이 가는 저승은 바로 산이다. 한국에서 죽은 사람을 산에 묻는 것도 그러한 관념에서 시작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죽은 혼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죽어서 산신이 되는 예로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은 제석천(帝釋天)의 아들로 신라에 태어났는데 사후에 다시 산신이 되었다고 믿었던 것이 대표적 예이다.

넷째, 특정 산을 신성시하는 경우다. 백두산·한라산·마니산은 민족의 영산(靈山)이므로 민족설화가 얽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다. 풍수지리설과 관련되거나 형상이 기묘하여 종교적으로 영산이 되는 경우도 많다. 예

를 들면 중국의 곤륜산은 도교의 성산이고 인도의 수미산은 불교의 성산이다. 산 자체가 신성시되어 산제(山祭)는 물론 천제(天祭)를 지내기에 알맞은 곳이 기도 하다. 산정에 신들에게 제사하는 제단이나 신사가 세워진다. 인위적으로 산을 만들고 단을 쌓아 신사(神祀)하는 풍습도 있는데, 돌무더기를 쌓아놓은 곳을 성황당이라 하여 신성한 산으로 간주한다.

다섯째, 산에서 지내는 제사로 山神祭 외에 祈雨祭와 護國祭가 있다. 기우제는 天池에서 지냈다. 호국영웅의 설화와 관련된 제사도 많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김유신은 날 때부터 하늘의 뛰어난 정기를 부여받고 태어났다. 18세에 화랑이 되어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를 치려고 밤낮으로 골몰하여 수련을 쌓고 있었다. 이때 낭도 중에 白石이라는 첩자가 끼어 있어 김유신을 유인해 가는데 홀연히 호국신이 미녀로 변신하여 나타나 구원해준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때 나타난 奈林은 지금의 慶州 狼山神이고, 骨火는 지금의 영천 金剛山神이며, 穴體는 지금의 五山神을 말하고 있으므로 모두 산신이였음을 알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신의 모습이 노인인으로 등장하는데, 산들의 명칭을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이나 모성의 명칭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모산·모악산·불모산·오모산 등과 같이 여성명칭을 띠는 산일수록 더욱 종교적이다. 이와 함께 『三國遺事』에 나타나는 산신들은 이미 불교적 요소들과 혼용되어 있지만 산신이 여성임을 보여주는 사례가 많다. 신라 진평왕 때 지혜(智慧)라는 비구니가 불당을 수리하려다가 힘이 미치지 못하자 경주 서악(西岳) 선도산(仙挑山)의 여산신이 선녀의 모습으로 꿈에 나타나 불당을 짓는 것을 도와 주었다고 한다.

### 3. 산악신앙의 조형

平定里一號壁畫古墳은 황해남도 안악군 평정리에 있는 고구려 벽화고분이다. 1988년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에 의해 발굴·조사되었다. 道과 玄室만으로 이루어진 單室의 石室封土墳으로 묘실의 방향은 남향이다. 무덤의 남쪽 400m 지점에는 안악1호분과 안악2호분이 있다. 널길의 동서너비

1.12m, 남북길이 1.25m이며, 널방의 너비 1.75m, 길이 2.45m, 높이 1.40m이다.

玄室벽은 벽돌 모양에 가까운 거친 막돌로 쌓고 틈서리는 3점의 백회로 메우고, 연마한 후 벽화를 그렸다. 현실 오른벽에는 무덤 서편의 구월산을 연상시키는 험준한 산봉우리가 잇달아 그려졌는데, 산의 윤곽은 굵은 묵선으로 힘있게 표현되었고 산 起伏과 경사면은 짙고 흐리게 명암처리 되었다.

현실 외벽에는 무덤의 북편과 동북편을 둘러싼 월암산으로 여겨지는 비교적 부드러운 산줄기가 원근법에 맞추어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 원벽의 남편 상단에는 墨線으로 4행 14자의 명문(銘文)이 “□日年□□吾五□壬□姜 大土王”이라고 써어져 있다.

명문의 의미는 정확히 해석되지 않으나 대체로 묘주인의 내세명복과 관련하여 영산(靈山)의 산신(山神), 또는 토지신(土地神)의 보살핌을 비는 내용일 것으로 추정된다.

현실 안벽에는 묵선의 흔적만 있고, 널방 앞벽과 천장부, 널길 양벽의 백회는 모두 떨어져나가 벽화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 전형적인 외방무덤구조, 인물풍습이 아닌 산악 위주의 벽화구성, 산악신앙과 관련된 듯한 명문, 묵선의 농담을 이용한 비교적 세련된 산악표현 등으로 보아 무덤축조 및 벽화제작 시기는 6세기 전반 경으로 추정된다. 평정리1호 벽화고분은 산수를 벽화주제로 한 최초의 벽화고분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 Ⅲ. 산신탱의 도상형식과 봉안장소

#### 1. 산신탱의 도상특징

山神圖는 불화의 한 종류로 호랑이와 신선을 그린 그림을 통칭한다. 산악신앙은 자연을 대상으로 한 신앙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산신은 산을 지키고 담당하는 신으로 그를 받들어 제사지내는 일을 산신제 또는 山祭라 하며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다.

『舊唐書』에 보이는 백제의 산신신앙을 비롯하여 『삼국유사』에 보이는 신라의 五岳山神,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四岳神과 山川神 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 국가에서 제사를 관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산신신앙은 모든 자연물에는 精靈이 있고 그것에 의하여 생성이 가능하다고 믿는 원시신앙인 정령신앙 [Animism]에서 비롯된 것이다.

도상은 백발수염의 신선과 호랑이가 아주 친근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으며, 특히 맹수인 호랑이가 해학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간혹 공양물을 두 손에 받쳐 들고 노인을 봉양하는 한 명 내지 두 명의 동자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노인과 호랑이만을 그리고 있다. 산신행은 원색과 단선이 기본이 되어 사실적 묘사에 치중하면서도 일종의 초현실적인 환상이 깃들여 있다.

산신행이 지니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산신’ 주변에 늘 소나무가 그려진다. 화면 분위기가 유사한 독성도(獨聖圖)에 소나무가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독성은 불도(佛道)를 스스로 깨우쳐 높은 경지에 도달한 도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찰의 독성각에 단독으로 모셔지거나 삼성각(三聖閣)에 산신행과 함께 봉안되기도 한다.

독성도를 보면 산신행의 ‘산신’ 처럼 생긴 독성이 깊고 그윽한 산골짜기를 배경으로 혼자 앉아 있다. 화면의 분위기는 산신행과 매우 비슷하지만, 산신행에서처럼 특별히 소나무가 등장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산신행의 소나무가 단순히 자연 풍경을 구성하는 한 요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 상징물로 그려진 것임을 알려준다. 산신행의 소나무는 우주목의 성격을 지닌 신수(神樹)로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한다.

## (1) 자세 및 구도

1800년대에 제작된 산신행에서 산신은 대부분 오른쪽을 응시하고 있다. 호랑이에 걸터앉거나 반가부좌자세로 오른손은 수염을 쓰다듬고 왼손에는 부채를 들고 있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자세다.

호랑이의 시선은 신선과 같이 오른쪽을 향하는 것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으나, 반대로 신선의 왼편을 향하고 있는 예도 있다. 앞서 언급한 오른손으로 수염을 쓰다듬는 자세 이외에 간혹 왼손으로 수염을 만지는 모습도 등장하는데 이런 경우 호랑이는 산신의 왼편을 응시하는 자세로 표현한다.

일반적인 불화와 동일하게 산신탱 역시 화면을 여백 없이 가득 메우는 화면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좌우대칭이 아닌 안정된 삼각구도를 바탕으로 한 편파구도를 보여준다. 산신과 호랑이를 중심에 배치하고 배면에 장송(長松)을 배치한다. 소나무는 전체를 표현하지 않고 사선으로 처리된 구름위에 之자로 굽은 형태이며, 가지와 줄기 역시 치렁치렁하게 늘어진 하단부만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신탱에 있어 백미는 소나무과 사선으로 표현된 산 능선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면의 상단을 가리는 소나무 줄기로 인해 여백없이 답답함을 들어내는 것을, 사선 능선으로 인해 화면 하단으로 속도감을 느끼게 해주고,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화면의 무게가 화단으로 몰리게되는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조선 후기, 엄밀히 말해서는 1900년 초를 기점으로 하는 조선 말기에는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에서도 변화가 나타난다. 특히 회화에 있어서는 재료, 기법의 후퇴와 퇴락이 여실하고 도상에 있어서는 중국의 도교적인 색채가 강하게 나타난다. 인물 표현은 너그러운 할아버지에서 도교의 신선, 혹은 무장(武將)의 근엄한 표정으로 바뀌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寧國寺 山神幀(1907년작)으로 양 눈을 치켜 뜬 분노에 찬 모습이며, 화면 하단의 동자 역시 재래의 한국적 인물이 아닌 중국식 복장을 한 중국 소년의 모습이다.

산과 강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완만한 능선을 특징으로 하는 우리네 산이 아닌, 화북지방의 대관산수를 옮겨다 놓은 듯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산신탱의 또 하나 특징으로 동자를 들 수 있다. 동자(童子)란 아니 어린 소년, 소녀를 일컫는데 일반적으로 세파에 물들지 않은 天真爛漫한 시절을 일컫는다. 동자의 산스크리트 명은 쿠마라(Kumara) 혹은 쿠마라카(Kumaraka)이며, 서역어로는 bu, bson-nu라고 한다. 이 말을 음역하

여 구마라(鳩摩羅·拘摩羅·俱摩羅)· 구마라가(鳩摩羅伽)라 했으며, 동진(童眞)· 동남(童男)· 동자(童子)· 왕자(王子) 등으로 의역되었다.

불교에서의 동자는 출가하지 않은 어린 아이라는 뜻으로 유동(幼童) 이라고도 한다. 나아가 동자는 남녀 어린이를 함께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별도로 여아를 부를 때는 동녀(童女)라고 하였다.

1800년대 중반까지는 동자 없이 산신만 단독으로 조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던 것이 靑巖寺修道庵 산신행(1864년)이 제작되는 후반부터는 쌍혹은 단독으로 동자가 함께 표현되고 있으며, 특히 산신의 좌우에 서서, 마치 부처님을 협시하는 좌우 보살과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후 1900년대에 들어서면 단독상 위주로 등장한다. 이 경우 동자가 위치하는 곳은 호랑이의 반대쪽에 서서 호랑이와 조우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 (2) 지물 및 의복

### ① 산신

산신의 지물에 대해서는 경전에 나타나는 특별한 기록이 없다. 다만 전통적으로 귀인, 국왕 등이 평상시 휴대하는 부채를 들고 있다. 부채는 지위의 상징으로 일찍이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등장하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부채 역시 1800년대에는 전통적인 공작선(孔雀扇)이 등장하나 1900년대에 들어서는 도교식 파초선(芭蕉扇)으로 변화한다.

의복은 대부분이 붉은색이며, 옷깃에 부분적으로 청색을 주조로 한 채색을 가하고 있다. 스님들이 착용하는 법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균의와 대의를 함께 입고 있다. 가슴 앞으로 띠로 묶었으며 전기에는 발이 드러나지 않다가 1900년대에 들어서 가죽신을 착용하고 발을 노출시키고 있다.

의습선 처리는 먹으로 신체의 대표부위만 표현하였고, 간혹 대의 위에 금란으로 구름문양, 음자 등을 표현하였다.

이외 산신의 지물로는 알 수 없는 식물이 있다. 장수를 상징하는 불로초로 생각되는데 손에 들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주변에 별도로 그려 넣기도 하였다.

머리에는 모두 영라관을 착용하였다. 사라(紗羅)라는 투명한 비단을 소재로 하였고 별도로 상투를 틀어 오렸다. 관은 산신행의 편년을 알려주는 자료가 되는데 투명한 영라관에서 불투명, 관 없이 상투만 튼 형태로 변화과정을 보인다. 대략 직지사 산신행과 같이 1900년대를 기점으로 이러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 ② 동자 및 기타

시립한 동자의 지물은 크게 2종류로 분류된다. 한 명의 경우 산신의 부채를 들고 있거나, 불자(拂子)를 세워 들고, 두 명의 경우 쟁반에 석류, 수박, 불로초 등을 들고 있다. 복식은 불화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동자의 의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타래형태로 묶었다.

동자 역시 시대에 따른 변화상을 보이는데 대표적인 것이 1900년대에 제작된 동자는 모두 허리에 호롱병을 달고 있다. 도교의 신선을 호위하는 동자에서 등장하는 것으로 이 시기 산신행이 도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그밖에 1900년대 들어 주전자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전통적인 산신행에서는 없던 것으로 독성탱에서 간혹 나타났었다. 역시 도교의 신선 옆에서 동자가 차를 끓이기 위해 화로에 불을 피우고 주전자를 올리는 것과 연관이 있다.

수박과 석류는 조선 전기에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두 씨앗과 열매가 낱알로 이루어져 자손의 번창과 과육의 붉은 색이 상서롭다 하여 조선시대 도석인물화에서 즐겨 그리던 소재다.

## 2. 산신행의 봉안장소

불교사찰 내에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2가지 경우가 있다. 불교의 사찰과 관계없이 지어진 산신행은 산악승배나 마을신앙과 관련되어 있다. 이때 산신행은 대체로 1평 정도의 집으로 산신행이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산신은 보통

호랑이와 함께 있는 백발에 수염이 있는 신선의 모습으로 그려지며, 위패는 '○○山神位' 또는 '○○山靈位'라 해서 산의 이름을 적어놓는 경우와 산의 이름은 없이 그냥 '산신위' 또는 '산령위' 라고 적어두는 경우가 있다. 건물 정면에 현판이 걸려 있는데, 산신각이라는 명칭 외에 '산신당·산명당'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도 한다.

산신은 지역수호신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보통으로 산뿐만 아니라 산 주변의 지역을 관장하는 신으로 여겨졌다. 산은 한 지역공간의 중심이며, 산신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지켜주는 존재로 믿어졌던 것이다. 한편 산신각에 모셔지는 산신의 모습이 일반적으로 仙風道骨의 노인으로 그려지는 것을 생각해볼 때, 산신신앙이 神仙思想과도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의 불교사찰에 있는 산신각은 고유신앙의 수용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민간의 신앙이 두터운 七星도 같이 모셔졌다. 그 명칭은 산신각·七星閣·三聖閣 등 일정하지 않다. 현재 불교에서는 산신을 가람수호신과 산 속 생활의 평온을 지켜주는 外護神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 대부분의 사찰에는 산신각이 갖추어져 있으며, 자식과 재물을 기원하는 산신기도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 산신각은 불교 밖에서 유입된 신을 모시는 건물이기 때문에 전(殿)이라 하지 않고 반드시 閣이라 하는데, 이는 한국 불교 특유의 전각 가운데 하나로 한국 불교의 토착화과정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 IV. 木芽博物館 山神幀과 花藏庵 山神幀의 考察

### 1. 목아박물관 소장 산신탕 고찰

이 탕화의 명칭은 咸豐4年銘 山神幀이다. 칙녕쿨이 감긴 老松 아래 山王大

神을 虎君과 함께 그렸다. 透明頭巾이 너무 뻗뻗하고 과장되었으며 소나무 줄기 옆에 石間朱로 나무를 그려 넣었다.



1854년작, 絹本彩色 95.5×68.5 (畫幅 87.7cm×60cm)  
 咸豐四年甲寅四月初七月山神畫成奉安  
 化主壯彥 大施主金成振 朴日範

가장 일반적인 산신탱의 예로 녹색 화면을 배경으로 사선 능선에는 소나무와 가지만 무성한 나무를 표현하였고, 호랑이에 기댄 붉은색 의복을 착용한 산신을 그렸다. 오른손으로 수염을 잡고 왼손은 대의밑에 감추어져 보이지 않는다. 1853년에 제작된 용문사 산신탱,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 산신탱과 동시에 제작된 것으로 재질, 안료의 사용, 포즈 등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안정된 구도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오른손의 표현은 전통적인 불, 보살에서 보여지는 매끈한 손가락 표현을 잃지 않고 있다. 가늘면서 길고, 손톱을 뾰족하게 표현하는 손의 모습은 1800년대 중반 제작된 불상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에 반해 주름이 많고 신체에 비해 작게 나타나는데 안면표현은 1800 ~ 1900년대 그려진 모든 산신탱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산신의

얼굴은 근엄함이 배제된 시골 촌로의 그것이다. 대부분 비슷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민족이 지니고 있는 산신의 공통된 이미지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다.

## 2. 花藏庵 山神幀의 고찰

화장암은 충청북도 丹陽郡 永春面 上里의 太華山에 소재한다. 현재 대한불교 천태종에 속한다. 암자의 창건 연혁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원래는 큰 절이었으나 조선 말에 폐허가 되고 高宗 1년인 1897년(光武1) 安東人 金永俊이 지방 유지 張錫岐, 趙鍾永, 趙鍾玄 등의 협조를 얻어 중창을 시작했다. 그러나 돈이 모이지 않아 永春縣監에게 國庫金 1,000냥을 빌려 공사를 마쳤으며, 돈을 갚지 못하자 체포되어 서울로 이송되었다.

이때 흥선 이하응이 화장암 산신령의 현몽을 얻어 김영준을 직접 국문한 뒤 죄를 사면하고 친필로 花藏庵 懸板 1장, 靑蓋瓦 3장, 法服 1벌, 高宗의 초상화 등을 내려 절에 봉안하도록 했다. 그 뒤의 자세한 연혁은 전하지 않는다. 이상의 기록으로 보아 처음의 寺名은 花藏庵이었으나 대원군이 현판을 내리면서 花藏庵으로 개명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향으로 법당이 있었으나 현재는 수 년전의 화재로 터만 남아있다. 자연석을 이용한 축대 위에 건물지를 삼았으며, 법당 자리 우측으로 山靈閣 1동이 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법당은 正面 3間, 側面 2間 맞배지붕의 木造瓦家였다고 한다<sup>1)</sup>.

기록에는 법당 내에 관세음보살, 십일면관음보살상, 나한상 등이 봉안되어 있었다고 하며, 특히 산신을 봉안한 산신각을 '산령각' 이라고 한 것은 이 절의 산신령이 부처님의 사자로서 대원군에게 영험을 나타냈으므로 특별히 '靈'자를 쓴 것이라고 한다.

산신탱이 봉안되어 있는 산령각은 정면 1간, 측면 1간의 맞배지붕의 목조기와집으로 매우 쇠락하여 보수가 심각하다. 처마 밑에 “山 閣” 이라는 현판이

1) 『寺誌』, 충청북도, 1982. 『丹陽郡誌』, 단양군, 1977.

걸려있다. 산령각 내부에는 花藏庵의 내력을 알 수 있는 현판이 걸려 있다. 이에 의하면 肅宗 34년(1708) 창건 후 純祖 18년(1818)에 중건하였고 高宗 建陽 1년(1896)에 재중건 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재중건의 년도를 아래에는 佛紀 2913년이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서기 1886년이므로 위의 내용과 달라 어느 것이 맞는지 불확실하다. 또한 산령각 안에는 1938년 花藏庵 主管 趙東植이 謹 한 “山靈閣重建記”가 있다<sup>2)</sup>.



화장암 산영각 내부 산신탕 봉안상태



화장암 산신탕

1897년 중수기록으로 미루어 이 산신탕 역시 비슷한 시기에 조성, 봉안된 것으로 보인다. 왼손을 들고 왼쪽 방향을 응시하고 있으며, 호랑이와 수박의 배치 역시 오른쪽에서 왼쪽을 향하고 있다.

붉은색 의복을 착용하고 있고, 상투를 틀고 투명한 영라관을 착용하였다. 전통적인 삼각구도를 취하고 있으니 채색은 좋지 못하다.

2) 淸州大學校 博物館, 『丹陽郡 文化遺蹟』, 遺蹟調查報告 第27冊, 2000. pp. 46~47.

李政 편저, 『韓國佛敎 寺刹事典』, 불교시대사, 1996. pp. 657~658.

### 3. 목아박물관 소장 산신탕과 화장암 산신탕의 비교

화장암 산신탕은 시기적으로 목아박물관 소장 산신탕과 43년의 차이를 두고 제작되었다. 더구나 구도 역시 우향(右向)을 취하고 있는 차이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산신의 방향이 우향을 할 경우 소나무, 호랑이, 수박과 같은 부속 소재는 좌향을 취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화장암 산신탕의 경우 모두 다른 방향을 취하고 있다.

불화를 제작할 때 밑그림을 초(草)라고 하는데, 스케치 개념보다는 기본 초를 밑에 두고 베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초는 한지에 먹으로 그리는데 오래 사용하다 보면 초 자체에 안료가 묻어 언뜻 보기에 채색화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 개중에는 뒤집어 그려 - 실수든, 고의든 - 초와는 반대구도의 그림이 남아 있기도 하다.

화장암 산신탕 역시 산신의 얼굴 생김, 자세, 소나무와 호랑이의 표현이 전대의 전통을 따르고 있으나, 구도만 정반대를 취하고 있어 초를 뒤집어 그린 것으로 생각된다. 목아박물관 소장 산신탕과 동시기에 제작된 동국대 박물관, 보현사소장 산신탕은 제작지가 현재의 충청북도 일원이다. 목아박물관 산신탕 역시 주로 충북지역에서 활동한 인물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

물론 보현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실한 화기가 남아 있지 않으나, 조선말기까지는 본찰(本刹)을 중심으로 이에 묶여 관리된 회승(畵僧) 집단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활동 범위 역시 본찰을 벗어나기 어려웠던 사실을 통해 어느 정도 제작지역을 추정할 수 있다.

화장암의 경우 동상에서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얼굴의 표현기법, 관좌우로 늘어진 장식의 유사성, 의습선의 주름, 채색이 전반적으로 목아박물관 소장 산신탕과 동일함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호랑이의 표현은 한 작가의 기량으로 보인다. 즉, 산신과 호랑이는 전래부터 내려오던 초 또는 기존 산신탕을 모본으로 삼아 그리고 주위 소나무와 수박 등의 부가물을 더한 것으로 사료

된다.

소나무의 표현에서 줄기 중앙부의 굽게 꺾인 형태는 1887년 제작의 보현사 산신탱과 동일하다. 따라서 1850년 경 제작된 산신탱 혹은 초의 인물을 토대로 1800년대 말에 부가물을 더해 완성한 산신탱인 것이다. 조선시대 후기의 민화에 등장하는 까치와 바보호랑이 그림에 등장하는 호랑이를 참고해 보아도 이러한 사실은 여실히 드러난다. 꼬리를 곧추세우고 커다란 눈을 뜨고 있으며, 이를 드러내고 있으나 성내지 않은 어찌 보면 바보스러운 우리만족 마음속의 호랑이 정서를 화장암 산신탱의 호랑이에서 찾을 수 있다.

## V. 맺음말

사찰 경내에 있는 산신은 불교의 재래 신앙에 대한 수용의 결과물이다. 산신은 사찰에 들어와 먼저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신중(護法神衆)이 되었다가 후에 원래의 성격을 되찾게 되었다. 오늘날 사찰의 산신은 호법신중으로서의 기능보다도 산중 생활의 평온을 지켜 주는 외호신(外護神)의 구실과 함께, 전통의 기복적인 신앙대상으로 존재하고 있다.

산신 신앙은 사찰에서뿐만 아니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을의 산신제를 통해서도 전승되고 있다. 산신제를 지낸 때는 산신탱을 모시기 보다 위패를 모시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있으나, 대관령 산신당이나 서울의 보현각 산신당(평창동)에서는 실물의 산신탱을 봉안하고 제사를 지낸다.

전통적인 산신 신앙은 호랑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후한서(後漢書)』동이전(東夷傳) 예(濊)조에, “그 풍속은 산천을 존중한다. 산천에는 각기 부계(部界)가 있어서 함부로 서로 간섭할 수 없었다.” “호랑이에게 제사 드려서 그것을 신으로 섬긴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원래 우리나라 산신 신앙의 대상은 호랑이였다. 그러나 현존하는 산신탱에

그러진 내용을 보면, 흰수염의 노인이 화면의 주인공이며, 호랑이는 산신의 시종(侍從)처럼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신인 호랑이의 신격(神格)을 '산신님'으로 인격화하고, 주 신앙의 대상을 '산신님'으로 삼게된 데 연유한 것이다.

이처럼 신앙의 주 대상이 인격화된 신앙으로 전이되는 현상은 무화(巫畵)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 그 예를 용왕도(龍王圖)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용왕도를 보면 주인공이 도포를 입고 근엄하게 앉아 있는 인물상(무속에서는 용왕님이라 부른다)이 화면 중앙에 군림하고 있고, 용은 '용왕님'의 주위를 싸고 도는 부수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용의 신격을 '용왕님'으로 형상화하여 그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은 결과 나온 것으로, 산신행에서 '산신님'의 경우와 같은 것이다.

산신행의 '산신님'은 일반적인 초상과 다른 종교적인 초상과 다른 종교적인 신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신의 초사(草寫) 나아가 신탁(神卓)의 또 다른 표현이다.

1900년대는 왜색 짙은 서구문화가 유입되던 시기로 알려져 있다. 불화 역시 이러한 영향을 일부 받아 원근감, 명암법 등을 사용해 제작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산신행의 경우 오히려 중국의 도교적인 색채가 농후한 도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전통의 산신신앙과 도교의 무위자연, 은거가 상호 교우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무장(武將) 형태의 도상 역시 무너지가는 조선왕조와 민중들의 어려움을 막아내기 위한 방편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남아있는 산신행의 화기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일반불화의 제작자와 같이 화승(畵僧)들에 제작되었다. 산신은 우리 민족 정서에 누누이 이어져 내려온 민족신앙이며, 스님들에게도 거부감 없이 그릴 수 있는 신앙의 대상이었기에 화승에 의한 제작이 가능했던 것이다.



慈藏庵 山神幀 조선후기, 絹本彩色  
(85x67cm)



鳴鳳寺 山神幀 조선후기, 麻本彩色  
(97x76cm)



昌寧布教堂 山神幀, 錦本彩色  
1897년(94.5x84cm)



毘盧庵 山神幀, 錦本彩色  
근대, (94.5x77.5cm)



普賢寺 山神幀, 絹本彩色  
1887. (190x68.3cm)



文殊寺 山神幀, 麻本彩色  
1873, (94x73cm)



龍門寺 山神幀 麻本彩色  
1853, (126x79cm)



靑巖寺 修道庵 山神幀, 麻本彩色  
1864, (89x68.5cm)



東國大博物館 山神幀



석남사 산신평. 1863

## 【산신탱 화기】

### 龍門寺 山神幀

1853년, 麻本彩色, 126×79cm, 慶北 醴泉郡 龍門寺

咸豐三年癸丑七月二十日奉安于小白山龍門寺 證明混虛智□ 誦呪字虛奉□ 金魚采堅 供養主擇□ 化主德月 富悅 都監遇印應□ 別坐恩善

### 靑巖寺 修道庵 山神幀

1864, 麻本彩色, 89×68.5cm, 慶北 金陵郡 靑巖寺 修道庵

同治三年 甲子冬通度寺白蓮庵山林與佛事中新 畫成移安于雲住庵 綠化秩 證明 大雲奉洽 金魚霞應偉相 瑋璉 都監龍虛智默 別坐 慈雲天人 供司寬天 施主 比丘斗奉

### 文殊寺 山神幀

1873년, 麻本彩色, 94×73(畫幅 85×66)cm, 慶北 善山郡 文殊寺

大清同治十二癸酉六月日東□寺彌陀庵山神幀新畫 證明比丘 □巖□□ 月道□ 萬遇□□ 誦呪 □□ 金魚□ □□□□ 湖月□□ 能惺□□ 奉□□□ 萬□□□ 取文 豆仁 持殿□□ 供司□□ 別座□□

### 鳴鳳寺 山神幀

朝鮮 後期, 麻本彩色, 91×76(畫幅 86×69)cm, 慶北 醴泉郡 鳴鳳寺

…金魚…供司信…施主秩…醴泉郡上里面…星洞 居…信?…信女 洪□…兩住保體…長子 潤□ 次子 潤泰

### 石南寺 山神幀

1863년, 絹本彩色, 89.5×67.5cm, 慶南 蔚山市 石南寺

同治二十癸亥七月初四日 造成本庵奉安于 庵也

證明比丘月庵奉祐 誦呪比丘誓度元贊

魚書 比丘兼施主右道陝川海印寺環雲琪全 化主比丘鶴峯奉寬 供養主比丘偉寬

### 普賢寺 山神幀

1887년, 絹本彩色, 190×68.3cm, 忠北 報恩郡 法住寺

大施主坤明庚寅生李氏秋聲浦保體

證明 比丘幼溟日昨

金魚 比丘瑞輝 法林

光緒十四年丁亥六月日新造成初三日奉安于山神閣

### 毘盧庵 山神幀

近代 綿本彩色, 畫幅 94.5×77.5cm

上壇幀同時造成奉安于本庵山靈閣

金魚 比丘煥月尚休 施主己酉生張潤植 丁巳生文氏兩主 率子己丑生敬宅 丙戌生金氏兩主 次子丙申生敬守小敬守

# 우익정 민진장(閔鎭長)의 묘소와 신도비

여주군지 편찬위원회 연구원

이 민 식

여주는 산세가 수려하고 물산이 풍무하여 일찍부터 여흥민씨(驪興閔氏) 여주이씨(驪州李氏) 여양진씨(驪陽陣氏) 등의 명문세가들어 대대로 세거(世居)하던 유서깊은 고장이다. 이중 여흥민씨(驪興閔氏) 삼방파(三房派)가 가장 번창하여 나라 안에 명성이 자자하였으며, 고종대(高宗代)에 이르러서는 세도정치(勢道政治)를 펼쳐 그 위세를 천하에 떨치기도 하였다.

효종대(孝宗代)에 강원도관찰사를 역임한 민광훈(閔光勳 1595~1659)은 슬하에 모두 3남3녀를 두었는데, 장남 민시중(閔著重 1625~1677)은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차남 민정중(閔鼎重 1628~1692)은 의정부좌의정, 막내 민유중(閔維重 1630~1687)은 숙종(肅宗)의 장인이자 인현왕후(仁顯王后 1667~1701)의 생부(生父)로서 여양부원군(驪陽府院君)에 봉해 지는 등 모두 크게 현달(顯達)하였다. 삼방파는 이들 삼형제와 그 후손들을 일컫는 파명(派名)이다.

삼방파 후손들은 향리(鄉里)에만 머물지 않고 조선후기에 이르러 중앙 관계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꾸준히 주요 요직을 점유하였으며, 왕실과의 국혼(國婚)도 성사시켜 명실공히 국중 제일의 명문거족(名門巨族)으로 부상하여 당대의 권문세족(權門勢族)인 안동김씨(安東金氏), 풍양조씨(豐壤趙氏)와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이조판서 민진주(閔鎭周 1646~

1700) 우의정 민진장(閔鎭長 1649~1700) 의정부좌참찬 민진후(閔鎭厚 1659~1720) 좌의정 민진원(閔鎭遠 1664~1736) 우의정 민응수(閔應洙 1684~1750) 이조판서 민영익(閔泳翊 1860~1914) 충정공(忠正公) 민영환(閔泳煥 1852~1935)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여성부원군(驪城府院君) 민치록(閔致祿 1799~1858)의 따님이 고종(高宗)과 국혼을 하여 명성황후(明成皇后 1851~1895)로 봉해짐에 따라 여흥민씨의 세도(勢道)는 극에 달했다. 더구나 고종의 조부(祖父)인 남연군(南延君) 이구(李球? ~1822)가 감역(監役) 민경혁(閔景爌 1746~1815)의 사위이고, 그 아들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1820~1898)이 공조판서 민치구(閔致久 1795~1874)의 따님과 혼인하였으니, 당시 여흥민씨의 권세(權勢)는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였다.

이러한, 삼방파가 여주와 실질적인 인연을 맺게된 것은 1677년(숙종3)에 돌아간 대사헌 민시중(閔耆重)이 묘소를 여주 수계면(首界面) 즉 지금의 능서면 오계리(梧溪里)에 쓰게 되면서 부터이다. 민광훈은 여주에 별다른 연고를 갖지 못했었는데, 그 아들 삼형제가 비로소 여주에 선산(先山)과 별서(別墅)를 마련하면서부터 여주와 깊은 인연을 맺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민시중과 더불어 민정중, 민유중의 묘소가 모두 여주에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또한 그 후손들도 여주에 묘역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조선 시대의 묘제와 석물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을 여럿 남겨 놓았는데, 그중 원형이 잘 보전된 것 중의 하나가 숙종대에 우의정을 역임한 문효공(文孝公) 민진장의 묘소와 신도비이다.

민진장은 숙종대의 문신으로 자는 치구(稚久)이며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문인(門人)이다. 할아버지 민광훈, 아버지 민정중과 함께 삼대(三代)가 연속으로 문과(文科)에 장원급제(壯元及第)하여 문명(文名)을 크게 떨쳤고, 정치적으로론 노론(老論)의 입장을 충실히 계승하였던 인물이다. 실록에 민진장의 생애를 간략히 평한 기록이 있어 아래에 옮겨 본다.

“우의정 민진장(閔鎭長)이 졸(卒)하니 나이 52세였다. 민진장은 가정의 행실이 매우 지극하

여 아버지 민정중(閔鼎重)을 섬김에 뜻을 잘 받들어 어짐이 없었고, 그 어머니가 중병을 앓았는데, 밤낮으로 간호(看護)하면서 수십 년을 하루같이 하여 효성이 천성(天性)에서 타고 나와 사람들이 모두 감탄하였다. 조정에 벼슬할 적에는 일을 공평히 처리하고 법을 지켜서 한결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임하고, 오랜 동안 군국(軍國)의 중요한 임무를 통괄하여 마음과 힘을 다한 후에야 그만두었다. 민정중은 강직(剛直)하고, 민진장은 온화 중후하여 부자(父子)가 타고난 성품은 비록 같지 않았으나, 성심으로 나라를 위하여 사림(士林)을 도와 권장하는 데는 다를 것이 없었다. 한때 사람들이 모두 민정중의 착한 아들이라고 칭송하였고, 정승에 임명되자 여론이 만족해하며 앞으로 큰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는데, 숙배(肅拜)도 하기 전에 갑자기 죽으니 조야(朝野)에서 매우 애석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 뒤에 문효(文孝)라는 시호가 내려졌다(『숙종실록』 26년 3월 16일 기유)''

위 기록에 의하면 민진장은 노론의 맹장(猛將)이었던 아버지 민정중과 달리 성품이 온화하고 효성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점동면 부구리의 구부실 마을 뒷산에 민진장의 묘소가 자리잡고 있으며, 묘역으로 오르는 길가에 신도비(神道碑)가 세워져 있다. 신도비란 신도(神道) 즉 묘소로 오르는 길가(墓道)에 세우던 비석으로, 그 비문은 망자(亡者)의 생애를 기록한 서(序)와 그 생애를 찬미(讚美)하고 시(詩)로 읊은 명(銘)으로 구성된다. 중국 한(漢)나라 때부터 건립이 시작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세워졌다. 현재 남아 전하는 모든 신도비도 조선시대에 건립된 것 들이다. 고려시대에도 소수 입석되었다고 기록으로 전하나 실물이 없어 자세한 내용은 파악할 수 없다. 신도비의 건립에는 막대한 인력과 물량이 소요되는 만큼, 아무나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후(死後)에 종이품(從二品)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상의 품계(品啓)에 추증(追贈)된 자만이 세울 수 있었다.

총높이 약 426cm의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민진장 신도비는 보는 이를 압도하며 위풍당당하게 서 있다. 비석 받침(方趺)은 화강암을 사각형으로 다듬어 사용하였는데, 앞면에는 연못에 가득 핀 백련꽃 사이로 노니는 현무(玄武)를 조각하고 좌우에는 해태( )를 그리고 뒷면에는 화문(花紋)을 가득 장식

하였다. 또한 비신(碑身)을 보호하고 있는 팔각지붕 형태의 옥개석(屋蓋石) 용마루에는 여의주를 입에 문 쌍룡(雙龍)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눈을 부릅뜬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조각 수법이 사실적이고 양식이 매우 뛰어나 영조대를 대표할만한 신도비로 판단되며, 특히 비석받침에 조각된 문양들은 그 유례를 찾기 힘들어, 조선시대 석조미술사의 귀중한 유물로 평가된다.

비문은 대학자 이재(李穡 1680~1746)가 짓고 동국진체(東國眞體)의 명필(名筆)인 홍봉조(洪鳳祚 1680~1760)가 썼으며 종제(從弟)되는 민진원(閔鎭遠)이 전액(篆額)을 올렸다. 전액이란 비신의 제일 윗부분에다 누구의 신도비라고 제목만을 간단히 큰 전서(篆書)로 쓴 것을 말한다. 전액이 “의정부우의정증시문효민공신도비명(議政府右議政贈諡文孝閔公神道碑銘)”이라 되어 있어 민진장신도비임을 알 수 있으며, 건립연대는 1743(영조19)이다.

신도비에서 조금만 산으로 올라가면 양지바른 곳에 자리잡은 민진장 묘소가 나타난다. 묘역에는 문인석(問人石)·망주석(望柱石)·상석(床石)·고석(鼓石)·향로석(香爐石) 등의 옛 석물이 진설(陳設)되어 있고, 팔각의 호석(護石)을 둘러 본분 좌측에는 묘표(墓表)가 세워져 있다. 왕실의 지친(至親)이 아니면 마련할 수 없는 호석이 설치되어 있어, 당시 민진장 일문(一門)의 위세를 가늠할 수 있다. 석물 또한 당대의 명장(明匠)들이 참여한 듯, 조각 솜씨가 뛰어나다. 호석을 제외하곤 숙종대(肅宗代) 사대부(士大夫) 묘제(墓制)의 전형을 잘 간직하고 있어 조선시대 묘제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민진장 묘소 주변에는 장남 호조정랑 민재수(閔在洙 1668~1718)와 차남 둔령부판관(敦寧府判官) 민계수(閔啓洙 1671~1720)의 묘소도 위치하고 있어 이 일대가 여흥민씨의 세장지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여주군 관내에는 민정중(여주읍 상거리), 민유중(여주읍 능현리), 민진후·민진원(가남면 안금리) 등의 묘소가 남아 있어 여흥민씨 삼방파의 옛 영화(榮華)를 잊혀주고 있다.



◀민진장 묘소 전경

민진장 신도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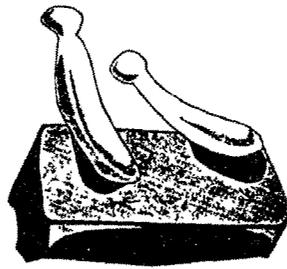


▲민진장 신도비 비석받침의 해태조각

여

백

# 양토 조명



## 고달사지 부도(高達寺址 浮屠) 축보 제4호

〈편집부〉

높이 3.4m인 부도의 전체 구조는 원종대사 부도와 비슷한 팔각원당형이나, 지대석에서 완전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원종대사 부도보다 앞선 연대의 것으로 추측된다. 원종대사 부도는 4개의 돌을 정교하게 짜맞춘 데 비해 이 부도는 팔각의 지대석을 놓았다. 기단부·탑신부·지붕돌을 모두 갖춘 전형적인 팔각원당형으로, 신라의 양식을 비교적 정직하게 이어받은 고려시대 초기 부도의 빼어난 작품이다.



▲ 고달사지부도

지대석은 중심에 놓인 팔각 대석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매의 판석으로 짜여 있다. 지대석 위로는 두툽한 돌로 꺾대를 놓아 다소 높다는 느낌을 준다. 아래 부분은 안상을 음각으로 새겼는데, 그 중심에 귀꽃모양의 안상을 한 면에 한 구씩 꾸민 것이 이채롭다. 상단에는 연꽃을 복련(연꽃이나 연잎사귀가 아래로 쳐져 내린 모양의 무늬)으로 둘러 피개 해 시원하면서도 안정감이 있다.

중대석의 둥근 몸돌에는 거북을 중심에 두고 네 마리의 용이 구름 속에서 노닐고 있다. 정면을 향하고 있는 거북머리는 형식화된 면을 보이고는 있지만, 주변에 정교한 솜씨로 다듬은 용머리와 힘이 넘치는 그들의 몸짓은 매우 역동적이어서 사실감을 주며 웅장하기 까지 하다. 큼직한 연꽃이 앙련(연꽃이나 연잎사귀가 위로 향한 모양의 무늬)으로 둘러진 받침 위에 팔각 상대석을 놓고 몸돌을 안치하였다.

팔각 몸돌에는 정면과 후면에 자물통이 달힌 문짝과 창살문, 사천왕이 번갈아 조각되어 있는데, 눈매가 서글서글하고 몸매의 균형이 잘 잡힌 사천왕상이 돋보인다.

두툽한 지붕돌이 자칫 투박해 보일 수도 있겠으나, 여덟 귀의 전각을 날렵하게 들어올린 큼직한 귀꽃(석탑·석등등의 옥개석 추녀마루 끝에 새겨진 꽃 무늬 장식)이 이를 상쇄시키고 있다. 지붕돌 처마 밑에는 아름다운 비천상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부도의 주인이 지금 천상 세계에 머물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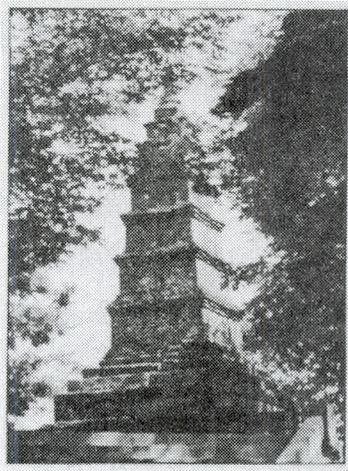
지붕돌 정상면에 이르러 복련을 두르고 상륜부를 받치도록 하였으나, 현재 상륜부는 남아 있지 않고 지붕돌을 축소해놓은 것 같은 보개(상륜의 보륜과 수연사이에 있는 단집 모양의 부분)만 남아 있다. 그 위에 찰주(상륜의 심주. 곡탑의 중심기둥)를 꽂기 위한 원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륜부는 매우 화려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 신륵사의 다층전탑(多層轉塔)

〈편집부〉

사찰 경내 동남단 강가의 넓은 바위 위에 웅장한 다층전탑 1기가 있다. 이 전탑은 벽돌을 쌓아서 만든 탑이므로 옛부터 신륵사를 가리켜 벽절이라고 한 기록들이 있다.



▲ 신륵사 다층전탑

이 탑은 신륵사를 찾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강물을 오르내리는 사공에 의해서도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있음이 사실이다. 그래서 신륵사란 절 이름보다도 이 탑이 더욱 유명하게 되었고, 또 그 탑은 벽돌로 쌓아올린 벽처럼 되었으므로 절 이름까지도 그냥 '벽절'이라 불려진 것으로 보인다. 강 상류의 댐이 건설되기 전에는 절벽 아래 부분의 강물이 매우 거세었다고 전해지므로 강 절벽에 건축된 이 전탑은 강을 오가는 사람들의 안전을 기원해 주고, 홍수범람을 막아달라는 염원의 뜻이 깃들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전탑은 그 형태적 측면으로 볼 때 중국탑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당나라 시기에 세워진 장안 홍교사의 원층탑이나 규기탑, 현장탑 등이 모두 이런 형태이니 아마도 나옹 화상이 중국을 여행하며 보고 온 그대로를 이곳에 재현해 내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

이 탑의 조성 연대에 대해서 혹자는 신라 시대의 것으로 보아 왔지만 그 문

양 등으로 보아 고려 시대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탑의 창건 연대는 알 수 없지만 탑의 북쪽에는 <송정기원지재병오중추일입> (崇禎紀元之再丙午仲秋日立)이라 한 수리비가 있으므로 그 중수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이는 조선 영조 2년(서기 1726년)에 해당되므로 이때 탑을 중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탑은 또한 기단부가 7층으로 되어 있되 기단자체가 체감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윤곽에서 상당한 높이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기단은 화강석으로 되어 있다는 점도 기억될만하다. 이러한 기단부의 특성은 아마도 탑전체를 높게 하려는 의도가 고려된 듯 싶으며 그것은 이 탑이 강가 언덕 위에 있어서 오가는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게 하려는 의도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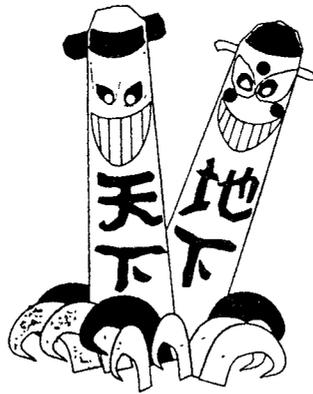
신라시대의 전탑이 벽돌사이의 간격이 좁은데 비하여 이 경우에는 사이가 넓게 면토(面土)를 바르고 벽돌에 연주문(蓮珠紋)을 두르고 그안에 당초문(唐草紋)을 양각한 반원문(半圓紋)이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전탑은 중간의 수리로 인해 창건 당시의 형태를 다소 잃었다 할지라도 동대의 암반 위에 높이 솟아 신륵사의 가람을 지키는 수호신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상을 풍기고 있다.

이

백

유적지 탐방



## 영월루(迎月樓)

〈편집부〉

### ■ 문화재개요

- 지정번호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37호
- 지정일 : 1983년 9월 19일
- 시대 : 조선 18세기
- 소재지 : 여주군 여주읍 상리 136-6

### ■ 설명자료

여주읍에서 신록사로 가는 길에서 여주대교 조금 못미쳐 우측 언덕위에 푸른숲으로 둘러싸인 고풍의 한 누각이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영월루이다.

영월루는 원래 여주군청의 정문이었는데 1925년경 당시 신현태(申鉉泰) 군수가 파손될 운명에 처해있는 이 누각을 현 위치에 다시 세웠다고 한다.

영월루 입구에는 비석거리가 있고 그 위쪽에는 1958년에 이진된 창리 삼층석탑(보물 제91호)과 하리 삼층석탑(보물 제92호)이 있다.

상층 누마루(다락처럼 한 층 높게 만든 마루)에 올라보면 숲속에 파묻힌 유명한 절 신록사의 대가람이 한강변에 바라 보이고, 학동모연·팔대장림·마암어등 등의 여주팔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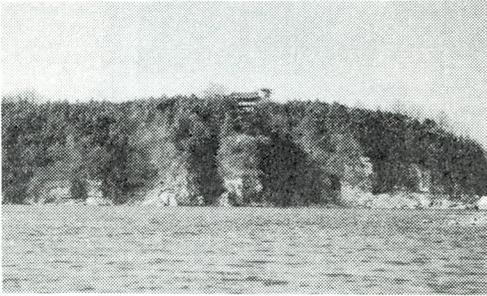
누각 바로 아래에는 커다란 괴암이 절벽을 이루는데 바위 위에는 힘있는 필치로 쓰여진 '마암(馬巖)'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이 큰 암석이 여흥민씨(驪興閔氏)의 시조가 탄생했다는 마암이다. 이 암혈에서 황마(黃麻)·여마(驪馬)가



▲ 영월루

승천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어 이것이 구전되어 여주군명을 황여(黃驪)라 칭했다는 것이다. 이 황여의 군명은 후에 여흥이라했고 그것이 다시 지금의 여주로 변한것인데 이 「여(驪)」자는 황마승천설에서 유래했다는 전설이 있다.

영월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익공계 팔작집으로 2층 누각 형식인데 정면 길이에 비하여 측면길이가 짧으므로 평면은 긴 장방형이다.



▲ 영월루와 마암

장대석(長臺石, 섬돌 층계를 놓거나 축대를 쌓는데 쓰기 위하여 길게 다듬어 만든돌) 기단에 놓인 높은 사각 초석 위에 짧은 하층 기둥이 세워져 누마루가 꾸며지고 그 위에 상층 기둥이 세워져 이익공(二翼工 : 기둥 위에 덧붙이는 쇠. 촛가지가 들로 된 익공)과 결구되고 오량의 지붕가구가 짜올려져 있다.

창방(대청 위의 장여 밑에 다는 넓적한 도리)이 굽은 부재로 보강된 것은 문루의 가구법과 유사하다. 상층의 누마루 사방에는 계자각 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익공의 형태나 가구수법으로 미루어 18세기 말의 건물로 추정된다.

영월루는 전망이 뛰어난 곳에 입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낮은 기단과 길다란 몸체, 그리고 치켜 들려진 팔작지붕의 비례가 적절히 조화되어 있다.

## 혼암리 선사유적(欣巖里先史遺蹟)

〈편집부〉

### ■ 문화재개요

- 지정번호 : 경기도 기념물 제155호
- 지 정 일 : 1995년 8월 7일
- 시 대 : 청동기시대
- 소 재 지 : 여주군 점동면 혼암리 산 2-1

## ■ 설명자료

혼암리 유적은 1960년대에 김원룡선생에 의하여 발견되었는데, 서울대박물관 고고학 조사단은 1972년도부터 장기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발굴을 실시한 결과, 모두 20여기에 가까운 움집터를 확인하였고 다수의 유물과 탄화곡물을 발견하였다. 집자리가 확인

된 곳은 여주읍에서 상류를 따라 약 10km 떨어진 남북으로 길게 뻗은 표고 123m의 산정상부 지점이었으며, 유적은 이 산 경사면을 따라 형성되어 있다.

집자리는 남북장축으로 풍화된 화강암반을 ‘ㄴ자’로 파고 지붕을 씌운 것이며 포탄형의 특징적인 화덕자리가 발견되었다. 주거지의 내부시설에는 화덕자리, 간단한 저장구덩이, 기둥구멍 및 출입구 등이 있다. 대표적인 제12호 주거지는 9.7m×3.7m 크기의 장방형의 모습이며 지하로 약 60cm정도 파 들어간 반수혈움집 형태이다. 바닥면은 편평하고 부분적으로 점토를 깔았으며, 기둥구멍, 화덕자리, 저장구덩이 등도 확인되었다. 기둥구멍은 다섯 줄로 나란히 배치되었는데 도합 39개의 기둥자리가 확인됨으로써 그 배치상태에 따라 당시의 집모습을 재구성 할 수 있다.

화덕자리는 집자리 내부에서 모두 세 개가 확인되었는데, 그 중 동쪽에 있는 것은 직경 60cm 정도의 타원형 형태의 것으로 그 내부에는 숯이 짝 차 있었다. 나머지 두 개의 화덕은 서편에 있었는데, 별다른 시설은 없었으나 바닥면이 몹시 불에 타 있는 흔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저장 구덩이는 모두 일곱 군데에서 확인되었는데, 남쪽에 네 개, 서쪽에는 두 개, 북쪽에서 한 개가 확인되었다. 이 중 가장 큰 것은 직경 75cm 크기이다. 여기에서는 다수의 토기, 석기, 그리고 쌀, 보리, 조, 수수 등이 발견되었다.

주거지에서 출토된 토기는 구멍무늬토기, 민무늬토기, 붉은 간토기 등이 있다. 민무늬토기에는 화분형, 사발, 단지, 짧은목 토기 등이 있다. 구멍무늬토기는 아가리가 넓고 깊은 사발형으로 아가리 아래에 구멍을 한 줄로 뚫고 아가리



▲ 혼암리 선사유적

윗면에는 새김을 하였다. 붉은 간토기는 원저호와 다리가 홀쭉한 굽다리접시 형태가 있으며, 석기로는 돌칼, 반달돌칼, 바퀴날도끼, 돌도끼, 돌화살촉 등이 있다.

혼암리 유적은 동북지방의 구멍무늬토기와 골아가리토기, 서북지방의 팽이형토기의 두 계통의 토기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이른바 혼암리형토기를 만들어 사용한 독자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는 유적이다. 이 유적에서 나온 탄화미는 늦은 연대라 하더라도 연대가 최소한 기원전 7세까지 올라가는 것들로 판명되었으며, 제14호 주거지의 탄화미를 비롯한 여러 탄화곡물류의 출토는 우리나라 농경, 특히 벼의 재배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 기천서원지(沂川書院地)

〈편집부〉

### ■ 문화재개요

- 지정번호 : 문화재자료 제75호
- 지정일 : 1987년 2월 12
- 시대 : 조선 1580년 (선조 13)
- 소재지 : 여주군 금사면 이포리 산 15-2
- 규모 : 858 m<sup>2</sup>

### ■ 설명자료

조선 중종에서 효종까지의 명현인 모재 김안국, 회재 이언적, 치재 홍인우, 오리 이



▲ 기천서원

원익, 수몽 정염, 택당 이식, 나재 홍명구, 기천 홍명하 등 여덟 분의 위패가 봉안된 서원이 있던 터이다.

기천서원은 원래 선조 13년(1580년)에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의 위패를 모신 서원으로 마암에 있던 것을 임진왜란에 소실하고 현재 위치로 이전하여 인조 3년(1625)에 중건하여 사액받은 사원이다.

그 후 고종 8년 신미년(1871)에 폐사되고 65년 후인 1936년 복원, 모현사(慕賢祠)로 개칭되었다가 회철되고 1978년 중건되어 옛터에 사당이 복원되었으며 최근에는 부속건물들도 복원되어 옛 모습을 되찾았다.

기천서원은 마을 뒤쪽의 야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다. 현재 복원된 상태로는 경사진 대지의 아래쪽 터에 동·서재가 위치하고 위쪽 터에는 사당이 자리잡아 전학후묘의 배치를 갖추었는데 강당없이 동·서재만 있어 특이하다.

서원 동쪽 언덕에는 모현사가 있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익공계 맞배지붕 집인데 전면에는 개방된 퇴칸(원래의 칸밖에 다른 기둥을 세워서 만든 칸)이 있고 내부에는 여덟 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동·서재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익공계 맞배집으로 익공 없이 주두만 사용되었다.

모현사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소로수장 팔작지붕집인데 건물규모에 비하여 부재 단면이 작은 편이다.

기천서원은 최근에 복원되었으나 강당 없이 동·서재와 사당만이 있는 특이한 배치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고장을 빚낸 인물



## 원유남(元裕男) ----->

1561(명종 16) ~ 1631(인조 9).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원주(原州) 자는 관보(寬甫). 아버지는 호(豪)이며, 어머니는 상주김씨(尙州金氏)로 승훈랑(承訓郎) 광후(光厚)의 딸이다. 1583년(선조 16) 무과에, 1586년 무과 증시에 각각 급제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권율(權慄)의 휘하에서 공을 세우고, 1596년 강원·충청·강로(江路) 등의 조방장(助防將)을 지냈다. 이듬해 정유왜란이 일어나자, 분의복수군(奮義復讐軍)의 장령(將領)으로 활약하였다. 1605년 창성부사(昌城府使)를 거쳐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가 되고, 1623년 인조반정에 가담하여 정사공신(靖社功臣) 3등에 녹훈되고 원계군(原溪君)에 봉해졌다. 1624년 이괄(梨适)의 난이 일어나자, 왕명을 받아 유도대장(留都大將)으로서 재상 윤방(尹昉)과 더불어 서울을 지켰다. 시호는 충숙(忠肅)이다.

《참고문헌》 宣祖實錄, 光海君日記, 國朝人物考, 清選考. <李貞一>

## 이 색(李穡) ----->

1328(충숙왕 15) ~ 1396(태조 5). 고려말의 문신·학자.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영숙(穎叔). 호는 목은(牧隱). 삼은(三隱)의 한 사람이다. 찬성사 곡(穀)의 아들로 이제현(李齊賢)의 문인이다. 1341년(충혜왕 복위 2)에 진사가 되고, 1348년(충목왕 4) 원나라에 가서 국자감의 생원이 되어 성리학을 연구하였다. 1351년(충정왕 3)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귀국하여

1352년(공민왕 1) 전제(田制)의 개혁, 국방계획, 교육의 진흥, 불교의 억제 등 당면한 여러 정책의 시정개혁에 관한 건의문을 올렸다. 이듬해 향시(鄉試)와 정동행성(征東行省)의 향시에 1등으로 합격하여 서장관이 되어 원나라에 가서 1354년 제과(制科)의 회시(會試)에 1등, 전시(殿試)에 2등으로 합격, 원나라에서 응봉한림문자 승사랑 동지제고 겸국사원편수관(應奉翰林文字承事郎同知制誥兼國史院編修官)을 지내고 귀국하여 전리정랑 겸 사관 편수관 지제고 겸예문응교(典理正郎兼史館編修官知製教兼禮文應教)·중서사인(中書舍人) 등을 역임하였다. 이듬해 원나라에 가서 한림원에 등용되었으며 다음 해 귀국하여 이부시랑 한림직학사 겸사관편수관지제교겸병부낭중(吏部侍郎翰林直學士兼史館編修官知製教兼兵部郎中)이 되어 인사행정을 주관하고 개혁을 건의하여 정방(政房)을 폐지하고 하였다. 1357년 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가 되어 유학에 의거한 삼년상제도를 건의, 시행하였다. 이어 추밀원우부승선(樞密院右副承宣)·지공부사(知工部事)·지예부사(知禮部事) 등을 지내고 1361년 홍건적의 침입으로 왕이 남행할 때 호종하여 1등공신이 되었다. 그뒤 좌승선·지병부사(知兵部事)·우대언·지군부사사(知軍簿司部事)·동지춘추관사·보문각과 예문관의 대제학 및 판개성부사 등을 지냈다. 1367년 대사성이 되어 국학의 중영(重營)과 더불어 성균관의 학칙을 새로 제정하고 김구용(金九容)·정몽주(鄭夢周)·이숭인(李崇仁) 등을 학관으로 채용하여 신유학의 보급과 성리학의 발전에 공헌하였다. 1373년 한산군(韓山君)에 봉하여지고, 이듬해 예문관대제학·지춘추관사겸 성균관대사성에 임명되었으나 병으로 사퇴하였다. 1375년(우왕 1) 우왕의 요청으로 다시 벼슬에 나아가 정당문학(政堂文學)·판삼사사(判三司事)를 역임하였고 1377년에 추충보절동덕찬화공신(推忠保節同德贊化功臣)의 호를 받고 우왕의 사부(師傅)가 되었다. 1388년 철령위문제(鐵嶺衛問題)가 일어나자 화평을 주장하였다. 1389년(공양왕 1) 위화도군으로 우왕이 강화로 쫓겨나자 조민수(曹敏修)와 함께 창왕을 옹립, 즉위하게 하고, 판문하부사가되어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창왕의 입조와 명나라의 고려에 대한 감국(監國)을 주청하여 이성계(李成桂) 일파의 세력을 억제하려 하였다. 이해에 이성계일파가 세력을 잡게 되자 오사충(吾思忠)의 상소로 장단(長湍)에 유배, 이듬해 함창(咸昌)으로 이배되었다가 이초(李初)의 옥(獄)에 연루되어 청주의 옥에 갇혔으나 수재(水災)로 함창에 안치되었다. 1391년에 석방되어 한산부원군(韓山府院君)에 봉하여졌으나 1392년 정몽주가 피살되자 이에 관련하여 금주(衿州)로 추방되었다가 여흥·장흥 등지로 유배된 뒤 석방되었다. 1395년(태조 4)에 한산백(韓山伯)에 봉하여지고 이성계의 출사(出仕) 중용이 있었으나 끝내 고사하고 이듬해 여강(驪江)으로 가던 도중에 죽었다.

그는 원·명교체기에 있어서 천명(天命)이 명나라로 돌아갔다고 보고 천명정책을 지지하였다. 또, 고려말 신유학의 수용과 척불론의 대두 상황에서 유교의 입장에서 불교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즉, 불교를 하나의 역사적 소산으로 보고 유·불의 융합을 통한 태조 왕건(王建) 때의 중흥을 주장하였으며, 불교의 폐단사정을 목적으로 하는 척불론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도첩제(度牒制)를 실시하여 승려의 수를 제한하는 등 억불정책에 의한 점진적 개혁에 의하여 불교폐단 방지를 이루고자 합니다. 한편, 세상이 다스려지는 것과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성인(聖人)의 출현여부로 판단하는 인간 중심, 즉 성인·호걸 중심의 존왕주의적(尊王主義的)인 유교역사관을 가지고 역사서술에 임하였다. 아울러, 그의 문하에서 권근(權近)·김종직(金宗直)·변계량(卞季良) 등을 배출하여 조선성리학의 주류를 이루게 하였다. 장단의 임강서원(臨江書院), 청주의 신흥서원(莘巷書院), 한산의 문헌서원(文獻書院), 영해(寧海)의 단산서원(丹山書院) 등에서 제향을 하며, 저서에 《목은문고 牧隱文藁》와 《목은시고 牧隱詩藁》 등이 있다.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太祖實錄, 東文選, 朝鮮金石總賢, 李朝建國의 研究(李相佰, 乙酉文化史, 1949), 李穡研究(李銀順, 梨大史苑 4, 1962), 牧隱研究(孫洛範, 國際大學人文科學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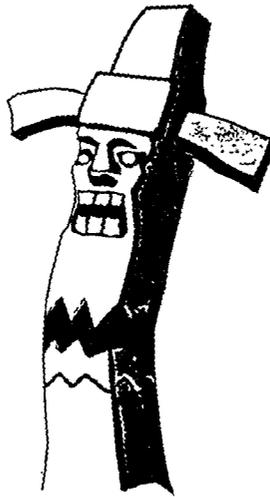
究所 論文集 3. 1975). 李穡의 佛敎親(安啓賢, 趙明基博士 華甲記念佛敎史學論. 1965), 李穡(李相殷, 高麗·鮮初期의 學者 9人, 1974). 牧隱 李穡과 그의 政治思想에 관한 研究(朴珠, 曉星子大學 論文集 25. 1982). 〈閔丙河〉

## 이인영(李麟榮) ----->

1867(고종 4) ~ 1909. 한말의 의병장. 일명 준영(竣榮). 경기도 여주출신. 정동현(鄭東鉉)의 문인으로 일찍이 대성전재임(大成殿齋任)을 지냈다. 1895년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明成皇后) 민씨(閔氏)가 시해되고 이어서 단발령이 내려지자, 유인석(柳麟錫)·이강년(李康季)등의 의거에 호응하여 원주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그리고 유인석의 제천전투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나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가 경상북도 문경으로 이주하여 은둔생활을 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을 계기로 국권회복을 위한 의병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가자 의병을 일으킬 결심을 하였으나 때마침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 있었으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뒤 1907년 고종의 강제퇴위, 군대해산을 계기로 의병을 재기하여 일부 해산군인과 제휴하였는데, 원주에서 의병을 일으킨 이은찬(李殷贊)·이구재(李九載, 본명은 求采)가 해산군인 80명을 포함한 500명의 의병을 소모한 뒤 그를 찾아와 총대장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 있어 망설였으나, 사사로써 공사를 미룰 수 있겠느냐는 그들의 간곡한 권유에 이를 수락하고 원주로 출진하여 관동창의대장(關東倡義大將)에 오른뒤 사방으로 격문을 발하여 의병을 소집하였다. 의병의 수가 수천명에 이르자 식량과 자금의 조달이 큰 문제였는데, 반역배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이를 충당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9월에는 서울주재 각국영사관으로 사람을 밀파하여 일본의 불의를 성토했고, 의병은 순수한 애국단체이니 열강은 이를 국제법상의 전쟁단체로 인정하여 적극 성원해 줄 것을 바란다는 관동창의대장 명의의 격문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원주는 교통이

불편하여 대사를 도모할만한 곳이 못 된다고 판단, 횡성·지평·춘천 등지를 전전하며 의병규합에 노력하면서,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각 도에 격문을 발하여 경기도 양주로 집합할 것을 촉구하였다. 격문에 호응하여 11월에는 각 도의 의병장들이 속속 양주로 집결하였으니 경기도의 허위(許薦), 황해도 의 권중희(權重熙, 일명 義熙), 충청도의 이강년, 강원도의 민궁호(閔肯鎬), 경상도의 신돌석(申玃石), 전라도의 문태수(文泰洙, 일명 泰鉉), 평안도의 방인관(方仁寬), 함경도의 정봉준(鄭鳳俊) 등이었다. 평안도와 함경도에는 격문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방인관이 평안도에서 80여명, 정봉준이 함경도에서 70여명을 거느리고 자진 참여하였다. 이때 양주에 집결한 의병의 수는 약 1만명(또는 8,000명)에 달하였는데, 그 중에 근대식 무기를 가진 진위대출신의 병사와 기타 훈련 받은 군인이 약 3,000명이었다. 의병장들의 연합전략회의 결과 13도의병연합부대를 편성하여 원수부 13도총대장에 추대되어 전병력을 24진으로 하는 연합부대를 편성, 의병부대는 서로 기일을 정하고 서울 동대문 밖에 집결하여 대오를 정비한 뒤 일거에 서울을 공략할 작전계획을 세우고 진격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이 중대한 시기에 아버지의 사망 부고가 전하여져 문경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장례를 마쳤다.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의병들이 찾아가 재기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아버지의 3년상을 마친 뒤 다시 13도의 창의군을 일으켜 권토중래(捲土重來)의 세력으로 일본인을 소탕하겠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권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뒤 노모와 두 아들을 데리고 상주군에 숨어 살다가 다시 충청북도 황강군 금계동으로 옮겼는데, 1909년 6월 7일 일본헌병에게 잡혀 경성감옥에서 죽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참고문헌》梅泉野錄, 騎驢隨筆, 韓國獨立運動, 之血史(朴愨植, 維新社, 1920). 韓國獨立運動史1(史編 委員會, 1965). 독립운동사1(독립운동사편위원회, 1972). 의병과 독립군(윤병석,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 義兵傳, 韓國近代史料 一潮閣, 1979). 〈朴廣〉

## 네고장의 진실



## 남이고개

여주군 금사면 산북출장소에서 곤지암쪽으로 1km가량 되는 곳에 얽막한 고개가 있다.

고개의 양 옆은 구릉지이며 동쪽은 광주군 실촌면 전업리이고, 서쪽은 여주군 금사면 상품리이다. 이 지역에서는 이 고개를 남이고개라고 하며 여기에서 남이장군이 말달리기와 활쏘기 연습을 하였다 하여 남이고개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다고 한다. 또 일설에는 南怡將軍이 도둑을 잡기 위하여 이 고개에 주둔한 일이 있다 하여 이 명칭이 붙게 되었다 하기도 한다. 이 고개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금사면 後里마을 진입로 입구 좌측에는 고양이 바위라고 부르는 바위가 길옆 산기슭에 있다. 이 바위가 바로 南怡將軍이 활쏘기 연습을 하던 과녁이었다고 하며 이 바위는 지금 두 조각으로 갈라져 있는데 그때 南怡將軍의 화살을 맞아 쪼개 졌다고 한다. 또 南怡將軍은 백마를 타고 다녔는데 이 말은 매우 빨라서 南怡將軍이 이 고개에서 고양이 바위를 향해 활을 쏘고 화살이 목표물에 맞았는지 맞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말을 달려 이 바위에 와 보면 그제서야 화살이 날아와 이 바위에 꽂혔다고 한다.

옛부터 이 고개에서 강원도 홍천군과 양평군 접경에 있는 신다고개(新峴)까지를 無嶺百理라 하였다. 즉 이 사이에는 고개가 없는 평탄대로라는 것이다. 또한 馬甘山 등에 남이장군에 관한 전설이 구전되어 오기에 史料에 나타난 그의 행적을 살펴본다.

南怡는 조선시대의 武臣으로 본관은 宜寧이며 宜山君 暉의 아들이다. 태종의 外孫으로 좌의정 權 의 4녀와 결혼, 1457년 17세로 武科에 壯元 세조의 지극한 총애를 받았다. 1467년 李施愛가 北關에서 난을 일으키자 右大將으로 이를 토벌 敵愾功臣 1등에 오르고 宜山君에 봉해졌다. 이어 西北邊 建州衛를

정벌하고 27세의 나이로 병조판서에 올랐다. 1468년 예종이 즉위한 지 얼마 안 되어 대궐안에 숙직하던 어느 날 밤彗星이 나타난 것을 보고 목은 것을 없애고 새 것이 깔릴 징조라고 말했다. 이에 평소에 그의 승진을 질투하고 있던 柳子光이 이것을 엿듣고 역모를 꾸민다고 모함 康純 등과 함께 誅殺되었다 1818년 관작이 복구되었다.

## 閔妃와 陵峴里 ----->

驪州邑에서 약 5km 떨어진 영동 고속도로 여주 톨게이트에서 동쪽으로 약 1km쯤 가면 陵峴里가 있다. 陵峴은 一名 陵村이라고도 하며 이곳이 바로 閔妃 明成皇后의 出生地이다. 따라서 이 陵峴里에는 지금도 소녀시절의 민비에 관한 수많은 일화가 구전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인들중에는 직접 목격한 사람도 실존하고 있었다. 일례로서 閔妃가 偏 少女로서 코를 흘리며 눈에 새를 보던 자리가 바로 능촌 바로 뒤라는 것이다.

현재 마을 앞에 있는 우물에서 좁쌀을 ~~것으며~~ 「나도 이 좁쌀만큼이나 많은 노비를 데리고 살아봤으면」하고 탄식했다는 ~~가난한~~ 농가집 딸로서의 생활 일화도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 말은 소위 雲峴宮派인 大阮君과 閔妃와의 정권쟁탈이 극심했던 시기였다.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閔妃는 婢服 차림으로 宮中을 탈출하여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여주의 閔氏村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친척이지만 閔妃를 숨겨 주었다가는 큰 禍를 입을 것이 분명함으로 州內面(여주읍) 閔氏들은 받기를 거절할 수 밖에 없어 長湖院으로 다시 피신했던 것이다. 또 이런 일화도 있다. 같은 閔氏라 하여 믿고 찾아가 州內面 친척에게 거절을 당하고 長湖院으로 가던 도중이었다.

어느 동리 앞을 지날 때 주막집 여자가 가마 문을 열고, 「보아하니 귀하신데 부인같은데 어디로 가느냐」고 묻자 「세상이 하도 시끄러워 서울을 떠나노라」하는 민비의 대답에 그 주막집 여자와 동네 부녀자들 몇이서, 「그 閔妃 때

문에 大家宅 귀하신 부인께서 고생을 하십니다 그래. 그 閔妃가 얼른 그만두어야지」했다. 대원군의 세력은 또 한번 뒤집히었다. 민비는 入宮하는 길로 그 동리의 여자들을 잡아다가 엄벌을 했다는 것이다. 물론 문헌에 남아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구전으로 전하는 이야기이다.

이 陵村에는 高宗皇帝의 친필로 된 「明成皇後誕降舊里」라고 쓰여진 碑가 있다. 또 長湖院 왕장리에는 민비가 북쪽의 좋은 소식을 기다렸다는 원통산이 있다 한다.

---

## 清白吏와 驪州牧使

조선 제14대 선조연간에 清白吏에 록선된 이희(李 세상에서는 이기라고 부른다) 대감이 있었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출중했으나 목은에게는 6대 손자이요, 이조판서 종선의 5대손이요, 영종추원사 계전의 현손이요 대사성 堉의 증손이요 한성군 秩의 손자며 영의정 之蘭의 둘째 아들이다. 벼슬은 병조판서, 이조판서에 오르고 卜相(정승에 추천되는 일)을 8차례나 받았다. 평생을 빈한하게 살며 토지나 종의 수를 늘린 일이 없었고, 오직 청렴결백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지방 백으로 다닐 때 가는 곳마다 선정비가 선 사람이다. 그는 북원 땅(지금의 원주 「간현(간재)」)이 고향이다. 그가 한 고을에 부임하여 선정을 베풀던 중에 그 어머니가 병환이 들어 위독했다. 선조가 특별로 휴가를 주어 어머니를 간병하게 하면서 경기, 강원감사에게 특별히 귀로에 우대 하라는 어명을 내렸다. 그의 호는 松 라고도 했으며 만년에는 長峴이 산다고해서 호를 良翁이라고 했다. 어명을 받은 경기감사는 여주목사에게 명을 내렸다. 내일 午시경 여강 청심루 앞을 간옹대감의 행렬이 통과하게 될 것이니 그대는 한치의 어김없이 기다렸다가 후히 대접하고 여정을 편히 모시도록 하라.

경기감사의 명을 받은 여주목사는 아침부터 이방을 지켜 청심루 앞에서 여강을 지켜 이대감의 행렬이 서쪽에서 보일 때 즉시 보고를 하도록 배치해 놓았

다. 그리고 행렬이 도착되는 대로 크게 잔치를 벌여 위로해 드려 선조대왕과 경기감사의 영을 받들고 이대감의 환심을 사서 중앙으로 승진을 부탁하는 일거양득의 기회를 잡자는 여주목사의 심산이었다.

午시가 되었다. 이방으로부터 아무런 보고가 없자. 좌불안석으로 서성거리던 목사는 청심루로 갔다. 「여봐라, 아직 행렬이 보이질 않느냐」

「예 아직」

「어허 거참 웬일인고」 「가서 기다리다 저쪽에 행렬이 보이거든 즉시 보고토록 하라」 「오시가 다 지나고 미시가 지나 신시가 되어도 아무 기별이 없었다. 기다리다 못한 목사는 다시 청심루에 나갔으나 이 대감의 행렬은 보이지 않고 저쪽에 조그만 어선 하나가 청심루 앞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옹지저것들한테 물어 보면 이대감 행렬을 보았는지 알수 있겠구나 하고 조그만 어선이 청심루 앞까지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에 작은 어선은 청심루 앞까지 통과하게 되었다. 내려다 보니 넉넉하지 못한 장사군인듯 사공하나에 초라한 차림의 행인 하나가 타고 있었다. 이방을 시켜 물어보도록 하니 이방은

「여봐라 너희들 어디서 오느냐」 사공은 아무말이 없고 배에 타고 있는 행인이 「예 한양에 다녀오는 길이외다」 하고 공손하게 대답했다.

「그러면 오는 길에 혹시 대감의 행렬인 듯한 배를 못보았느냐」

「글썸을시다. 그런 배는 보지 못했소이다」

「여주목사는 에이 … 이거 무슨 사고가 난 게 아닌가」

「아니면 육로로 가시는 것을 공연히 수로로 기다리는 게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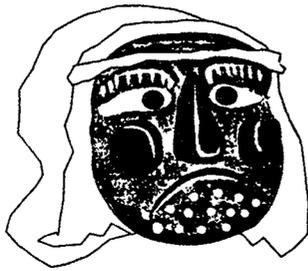
「글썸을시다. 이미 어두워가는데 설마하니 대감께서 밤에야 수로를 지나실리 없지 않사오이까」

「글썸다. 혹시 누가 아느냐 더 기다리도록 하라」 하고 목사는 퇴청도 못한채 밤늦도록 기다렸다. 것처럼 초라한 행색에 수행원 하나없이 조그만 배편으로 가는 이를 설마하니 누가 대감인줄 알았으랴. 대감은 신록사 앞에 배를 멈추고

지나는 과객이라 칭하여 중에게 하룻밤 유하기를 부탁하였다. 구룡루에서 밤을 지내고 날이 새자 대감은 다시 뱃길에 올랐다. 아침에 중과 작별의 인사를 나누는 중에 사공의 입에서 이대감이란 말이 전해지자 중은 깜짝놀라 아침 식사 대접을 간청했으나 사양하고 배를 띄우니 중은 할 수 없이 여주목사에게 알렸다. 신록사에서 여주목사관까지 단숨에 달려와 보고하니 목사는 부랴부랴 신록사로 향했으나 이미 배는 떠나 보이질 않았다.

목사는 낙심하고 판사로 돌아왔다. 대감이 신분을 숨기고 여주를 지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것 외에 무엇이 있었겠는가? 비단 그는 이번 여주를 통과하는 일뿐이 아니었다. 대감의 아들이 현감으로 있을 때 가난한 집 사정을 생각하여 쌀 3말을 대감에게 보내자 민폐의 하나라고 해서 아들을 현감직에서 파직시키는가 하면 어명을 받고 호남 지방에 암행어사로 민심을 규찰 할 때 무명에 물들인 도포를 입고 밤이슬과 비를 맞으며 빨래조차 못해 입고 다녔다. 어사의 임무를 마치고 귀향하는 길에 호남땅을 벗어나 주막 집에 들러 막걸리 한잔 마시려 하자 이대감의 행색을 본 모의 말이 손님의 도포는 치마 저고리 한벌을 해 입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 이유는 포 하단은 물이 바래서 하얗게 되고 위로는 아직 분홍빛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희롱을 했던 것이다. 또 아들 하나가 지평 현감으로 있을 때 임진왜란의 급보를 받고 간현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재님이 고개에서 검문을 받았다. 초병은 형색이 초라하고 거동이 수상한 이대감을 적으로 간주하고 현으로 잡아가니 아들인 현감이 백배 사죄하고 초병을 꾸짖었다. 이때 대감은 내가 신분을 밝히지 않았음이 잘못이니 공무에 충실한 초병은 호통을 칠 것이 아니라 상을 내리도록 하라고 했다. 빈한한 생활중에 말을 잘 거두지 못하여 판서에 임명을 받고 한양 鍾街(지금의 종로)를 통과할 때 말이 쓰러지니 이조판서의 취임 행렬을 위하여 길을 통제하는 군병들이 그가 판서에 취임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길을 비키라고 호통을 쳤던 일화도 있다. 훗날 혹 거리에서 말이 쓰러지면 이대감의 말인가 어찌 쓰러지느냐고 하는 등 인구에 회자되는 많은 이야기를 남겼다.

# 전통놀이



# 거북놀이

〈편집부〉

## 1. 거북놀이에 관한 고찰

### (1) 韓國人과 거북의 관계

우리민족은 옛부터 거북이란 동물이 우리 민족에세 있어서 神靈한 동물이요, 인간에게 福을 주는 길한 짐승으로 여겨서 거북이를 사용한 文化財나 그의 많은 民藝品 등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거북이는 千壽를 누리는 長壽動物이요 東海龍王의 아들이라고 믿어 우리주변에는 많은 坐俗的인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생각해보면 장수를 누리는 동물로써 물「水」이나 물「陸地」에서 같이 생존할 수 있는 거북이기에 여러곳에서 자주 다루워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활동영역이 넓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옛임금의 옥새에 거북의 형상을 조각하는 것도 동해용왕의 아들이요 장수동물이기에 王權의 長期執權과 太平聖代를 추구하는 이유가 아닌가하며 기타 巖刻畫나 벼루의 硯滴 거북비나 각종 民畫의 소재로써 즐겨 다루워졌음은 그만큼 거북이가 우리민족에게 親近感을 주는 동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이 민속 거북놀이 역시 무속적인 신앙으로 볼 때 1년에 한번씩 거북이를 위함으로써 가뭄과 홍수 질병을 막을 수 있으며 집안에 재액을 몰아내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북숭배의 무속적인 발상이 아닐까 한다.

## (2) 거북놀이의 由來

우리나라의 민속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거북놀이의 由來 역시 확실하게 알려진 것이 없다. 우리나라의 민속놀이나 民俗舞踊의 특징이 作者와 創出年代의 未祥이라고 設定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學園社編, 〈家庭生活百科〉 1976. P.266) 거북놀이라는 민속도 예외일 수는 없다. 다만 〈설고총서〉라는 文獻에 보면 신라 문무왕때 15세의 공주가 병이 들어 영추대사 (新羅때의 고승이라고 김주엄 (이천군 대월면 거주)씨는 증언하고 있으나 記錄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15세의 少年들로 하여금 거북이의 탈을 만들어 쓰고 수수비로 집 안팎을 깨끗이 쓸라고 하였던 바 공주의 병이 씻은듯이 나았다는 기록이 있다. (利川文化院刊, 河周成編, 〈利川の民俗 / 거북놀이〉 1985. P.7)고 하여 이것을 거북놀이의 起源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또한 高麗 8대 현종 (AD.1009 ~ 1031)은 가뭄이 심해서 곡식이 매달라 죽어가고 도둑이 들끓어서 나라가 혼란에 빠졌던 때에 여러 고을을 돌아보던 중 天安府 稷山縣(지금의 입장면을 포함한 직산지방)에 와서 유하게 되었는데, 이때 꿈속에서 新羅 文武王이 나타나 하는 말이 「한가위날 거북이를 보낼 테니 거북이를 닮은 마을에서 옥수수 잎사귀로 옷을 해 입고 거북과 더불어 뛰어 놀아라」하는 啓示를 받았다. 현종은 이튿날 地形을 살펴보니 바로 입장면 신덕리 1구(지금의 행정구역) 마을이 거북이 형상을 하고 있음을 알아내고 秋夕날 朝廷 대신들을 이 마을에 보내 옥수수 잎을 엮어 옷을 입고 마음사람과 함께 거북놀이를 하였는데, 이듬해에 벼알이 마치 옥수수알처럼 풍성하게 여물어 大豊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놀이가 각 마을로 傳播되었다(平澤郡刊「平澤郡誌」 1984. P.1023)고 하고 있지만 高麗때의 首都는 開京이고 임금이 天安府까지 거동한다고 볼 수가 없으며 文獻에도 記錄되어 있지 않은 傳説이기 에 확실한 증거는 없다. 단지 거북놀이의 進行過程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祭儀性이 짙은 무속신앙의 「굿」 - 문굿, 우물굿, 터주굿, 조왕굿, 대청굿 등으

로 나타나고 있어 거북놀이의 처음 형태는 아주 오랜 옛부터 연희되어 왔으리라는 점이다. “굿”은 선사시대의 祭禮意識에서 비롯되었는데 馬韓의 경우를 보면 5월 下種과 10월 추수가 끝나면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밤낮을 쉬지 않고 飲酒歌舞하고 여러 사람이 일제히 장단에 맞추워 踏地低昂하며 춤을 추었다. (馬韓常以 五月下種設祭 神 郡緊 歌舞飲酒 晝夜無休 其舞數十人 俱起相隨 踏地低昂 手足相應 節奏有以鐸舞 十月農功 亦復如之一)는 기록이 있어 (三國誌 槐誌 東夷傳) 현재 터주굿이나 조왕굿에서 나타나는 답지정앙의 의식과 같이 나타나며 또한 馬韓의 習俗은 굿이고 이굿은 農作에 근한 것이기 때문에 각처의 도당굿은 그 유풍일 것이다 (文藝振興院刊〈韓國文化藝術總覽〉概觀編「三國時代의 音樂」)라고 李惠求博士는 그의 저서에서 기술하고 있다. 이렇듯이 지방의 농작과 “굿”과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거북놀이의 유래는 아주 오래인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全城에 散在해 있는 假面舞 (봉산탈춤 송파산대놀이, 북청사자놀이, 고성오광대 등의 총괄적인 탈춤)를 보더라도 신라때부터 전해온 金丸, 獅子舞 등의 新羅五技가 고려를 거쳐 이조에 이르는 동안 점차 庶民들의 민속인 탈춤으로 변형된 것을 보더라도 거북놀이 역시 제의성이 짙은 “굿”의 유파가 이는 시기에 와서 집단 민속놀이로 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고찰하건데 신라 문무왕때의 發生說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지며 이는 더 연구 되어야 할 점이다.

한편 거북놀이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대사중에 「압록강을 건너왔다」는 이야기로 미루워보아 中國에서 유래된 것이 아닌가하는 견해도 있다. 중국에서 전래된 무속중에 「거북점」이라는 것이 있다. 六爻占이라고도 하며 거북이의 등을 보고 陰陽五行에 따라서 인간의 吉凶禍福을 점치는 것으로써 옛날 伏羲氏때 黃河에서 나타나는 河圖洛書에서 유래된 점법이라고 전해진다. 三國史記에도 의자왕 20년(AD 660년) 땅속에서 거북이가 나와 그 등을 보고 점을 쳐본 즉 “신라는 흥하고 백제는 망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렇게 볼 때 신라 때의 發生說이나 중국에서의 傳來說이나 확실한 근거를 찾을 수는 없지만 수궁이 갈 수 있다는 점이다. 一部에서는 「압록강을 건너온것」이 아니고 「동해바다」를 건너왔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나 地理的인 조건을 볼 때 압록강을 건너면 韓水以南의 畿湖地方에 머물 수 있지만 동해바다를 건너오면 태백준령을 넘어 기호지방에 오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차라리 동해쪽이나 남해안의 近海地域의 고장에 거북놀이가 더 활발히 연희되었을 것이라는 데서 나타나는 것만 보아도 확실하다. 이러한 것은 당진지방의 거북놀이에 「서해를 건너왔다」는 데서 나타나는 것만 보아도 확실하다.

이렇듯이 기호지방을 중심으로 연희된 거북놀이는 처음에는 거북승배의 제의적인 무속신앙에서 유래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부락의 集團民俗놀이로 성격이 변형되어 현재에 이르러서는 부락의 안녕과 大同團結을 목적으로 연희가 되고 있다.

### (3) 거북놀이의 分布

거북놀이는 우리나라의 全域에 散在해 있었으며 문헌에 나타난것만 보아도 (村山智順, 〈朝鮮訓防娛樂〉, 朝鮮總督府 調查資料第47輯, 1991) 경기도의 이천, 여주, 용인, 광주, 평택 등지와 충청도의 청주, 충주, 음성, 홍성, 예산, 아산 등과 전라도의 해남, 경상도의 창녕 등에서 연희되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지역에 따라서 중단된지 30~50년이 지난 상태로 거의 기억에서 조차 잊혀져 가고 있는 상태에서 1970년대에는 경기도의 이천지역에서 다시 재현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충북 음성지역에서 재연시켜 全國民俗競演大會에 참가했고 현재는 몇개 지역에서 발굴정리작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이 민속 거북놀이가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민족이 얼마나 거북이를 炙物로 대해 왔으며 우리의 傳統文化 속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거북이란 짐승이 인간에게 복을 준다고 믿는 무속적인 개념때문이다.

#### (4) 거북놀이의 特徵

거북놀이의 특징은 祭儀性이 강한 부락 공동의 집단놀이로써 부락전체의 共同安寧과 公益事業을 위해 창출된 전통 민속놀이로 긴 세월을 거치는 동안 우리민족의 大同團結의 힘이 원천이 됐다고 보아야 한다.

거북놀이의 진행과정을 보면 우물굿, 문굿, 터주굿, 조왕굿, 대청굿 등 모두가 「굿」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아도 거북놀이가 제의성이 강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경기지방의 巫俗이 「집안굿」과 「도당굿」의 두 종류로 분류하고 있으며,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집안굿의 과정중에는 터주굿, 조왕굿이 나타나고 도당굿의 과정에는 장승굿, 우물굿 등이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거북놀이도 일종의 무속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다.

또한 거북놀이의 진행 중 나타나는 대청굿의 고사반의 순서인 太平聖代 흥수풀이, 농사풀이, 달거리 등이 굿에서 나타나는 고사담과 同質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만 보아도 거북놀이는 단순한 부락의 집단놀이가 아닌 巫俗信仰의 한 유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거북놀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宗教的인 박해와 주위의 환경의 영향 - 한국의 민속은 주위의 지리적 조건, 생활습관, 기후지역의 언어, 지역민의 성격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半巫俗 반놀이의 형태로 바뀌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최근의 거북놀이 동리의 大同團結을 목적으로 하며 마을 전체의 集團意識이라 일년의 수확을 감사드리며 집집마다 두루 안녕과 태평을 빌어주고 모든 災厄을 멀리 쫓는다는 무속적인 면으로 마을전체가 모여 함께 즐긴 相扶相助의 역할까지 함께 하고 있다.

이러한 거북놀이와 같은 집단민속을 통해 우리민족은 스스로 자활의 터전을 일구웠으며 서로가 협동하는 共同體的인 의식으로 인정미 넘치는 마을을 일구웠다는 점은 특기할만한 일이며 더욱 고려, 이조를 거치는 동안 外勢의 끊임없는 침략속에 서나 일제하의 36년이란 긴 세월동안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져온 것도 이와같이 대동놀이의 정신이 살아서 숨쉬고 있던 탓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거북놀이의 특징으로는 다른 민속놀이와는 달리 추석날의 달밝은

밤에 연희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 2. 驪州의 거북놀이

지방의 文化財 - 有形文化財와 무형문화재를 다 함께 말한다 - 는 최근에 이르러 활발히 발굴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發掘過程에서 발굴자의 개인의 專門性의 결여나 착오를 가끔 백자항아리에 청자의 꼭지를 달듯이 異常型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있다.

실로 향토 민속 발굴과 육성은 민중의 꿈을 고양시키고 民衆意志와 예지를 오늘에 되살리는 길로써 지방의 민속은 그 발굴과정에서 전문가에 의해 현지에서 답사되고 조사되어 정리, 발굴되어야 한다. 지방의 민속은 그 지방민의 혼이요, 그 곳에 터전을 잡고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기에 원형의 발굴은 더욱 중요하다.

여주의 거북놀이 역시 그 발생근원은 지역적 특색이 두드러진 巫俗信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전부터 우리의 習俗에는 驪州와 利川을 따로 떼어 부르지 않고 “여주이천” 이라는 흡사 合名詞로 이루어지듯 불러왔던 것은 여주와 이천은 같은 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동질의 풍습, 기후와 토질 등 같은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을 감안할 때 여주의 거북놀이와 이천의 거북놀이는 같은 형태가 아니겠느냐고 하는 이도 있겠으나 옛말에 「百里不同風」이란 말이 있듯이 동리의 地域的인 특성이나 技藝人의 創作力 등 외적인 영향에 의해서 특징을 갖고 나름대로 특색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다만 여주의 거북놀이도 제의성이 짙은 무속신앙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昨今에 이르러 중단된지 50여년이 지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그나마 몇몇 技藝人(당시의 거북놀이에 참석해 연희를 했던이들)들의 기억을 되살려 그들의 생존지에 발굴, 정리된 후에 재연해야 할 필요를 절감케 한다.

## (1) 演戲時期

여주의 거북놀이 역시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陰曆 8월15일의 추석날 밤에 달빛아래서 연희되었다. (여주군 능서면 마래리 변장국(65세)씨 증언) 거북놀이의 연희시기가 전부 추석 때를 맞이하여 이루어진 것은 음력 8월 추석이 되면 가장 풍성한 수확을 건우는 시기로서 우리민족에게는 1년 중 가장 으뜸가는 名節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 날은 햇곡식으로 떡과 술을 빚고 햇과일을 거두어 祖上의 앞에 감사드리며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 하루를 즐기는 날이다.

거북놀이가 8월 한가위에 연희되어 온 이유는 나름대로의 뜻이 있다.

첫째, 八月 한가위가 되면 조상께 제를 드리기 위해 모든 식솔이 모여 함께 어우러져 大同團結의 힘을 둘 수 있다는 점.

둘째, 8월 한가위에는 모든 곡물이 수확기에 접어들어 어느 집이나 공평하게 거북이에게 치성을 드려 평등히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

셋째, 8월이 돼야 수수잎이 제대로의 색깔이 나와 거북을 치장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며 또한 곡물이 여물어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상기와 같은 이유에서 거북놀이는 한창 풍성한 시기에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연희되어 수확의 포만감과 거북을 위함으로써 받는 안도감이 한데 어우러져 맘껏 즐길 수 있는 庶民社會가 創出해 낸 민속문화이다.

## (2) 人員編成

여주 거북놀이의 놀이대의 編成은 비교적 타지의 人員構成 보다는 단순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우선 2~6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북이가 있으며 거북놀이인 「길아비」가 있고 양반을 위시한 각종 어릿광대로 편성된다. 그 다음으로는 지방 민속놀이의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風物 - 상쇠, 부쇠, 징, 북, 장고, 법고, 태평소 - 이 뒤

따르며 거북놀이를 보는 觀客이 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관객이 현재는 人員編成에 나타나고 있지만 중단되기 전까지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거북놀이 그 자체의 구경꾼이었다는 점이다.

一說에는 거북놀이의 편성이 「지신밟기굿」이나 「걸립」과 동일한 형태라고 보는 설도 있으나 (심의성, 〈京畿道地方傳統文化개발세미나〉, 1976. P. 17.) 花主, 나리, 보살, 잭이(樂士)산이(技藝人)와 15명 정도의 탁발승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립패와는 본질적인 구성이 다르며(利川文化院刊, 河國成編〈利川の民俗 - 거북놀이〉, 1985. P.14) 地方의 모든 民俗書案의 대부분은 물론 민속놀이의 伴奏音樂이 農樂을 사용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북놀이의 편성은 나름대로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단지 건립과 같은 점은 그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터주굿, 조왕굿 등 일부의 놀이내용이 동일하다는 것 뿐이다. 거북놀이의 구성을 쉽게 표시하자면 ① 거북이와 거북놀이인 길아비 ② 양반을 위시한 각종 어릿광대 ③ 농악대 ④ 기타 관객들로 이루어진다. (〈표 1〉 참조)

### (3) 놀이의 進行方法 및 內容

(※ 註 : 驪州 거북놀이의 進行過程 및 거북이의 制作, 또는 人員編成 등 거북이에 관한 全體的인 面을 調査하기 위해서 驪州郡 가남면, 능서면, 흥천면 全域과 점동면, 북내면 一部 地域等を 調査해 본 결과 거북놀이의 進行過程은 따로 分類되어 있지 않고 연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으나 家屋의 구조나 취락의 形成에 따라서 進行順序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 本冊에서는 편의상 整理 區分한 것을 일러 두고자 한다.)

陰曆 8월 15일 낮이 되면 동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수수잎을 따다가 짚으로 짠 줄로 용마름을 틀어서 연결해 2~6명이 들어갈 수 있을만한 크기로 엮어서 거북이의 덮개를 만들고 (〈그림 1〉 참조) 머리를 연결해 입을 만들고 꼬리까지 연이어 놓은 다음 끈으로 등을 엮어서 등의 무늬를 만든다(〈그림 2〉 참조). 이렇게 제작된 거북이를 洞里入口의 단위에 모셔 놓고 밤이 이슬해지면 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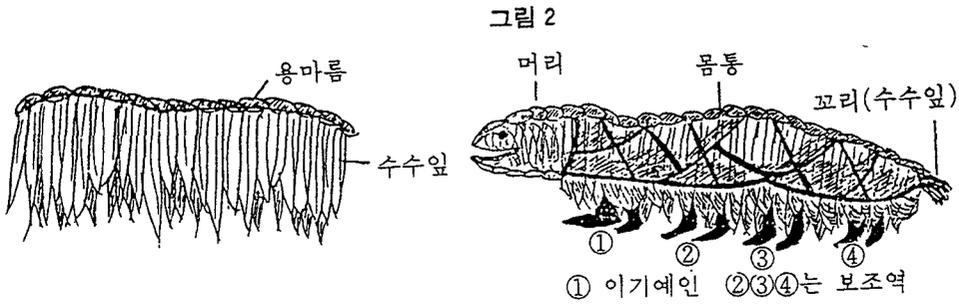
대 일행은 떡과 과일 햇곡식으로 빚은 술로 정성껏 치성을 드린 다음 동리로 향하여 놀이를 떠난다. 이렇게 시작한 거북놀이는 밤이 이슬하도록 동리의 집집마다 다니며 복을 빌어주고 술과 음식을 받아 즐기는 部落共同의 민속놀이이다.

### ① 길놀이

거북이를 모셔놓고 치성을 정성껏 드리고 난 놀이대 일동은 길놀이를 떠난다. 마을에 들어서기전 놀이대 일행은 부락을 향하여 점고(복을 쳐서 마을에 진입함을 알리는 의식) (<악보1> 참조)를 한 후에 마을을 향해 길놀이를 시작한다. 이 길놀이는 특별한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길을 가기 위한 방법으로 “길군악”의 가락 (<악보2> 참조)에 맞추어서 거북을 앞세우고 동리의 집으로 향한다. (<그림3> 참조).

〈表1〉 거북놀이의 인원편성

순번	이름	인원	차림
1	거북이	2-6	수수잎과 짚으로 꼬아만든 줄로 엮어 만든다.
2	길아비	1	등걸잠방이 수수잎으로 만든 우장
3	양반	1	옥색도포 정자관 부채 담뱃대
4	여종	2	노랑저고리 빨강치마
5	남종	2-3	등걸잠방이 짚신 초립
6	뽕추	1	등걸잠방이 짚신 초립 수건(머리띠)
7	상쇠	1	부포상모 등걸잠방이 삼색띠 짚신
8	부쇠	1	
9	징	2	고깔 등걸잠방이 삼색띠 짚신
10	광고	2	
11	북	2	패랭이 등걸잠방이 삼색띠 짚신
12	소고	6	나비상모 등걸잠방이 삼색띠 짚신
13	호적	1	바지저고리 그색띠 머리수건 짚신
14	관객	다수	보통바지저고리(남) 치마저고리(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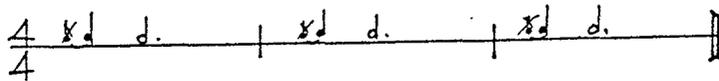


## ② 우물굿

동리를 향하던 놀이대 일행은 마을의 중앙에 있는 우물 앞에서 상쇠의 신호에 따라서 멈춰선다. 우물에 둘러선 놀이대 일행은 상쇠의 고사담을 듣는다. “五方圍 용왕님네 가뭄에도 물이나 철철 내주고 홍수에도 물이나 맑게 해주오. 이 물을 먹는 萬人間 壽命長壽 비나이다” 하고 고사담을 한 후 상쇠의 신호에 맞추어 흥을 돋우다가 우물에 세번 절을 한 후 동리의 집으로 향한다. 이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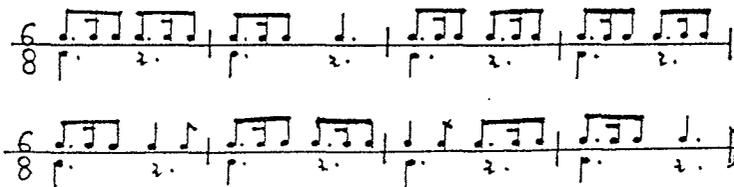
<악보 1>

○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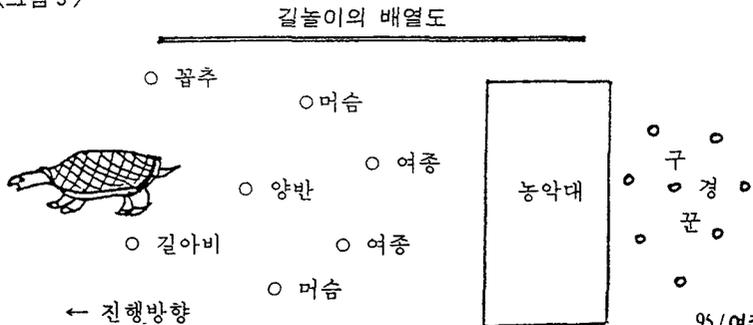


<안보 2>

○길군악



<그림 3>



물곳은 生命을 영위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삶의 젖줄이자 부녀자들의 對話의 장소이기에 이 우물곳은 나름대로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길군악이나 동시삼채의 가락(〈악보3〉 참조)에 맞추어 길을 간다. 이 때는 일정한 순서가 없이 서로 어우러져 거북을 중심으로 행진한다.

〈악보 3〉

○동리삼채



### ③ 문 곳

우물곳을 끝내고 마을에 들어선 놀이대 일행은 마을의 정해진 집문앞에 도착하면 상쇠의 신호에 따라 멈춘 후 문곳풀이를 시작한다. 「문여시오 문여시오. 수명장수 들어갑니다」 하고 고사담을 끝낸 후에 거북을 앞세우고 집안으로 들어간다.

이 문곳은 문을 지나 들어가는 간단한 절차이긴 하지만 우리민족은 옛부터 이 문이란 건축물에 대해서 무척이나 세심한 면을 보이고 있다. 이 문으로 해서 모든 길흉화복이 드나든다고 믿어 새봄이 되면 「立春大吉」이란 글자를 써서 문에 써 붙인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홍살문” “열녀문” 등의 문을 세워 공덕을 기리고자 함을 보더라도 이 문곳은 상당한 뜻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④ 터주굿

집안에 들어선 놀이대 일행은 집뒤의 장독대 옆에 있는 터주가리 주위에 모여 선다. 옛부터 우리의 巫俗信仰에는 집뒤의 터주가리에는 터주신이 있다고 믿어 항상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 놓고 치성을 드리는 습속이 있었다.

터주가리 주위에 모여선 놀이대 일행은 상쇠의 신호에 따라 「누릅세 누릅세 터주지신 누릅세」를 외우며 땅을 푹푹 밟는다. 이러한 모습은 「지신밟기」나 「걸림」의 踏地低昂의 형태와 같이 이루어지며 잠신이 나오지 못하게 해 가내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 ⑤ 조왕굿

터주굿을 마친 놀이대는 뒤뜰에서 부엌을 통하는 문으로 상쇠를 포함한 풍물잡이와 어릿광대 등이 조왕으로 들어선다. 옛부터 우리 무속에는 부엌에는 조왕신이 있다고 믿어서 모든 祭儀式이 이루어지면 부뚜막 위에 떡도 꺾어 놓고 술도 부어 雜鬼 물리치는 습속이 성행되어 왔으며 이 부엌이란 우리의 食生活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가장 貴重한 곳이며 또한 家屋의 구조상 난방 역할의 구심점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곳이다. 상쇠의 신호에 따라서 놀이대 일행은 “누릅세 누릅세 조왕지신 누릅세”를 외우며 부엌바닥을 푹푹 밟다가 절을 세번한 후 밖으로 나온다.

#### ⑥ 대청굿

옛부터 대청의 대들보 위에는 커다란 「업」이란 永物이 있어 집안의 모든 吉凶禍福을 관장하고 있다고 믿는 우리 민족은 이 대청굿에 남다른 신경을 써 온 것을 알 수 있다. 거북은 마당주위를 어슬렁거리고 상쇠의 祝願이 계속되는 동안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함께 치성을 드린다. 상쇠의 고사담은 액살풀이, 홍수풀이, 농사풀이, 달거리 등의 순으로 이어지며 (附錄 참조) 이 대청굿은 거북놀이의 전 과정중 가장 중요한 뜻을 지니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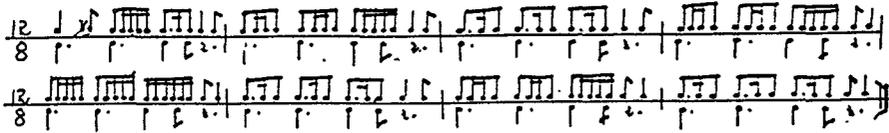
## ⑦ 마당놀이

대청굿이 끝나고 나면 모든 거북놀이의 놀이대 일행은 전부 마당으로 내려와 본격적인 마당놀이를 펼친다. 이 마당 놀이는 한해의 풍요한 수확을 건우어 한껏 飽滿感에 사로잡힌 充足感과 거북을 위함으로써 모든 재액을 물리치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安堵感이 한데 어우러져 마음껏 뛰고 놀 수 있는 가장 흥에 겨운 과정이다. 한참을 굿거리장단(〈악보 4〉 참조)과 다드래기장단(〈악보 5〉 참조)에 맞추어 흥겹게 놀 때 거북이가 쏠어지면 거북몰이인 길아비가 깜짝 놀라 「거북이기 쓰러졌다」고 외친다. 모든 놀이대 일행은 거북이 주위로 몰려들고 길아비는 거북이의 몸을 이리저리 살펴본 후 집주인에게 「이 거북이가 압록강을 건너 오느라 배가 고파서 쓰러졌으니 먹을 것 좀 주십시오」 하고 청원하면 주인이 떡과 과일 등 음식을 내어 놓고 “먹을 것은 많으니 많이 먹고 복이나 주고 가십시오” 하고 답한다. 이렇게 해서 거북놀이 일행은 마음껏 즐기며 이때 특유의 경기장단인 짹짹장단(〈악보6〉 참조) 등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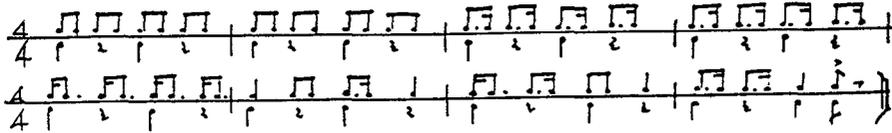
이렇게 집단민속놀이의 調和된 힘으로 우리 민족은 大同團結의 근본으로 삼았으며, 相扶相助의 협동심의 지표였다. 이러한 인정미 넘치는 훈훈한 정은 우리민족이 아니면 찾아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으며 이러한 근본적인 힘이 외세의 거센 바람속에서도 이겨나온 원천이 되었던 것이다.

한참을 흥에 겨워 즐기던 놀이대 일행은 거북을 앞세우고 다음집으로 향하며 모든 이들은 거북을 따라가며 “거북아 만세 거북아 잘도 먹고 잘도 놀아라”를 외치고 밤이 이슬하도록 집집마다 돌아 다니며 복도 빌어주고 한데 어울려 즐기는 대동놀이이다.

<악보 4> : 굿거리<광고가락>



<악보 5> : 다드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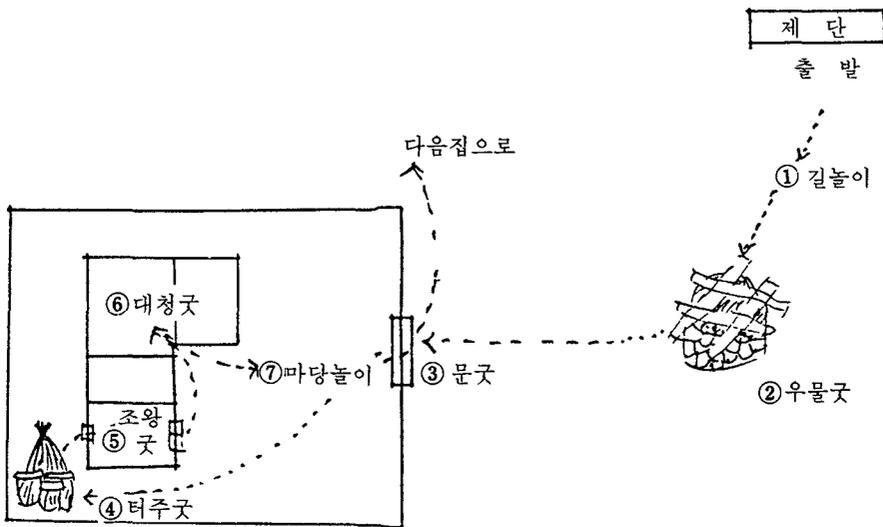
<악보 6> : 짹짹이 장단



<1> 은 짧은 짹짹이 <2> 는 높은 짹짹이.

<그림 4>

거북놀이의 진행순서



#### (4) 거북이의 형태

여주의 거북놀이에 나타나는 거북이의 모습은 地域 나뭇의 특성이 있다. 이 거북놀이에 나타나는 거북이의 형태는 각 지역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나며 그 들 나뭇대로 거북이와 비슷한 형상을 만들어 상징적인 거북을 만들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천지역의 경우 일부지역은 멧방석에다 수수잎을 꽃아서 거북이의 등을 만들고 맨드라미를 여러겹 합쳐 짚으로 묶어서 머리를 대신했는가하면 일부에서는 지게위에다 소쿠리를 얹고 그 위에 수수잎을 꽃아서 몸체를 만들고 수수비를 묶어 꼬릴 달았으며 밤송이를 내밀어 머리라고 불렀던 점이나 1982년 제23회 全國競演大會에 참가했던 충북 음성군의 거북이는 약간 길다란 모습으로 연이어진 상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렇듯이 지역마다 거북이의 형태는 특이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천지역 역시 이러한 原始的인 형태의 거북이가 1978년 민속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최근의 거북이는 원래 거북의 모습과 흡사하게끔 만들어지고 있다.

여주지역의 거북이는 1930년대 놀이가 중단될 때까지도 비교적 변화없이 전해졌으며 그 형태는 수수잎을 엮어서 길게 만들어 演戲者의 체위에 따라서 2~6명이 들어갈 수 있었으며 제작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수수잎을 따서 짚으로 꼬아 만든 끈으로 엮어 가면서 용마름을 틀고 수수잎을 늘려나간다.
- ② 굵은 용마름을 틀어 머리부분에서부터 꼬리부분까지 연결한다.
- ③ 거북이의 모양을 뜨며 수수잎을 늘여 끈으로 묶는다.
- ④ 끈으로 등의 무늬를 만들며 고정시킨다. (<그림 1, 2> 참조) 이때 2~6명이 들어가게 되면 머리부분쪽의 사람이 技能人이 되고 뒷쪽의 사람들은 보조 역할을 하며 수수잎으로 온몸을 둘러싼 거북물이인 「길아비」가 몰고 다녔다 (여주군 능서면 말내부락 변장손(72)씨 증언)

## (5) 여주 거북놀이의 特性

한국의 민속은 그 지역나름의 특성을 보이며 창출되었다. 지역의 地理的條件, 지역민의 性格 지역의 言語, 生活習慣, 기타 주위의 모든 영향을 받으며 창출된 것이 그 지역 특유의 민속이라고 보아야 타당하다. 하기에 지역의 민속은 그 지역 나름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여주의 거북놀이도 그 調査發掘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특징을 보이며 연희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의 놀이방법은 필요에 따라서 설정해 놓은 순서지만 원래는 순서가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며 小道具의 사용 형태 등의 타지역과 비교할 때 나름대로의 특성을 찾자면 다음과 같다.

① 거북이의 형태는 50여년전에 놀이가 중단될 때까지 머리와 몸체 꼬리가 세분되지 않고 연결해서 만들었으며 演戲者도 2~6명이 들어갈 수 있게 제작되었다는 점.

② 타지역의 거북놀이에서 사용되는 각종 旗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이유를 조사한 결과 밤에 연희되는 거북놀이에 보이지도 않는(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됨) 農旗 令旗 龍旗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점(여주군 능서면 마래리 거주 변장국씨 증언)

③ 대청곳에서 나타나는 고사반이나 진행과정 중 나타나는 德談이 지역나름의 특성이 있다는 점.

④ 각 부락의 거북놀이의 演戲場所를 조사한 결과 거북놀이가 盛行했던 지역은 그 지역의 농악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었다는 점 - 능서면 가남면 등지(가남면 화평2리 천장호(57)씨의 증언).

위에 나타나는 사실로 보아도 같은 명칭으로 나타나는 거북놀이라는 민속이 지역의 특성이나 연희자의 기량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특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 (6) 驪州의 거북놀이의 問題點

여주지역의 거북놀이를 조사, 발굴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으며 거북놀이의 올바른 保存, 傳授를 위해서는 시급한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① 거북놀이의 연희가 중단된지 50여년이 지났으므로 거의 기억에서 사라져 가고 있으며 연희 당시 놀이에 임했던 技藝人들이 놀이의 과정이나 거북의 제작과정을 알고는 있지만 전부가 고령에 있어 하루 빨리 再現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북놀이 자체가 완전히 消滅되어 버린다는 점.

② 거북놀이에 伴奏音樂으로 사용된 쇠가락(風物)도 그 당시의 연희했던 기예인의 부재로 하루 빨리 정리작업을 하지 않으면 그나마 여주지역의 거북놀이의 풍물은 완전히 맥이 끊긴다는 점.

③ 거북놀이 자체가 大同團結을 목적으로 하고 각 가정마다 다니며 복을 빌어 준다는 우리의 고유한 무속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동리의 협동심이나 公益事業을 위해 서로 하루 빨리 재연이 되어야 한다는 점.

④ 잊혀져 가는 우리의 傳統文化를 재현시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참된 민속을 일깨워 우리민족의 우수한 민족문화를 고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⑤ 국가의 큰 행사(88 서울올림픽)를 목전에 둔 지금에 맥이 끊긴 지역의 민속이 하루 빨리 발굴, 정리가 돼 우리의 문화를 세계에 알려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지방 민속의 발굴·육성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들이다.

## (7) 利川·陰城거북놀이와 驪州 거북놀이 比較

경기도의 이천·여주지역의 거북놀이와 충청북도 음성 지역의 거북놀이를 비교하면 각기 저마다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진행과정이나 소품은 물론이려니와 인원의 編成이나 기타 고사반의 내용 등

지역나름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음성의 거북놀이에는 농악에 바라가 사용되고 있는 등 (2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忠淸北道 陰城 거북놀이」 선전용지 참조) 근접한畿湖地方내에서도 서로 다른 점이 나타나고 있어 경기의 이천·여주와 충북의 음성거북놀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표2> 참조)

〈표2〉 이천 음성 여주거북놀이의 비교

구 분	이천 거북놀이	음성 거북놀이	여주 거북놀이
인원편성	농기.영기.용기.질라 아비.거북.머슴.양 반.남중 여중 썩불 잡이. 농악대. 기타 관객	농기.영기.용기.농악 대 거북.여장.질라 아비.진사.뽕추.의 원.포수.놀이꾼.노모	거북.길아비.양반.머 슴.여중.남중.뽕추. 농악대 기타 관객
놀이순서	길놀이→장승굿→ 우물굿→마을판굿 →문굿→터주굿→ 조방굿→대청굿→ 마당놀이	길놀이→용궁굿→ 조왕굿→터주굿→ 마당놀이	길놀이→우물굿→ 문굿→터주굿→조 왕굿→대청굿→마 당놀이
특기사항	부포상 나비상사용	농악대 자바라를 사용 포수.의원.노모등이 출연	각종 깃대가 없음. 부도상. 나비상사용
연희시기	음력 8월15일 밤	음력 8월15일 밤	음력 8월15일 밤
재연과정	1940년대까지 연희→ 일제의 문화말살정책 으로 중단 1976년재 현→1978년 제19회 전국민속경연대회 문 화공보부장관상 수상 →1985년 재정리작업	1940년대까지 연희→ 일제의 문화말살정책 으로 중단→1982년재 현→1982년 제23회 전국민속경연대회 문 공부장관상 수상.	1930년대까지 연희→ 일제의 문화말살정책 으로 중단→농악만 가남면을 중심으로 전수→1985년 발굴작 업
거북의연희인원	2 명	2 명	2 ~ 6명
기 타			



#### 4. 거북놀이의 쇠가락 - 상쇠 천일초氏의 쇠가락을 中心으로

본 여주 거북놀이의 쇠가락은 여주군 가남면 화평2리에 거주하는 상쇠 천일초(57才)씨의 쇠가락을 채보한 것이며 천일초씨는 쇠가락과 벽구돌림의 대가라고 칭해지던 남은영(작고) 등과 함께 연회를 한 적도 있는 技藝人으로 그의 쇠가락은 경쾌하고 평이로우며 특히 그는 상벽구와 무등까지도 해낼 수 있는 재주꾼으로 알려져 있다.

본 상쇠의 쇠가락은 정해진 가락이 아니고 연회의 시간이나 환경에 따라 변화가 됨을 부연하고자 한다.

##### (1) 길군악

The musical notation for '길군악' is presented in three staves, each with a 6/8 time signature. The notation uses a combination of eighth and sixteenth notes, rests, and dynamic markings such as 'p.' and '2.'. The first staff contains four measures, the second staff contains four measures, and the third staff contains four measures, ending with a double bar line.

(2) 동리삼채

(3) 굿거리

(4) 다르래기

(5) 짹짹이 가락

\* <1>은 잦은 짹짹이 가락이고, <2>는 느린 짹짹이 가락으로 위와 같은 가락이 반복된다.

## 5. 驪州 거북놀이 고사반

거북놀이 뿐이 아니라 걸립 등에서 이루어지는 고사반의 내용은 각 지역별로 특이한 言語의 구사를 하고 있다. 또한 이 고사반은 口述者에 의해서 약간씩의 변화가 생겨 전하여 지기때문에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가는 찾을 수 없다. 지역별로 조사하건데 이천지역의 고사반은 이춘도역사(작고)나 김문섭(작고)옹의 고사반이 제일 정확성을 띄우고 있으며, 충북음성의 거북놀이의 고사반은 거북노래(讚龜歌)가 있어 특이하며 대신 홍수풀이·액살풀이·달거리·태평성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천의 거북놀이 德談은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백석 거북아 놀아라. 천석거북아 놀아라. 만석거북아 놀아라」로 나타나고 있고 여주지역은 「거북아 거북아 만세거북아 잘도 먹고 잘도 놀아라」로 나타나며 충북음성의 거북놀이의 덕담은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천냥 거북아 놀아라. 만냥거북아 놀아라. 즐겁게 받으시고 마음감게 받으시고 형그럽게 받으시고 …… (以下省略)」으로 나타나며 조왕굿, 터주굿의 덕담도 판이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고사반이란 그때의 상황에 따라 변해질 수가 있는 것이며 정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주지역의 고사반 역시 唱者마다 차이가 나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가는 논하기 어렵다. 다만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수록하고자 할 뿐이다.

### 《太平聖代》

국태민안 시화년풍 연년이 돌아들고  
이씨한양 등국후 삼각산이 기봉되고  
왕십리는 청룡되고 등구재 만리재 백호로다.  
동쪽강은 천금마요 한강이 조수되어  
봉학에 주천이 생겼구나  
학을 놀러 대궐짓고 대궐앞에 육조로다

육조앞에 오영문 삼각산 각도각읍을 마련할제  
 경기는 삼십칠간 마련하고  
 여주같은 대목안이 이대면내 대면내  
 이대동중 대동중  
 상남에 서방님 중남에 도련님  
 하남에 여자아기 어깨넘어 길동자  
 무릅밑에 손동자  
 느냥머리 더벅머리 무럭무럭 자라날때  
 기러기 한백년 천추만세 다 보내고

※ 註) 이 太平聖代는 점동면 혼암리의 쌍룡거줄다리기의 태평성대(文藝振興院刊<文藝振興 84-4> 鄭炳活(여주군 점동면 혼암리 거줄다리기) P 69-71와 북내면 지내리 거주 최간난 여사의 태평성대 P 366-367. 1982년 복합 발췌하였다. (여주군지)<문화유적>

## ／ 홍수풀이 ／

작년같은 험한시절 꿈결같이 지났는데 올같은 행운년에 십년행년을 가려서 원  
 갓 액살을 풀어주자.

살풀어서 거리살 인간노중에 이별살  
 부모님 도로가 문삼살 하님삼칭은 복직살  
 동네방네 흐린살 이웃집에는 흐린살  
 살인난데 제번살 도적맞아도 실물살  
 혼인대사에 주당살 하늘이 울어서 천둥살  
 땅이 울어서 지동살 바깥마당에 벼락살  
 안마당에 해룡살 지붕밑에는 용초살  
 마루대청에 성주님살 뒤주안에는 양미살  
 안방뒷방 둘러서서 이벽저벽 벽파살  
 해태밑에 능마살 부엌삼칸 들어서서 아궁이는 금도끼살 살판밑에 땡그랑살

물동이안에 용녀부인 가루독에는 시부녀 굴뚝에는 굴대장군 장독간에 고두대  
살 이살저살 심몰아다가 금일 고사반에 대접해  
액간처리에 소멸하니 만사는 대길하고  
백사는 요해하옵기 소원성취가 발원이요

※ 註) 이 홍수풀이는 점동면 혼암리의 쌍룡거줄다리기에서 나타나는 홍수풀이로  
문장이 틀리거나 어휘가 틀린것은 바로 잡았음.

## 《 농사풀이 》

농사한철을 지어보자  
농사를 지을적에  
앞뜰에는 보뜰이요  
뒷뜰에는 견봉지기  
물논이면 고래실이요  
모자리를 하여보세  
모자리를 하여 놓고  
머드래두 심귀보자  
머드래를 심굴적에  
수수적두 참깨들개 머드래요  
방정맞다 주더니콩  
이팔청춘에 푸르대콩  
만리타국에 강남콩을  
여기저기 심어놓고  
깽두깨깽 깨깽깨깽  
모자리를 뽑아다가  
이논 저논에 심귀보세

모자리를 뽑아다가 심굴적에  
 못다먹었다 흘쪽벼  
 바람불었다 풍옥이며  
 혼자먹었다 돼지찰  
 알송달송해 까투리찰  
 이모를 심귀설랑  
 세월이 야릇하야  
 금태를 두른듯이  
 황금같은 옷을입어  
 낫을 들구나 배어보세  
 푸드득 푸드득 배어다가  
 길마지며 쇠바리로 실어드려  
 안에 안방 마님들두  
 딱리 바쳐서 여디리거  
 앞에는 앞노적에 뒤에는 뒷노적에  
 고댕광실 높은집에  
 에귀에다 풍경을 달고  
 동남풍이 불어오면 땡그렁 땡그렁  
 풍경소리 그골안에 쨍쨍 울리는고나  
 뒷노적에서 봉황이 한날갯치면  
 일이천석이 쏟아지고  
 하냥하냥 좋은세월  
 농사한철을 짓고가자

※ 註) 이 농사풀이는 북내면 지내리의 최간난여사의 농사풀이를 옮겼으나 최근에 나  
 타난 유신벼, 통일벼 등의 사설은 연희가 중단된 후의 사설이므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췌하였음.

## 《 달거리 》

거리가 이택가정에 세다하니 달거리를 풀고가자.  
정월에 드는액은 이월 영등 막아주고  
이월에 드는액은 삼월삼짓날 제비 멍뚱이로 막아주고  
삼월에 드는액은 초과일 관통으로 막아주고  
사월에 드는액은 5월단오 그네줄로 막아주고  
오월에 드는액은 유월유두 밀젼병으로 막아주고  
유월에 드는액은 칠월칠석 까치머리로 막아주고  
칠월에 드는액은 팔월추석 쟁반굽으로 막아주고  
팔월에 드는액은 구월구일 구구절 사당차리로 막아주고  
구월에 드는액은 시월상달 시루떡으로 막아주고  
시월에 드는액은 동지달이라 동지날 동지팔죽으로 막아주고  
동지에 드는액은 선달액은 선달의 그믐날 흰떡가래로 막아주고  
선달에 드는액은 내년정월 열나흔날 방망이 맞은 북어대가리 백지한장에  
둘둘말아 원강에 소멸하니  
만사는 대길이요 백사가 여일하고  
마음가짐 잡순대로 소원성취 발원이라

※ 이 달거리는 홍천면 효지리 거주 임춘수의 창부거리<굿할때 부르는 巫歌>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홍수」를 「액」으로 바뀌어 기재하였음.

## 6. 驪州 거북놀이의 技能保有者

변장손(73세) 고종 능서면 마래리

박치관(73세) 고종 가남면 오산리

천일초(57세) 상쇠 가남면 화평2리

변장국(65세) 거북의 제작 및 놀이방법 능서면 마래리

신성순(63세) 농악 가남면 안금리

## 7. 驪州 거북놀이의 沿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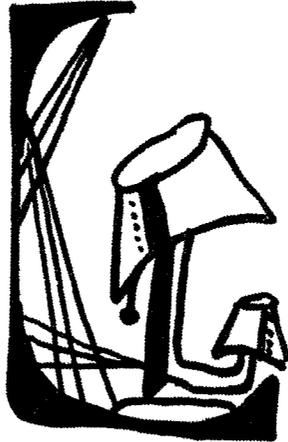
1930년대까지 연희되다가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으로 인해 중단

〈中斷理由〉

- ① 유기 그릇의 공출로 인해서 징, 쟁과리 등을 몰수당해 풍물이 없어짐.
- ② 대동단결을 이유로 하는 민속놀이이기에 대중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
- ③ 지역문화의 말살로 민족혼을 괴멸시키기 위한 방법
- ④ 남는 時間을 作業에 충당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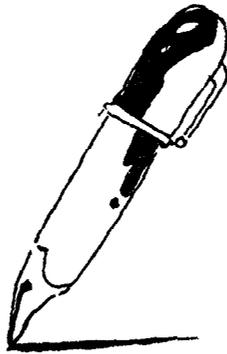
〈위 내용은 1989년에 발행된 여주군지에서 발췌한 것임〉

향토문예



이

백



## 소 나 무

수십년 수백년 수천년 헤아릴 수 없이  
벼랑 끝 바위틈에 오뚝이처럼 날롬 앓은 소나무  
사시사철 변함없이 푸르른 기상  
모진 비바람 찬 서리에도  
끄떡없이 이겨낸 인고의 세월  
오늘도 변색없는 푸른절개  
내일도 모래도 영원히 이어가리



강 태 희

- 크리스찬문학 시 당선
- 아동문예, 아동문학 동화 당선
- 한국아동문학 경기지회장
- 한국아동문학회 작가상 수상
- 여주, 점동, 가남초등학교장 역임
- 여주문화원 이사
- 저서: 동화집 <천사의 얼굴> 외 6권

# 자 아

나에게 진실한 친구있네  
우리의 첫 만남은  
강변에서 이루었네  
그는  
나를 반겨 그림자가 되었고  
나는, 그를  
기꺼이 포옹 하였네  
우리는  
물결 소리에 함께 높고  
바람소리에 함께 일어 섰네  
어느덧 밀월은 지나가고  
이제는  
나뉘어야 만 한다네  
작은 배를 띄워  
낚시를 메고  
저 - 너른 바다로 나아가  
오랫동안 아주 큰 녀석과  
한판 씨름을 해야 한다네



김 정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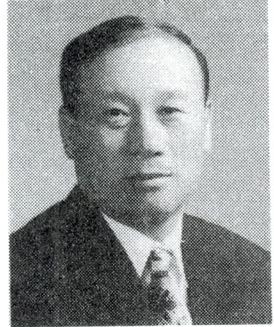
· 한국문협 여주지부 회원  
· 금강 근무

## 어 머 니

그리워라  
꽃가마 타고  
바람 따라 가신 어머니

이 세상 사실적에  
묶인 인연 끊으시고, 무거운 짐 벗으시고  
애뜻한 정만 두고 떠나가신 어머니

춘 삼월에  
두견새 노래하고  
술 바람에 실려, 꽃 한 송이 피어나면  
반기오리다, 보고싶은 어머니



김 흥 렬

- 여주 출생
- 한국문인협회 회원
- 고려대 농경과 졸업
- 허균 문학상 수상
- 여주문인협회 회원
- 전 은행 근무
- 여주문화원 이사

## 허공을 나는 새처럼

주인 없이 텅 비어 있는 몸  
마음은 앞서가고 길 위를 봐도  
길 찾을 수 없는데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는  
허공의 새처럼  
나는 더 내려갈 곳이 없다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나를 찾아  
더 이상 내려갈 세상이 없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숨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내가 살아 있다고 느낄 때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려고 몸부림친다고 느낄 때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내 집착이 바라보는 것인지도 모른다

지혜의 눈 열리면 찾을 수 있을까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은 것 같은 나  
달 밝은 밤 삼생(三生)을 살고  
햇살에 문을 열어도  
실재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그 말을  
나는 내 것으로 할 수가 없다  
심인이 열리면 찾을 수 있을까  
침몰하지 않고 견딜수만 있다면  
텅비어 버린 이 낯선 공허를 채울 수 있을까?



박 광 태

- 동국대 국문과 동 대학원 졸
- 축협중앙회 감사 및
- 사료공장 사업소장 역임
- 「자유문학」 시 당선
- 해평시 동인
- 한국문학여주지부 회원
- 현재 여주문화원 부원장

## 還流(환류)

지나온 세월  
시련과 고통속에서  
질경이처럼  
곳곳이 참뜻으로  
살아온 친구야.

양가슴  
내비친 중년의 모습  
속스러움 못 이겨  
얼굴 붉히던 모습  
어린 시절 추억속에  
네 모습이 떠 오른다.

사기 그릇 용기 그릇에  
이름 모를 맛난 반찬 해 놓고  
각시 신랑 하고 놀던  
동심의 시절로 돌아갈 순 없겠니  
빗물에 빗기운  
해맑은 청록  
저 오월의 청산처럼.



박 찬 수

- 경기 여주출생
- 문예사조 신인상 수상
- 한국자유시인 회원
- 한국문협 여주지부 회원
- 여주東중학교 교사
- 경기동부신문 객원논설위원

## 한 계 령

높은 산 꼭대기에  
흰구름이 두둥실 떠가고  
깊은 골짜기 계곡에는  
맑은 물이 졸졸졸 흐르는 선경(仙境)

중간 중간  
폭포를 이뤄  
힘차게 내리썰는  
웅장한 물소리는  
지나가는 산행인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기암절벽 웅장한 용트림에  
저절로 터지는  
이구동성(異口同聲)의 감탄사는  
반울림으로 돌아온다

이 조물주의  
아름다운 작품  
한계령의 수려함에  
저절로 숙여지는데  
이 아름다운 자연의 신비를  
작은 인간의 필설로  
어찌 다하리오!



윤 병 희

- 새마을금고학회 이사
- 여주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여주문인협회 회원

## 고 향

사루비아 꽃빛으로  
노을이 타는  
산넘어 내고향

진달래 흐드러진  
봄이 오면  
고향동산 그 언덕에  
풀피리 불며  
빼꾸기 노래속에  
희망을 심었지.

눈이 시리도록 반짝이던  
실개천 조약돌  
물장구치던 여름 냇가  
지금도 귓가에  
아련히 흐르고

무지개 빛 물안개가  
아침을 여는 가을.  
일렁이는 황금 들녘  
풍요로운 일상을  
거두어 들이고

소복소복 고요히 잠든  
하이얀 겨울  
어머니의 미소가 넘치는  
그리운 고향.



이 경 섭

한국문인협회 여주지부 회원

## 남한강

찬연한 아침햇살  
남한당 푸른산하에  
자유를 평등하게  
유린없는 영광을 누리도록  
생명의 젓줄이 흐르네

한많은 물구비 산모냉이지나  
희노애락을 싣고  
구비구비 칠백리 날개를 달고  
비상하는 용비의 꿈

말씀의 강  
감박이는 등불을 밝히고  
골짜마다 문화 꽃피워  
마을과 마을 손잡고  
출렁출렁 아리랑 멜로디가  
새파란 물위를 걸어가네.

옛 숨소리 들리는듯  
목향의 내음이  
오늘도 흐르는강

황포 돛이 노을에 불타는듯  
남한강 펜 뭍도 힘차게 흐르리라!



이 일 섭

- 여주출생
- 「시와 시론」 등단
- 한국문인협회 회원
- 한국예총 여주지부 수석부지부장
- 문협 여주지부 부지부장
- 현대시인협회 회원
- 시집〈평당 찾아오신 영릉〉
- 여주문화원 감사

## 천년우수 (千年憂愁)

쪽빛고깔 쓰고있는  
설봉(雪峰)에 오르니  
고깔을 벗겨낸  
바람이 안겨온다

햇빛 속 봄비는  
산처녀의 변심인가  
금강산에 가지 못한  
통한의 눈물인가

천년을 울어도  
금강산에 못가실 바엔  
한맺힌 우리 아바이  
고향길이나 열어주소서.



이 장 호

- 한국문협 여주지부 회원
- 1997년 12월 데이콤 문단 생활속의 이야기 우수상
- (주)이렉캡 근무

## 고운 설레임으로

하늘을  
닿은  
유채꽃  
꿈들이  
두렁곁에  
너울대는  
실바람에  
청사초롱  
울리며  
그리움을  
하나씩  
하나씩  
떨구우고  
고운 설레임으로  
꿈길을 걷는다  
.....



이 신 재

- 1995<문예사조>로 등단
- 한국문협 여주지부 회원
- 안성 서문중학교 교사

## 동심

호수같이  
맑고  
보석처럼  
빛나며

황금들판의  
소근대는 바람같이  
풍성한  
동심의 햇살받아

꿈을 키우고  
희망을 섞은  
수정알 같은  
고운 싹 틔울래요.



이 문 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간사위원
- 바르게살기 여주군지회 여성회장
- 수원법원 청소년 보호위원
- 여주문인협회 이사
- 아동문학회 이사
- 예총여주군 지회 이사

## 강가의 풍경

물수제비를 뜬다.  
버젓이 흐르는 강물 위에  
빨랫줄처럼 뻗어 나가는 동심원

주름살을 펴는 동심원을 타고 피어나는 물안개  
안개는  
강을 점령하고,  
도시를 점령하고,  
고층빌딩 두어 채 남겨 두고  
오리가 되어 비상한다.

안개 걷힐 때  
역장 무너지듯  
한 해 겨울 깨어진 얼음조각 위  
종종걸음치는 물오리의 시린 발.

어느 틈에  
나목에 내리는  
수빙(樹氷).



이 상 국

- 제2회 공무원문예대전 수필당선
- 현대수필로 등단
- 현대수필 문인회회원
- 한국 수필학회 회원
- 한국문협 여주지부회원
- 현재:여주군의회 전문위원

## 우 체 통

이젠 낯설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  
부재 된 날들을  
순간의 소식지가 되어가고  
즐거움과 즐겁지 않은것과의 교차를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됨이  
주인이 떠나 있었음을 이유삼아  
다행이라는 변명앞에 늘어놓는다  
떠나있지 않았던 날에는  
항상 바쁘다는 변명으로  
기다리게 했던걸 ..  
집에 올 때 자신을 찾을수 있는곳이  
우체통이 되었다는 것이  
어쩌면  
어느 순간 순간의 시간속에  
자신을 박재 시켜놓았음을  
확인하게 하는 것 또한  
한웅큼이나 쌓여있는 소식지가  
마음의 소식지까지 전해주었기 때문일거다



임 춘 봉

· 순수문학 추천 등단  
· 한국문협 여주지부 회원

## 망 선 루

이 세상 만물들의 거듭되는 윤회전생  
공민왕 때 처음 나고 새천년에 다시 나고  
몇겹을 전생해야만 당신 같은 신선될까.

새 단장 새옷 입고 단아하게 앉은 모습  
큰 뜻 품고 응비하는 조선시대 선비여라  
어디서 글 읽는 소리 귀에 쟁쟁 들려온다.

연년 생생 무궁무진 서기어린 중앙공원  
청학은 알을 품고 먼 하늘 바라본다  
고려 적 청동 바람에 실려오는 쇠북 소리.

민족의 운명처럼 다난했던 망선루는  
도도한 꿈을 안고 역사의 강 건너왔다  
이제는 높은 탑 쌓아 통일 염원 이루리라.



원 용 문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과 졸업
- 한국시조학회 회장 역임
- 한국시조시인협회 부회장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한국문인협회 여주지부장
- 여주문화원 이사

## 마 라 도

칼날같은 이빨로  
으렁대는 파도를

헤치고 달리면  
우직한 섬 다달은다.

어디서  
날아왔는가  
이 고귀한 보물이

파도속에 찍혀진  
까만점 하나가

최남단 끝자락에  
웅크리고 앉아서

힘차게  
소리치면서  
우리땅을 지킨다.



정 기 명

- 중앙대 문예창작과 졸업
- 「문예사조」 시 당선
- 「현대시조」 시조 당선
- 한국문협회원
- 한국시조시인협회 회원
- 경인시조시인협회 회원
- 끼리창작 동인회원
- 한국문협 여주지부 부회장
- 시집 <여강의 뜻을 달고> 등 다수
- 현재 : 강천중학교 교사

## 마드마제(K.P)에서의 밤

동족상쟁, 1950년의 소용돌이속의 설원대원정  
동한만의 검푸른 파도를 타고  
노랑부표의 한일 평화선을 넘어  
끝없는 눈송이와 전우의 눈망울이 명멸하는  
추억을 뱉으면서 나는 이곳에 올랐다.

불빛이 쏟아지는 항구 '마드마제'  
세계로 날아가는 태극은익의 환각속에  
마드마제의 음악은 컷가를 간지르는데  
동향의 야경에 심취 되었던밤  
추억은 오가며 옛날과 지금이 어제같은데

심연으로 빨려드는 은은한 음악속  
섹스폰의 멜로디는 정말 마력이 있는것 같애  
공존의 원리에서 공생을 터득하는 자리  
한칸에 5m의 철조망 사방 25cm의 작은집합  
밝은 전등에 백사장에 남긴 발자국들  
2층에서 내려다보는 경계선과 향락의조화



양암 조 현

- 건국대 국어국문과 졸업
- 세계시인협회 지도위원
- 여주대학 감사
- 한국문인협회 회원
- 여주문화원 회원

밀려오는 일파, 이파, 제삼파 그리고 또  
백사장에 부딪치고, 사라지고, 또 밀려오는  
천편 일률적인 파도와 백사장의 되풀이  
영! 저 흰파도는 신비마저 느끼네요

외항에 즐고있는 무인등대와 오징어배 그 불빛  
마드마제의 음악과, 밤파도, 외항의 불빛  
공존의 기교는 파도처럼 영원으로 흐르네  
추억의 이밤은 50년을 이어주건만,  
마드마제의 밤비는 소리없이 내리는데 ……

## 생 존

뜨겁게 내리쬐는  
되약 빛에  
갈라지는 농토.

촌로의 타는 가슴에  
물을 찾기 위한  
안타까운 몸부림.

하늘을 쳐다보니  
오늘도 무심한  
태양빛은 강열하고

계곡 계곡 마다  
시원하게 흘러내리던  
물은 말라만 가고

지난날에  
힘차게 오르내리던  
물고기에 목 마른 애원

자유롭던 지난 시절  
그리워하며  
생존의 마지막 발버둥



주 동 훈

· 한국문협 여주지부 회원  
· 금강 근무

## 하얀 비

하얀비가 내리던날  
그는 떠났습니다.

강물을 따라 어디론가  
애달픈 마음만 남겨놓은채

하지만 나는 그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이별을 준비하지 않은 까닭에

오늘도 하얀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그를 아직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뒷편에

흘리지 못한 눈물을  
두눈 가득 참아 담고서

가슴 저 밑바닥에서  
뿜어나오는 슬픔을  
잠 재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날들을  
괴로워 했을까?  
눈물에 젖은 목소리는

마음으로 다하지  
멋한 얘기들을 남겨놓은채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최 병숙

한국문협 여주지부 회원

## 꿈

엄마를 보았다  
병색은 없어지고  
분 냄새 보양게는  
엄마를 만났다

너무 반가워  
엄마를 붙잡으며  
어디 갔다왔느냐고 물었더니  
엄마는 빙그레 웃으며  
'좋은데 ……' 하였다

어딜가든 나하고 다니더니  
좋은데는 혼자 간다고  
나는 빼쳤다

엄마가 살며시 웃으며  
뒤돌아가길래  
나는 서러워 막 울었다

한참을 울다 목이 메어  
눈을 떠보니  
눈가에 눈물은 흥건한데  
허허로운 한바탕의 꿈이었다

따스한 봄날  
햇살은 마당가에 쏟아지는데  
어두운 방구석에서  
허망한 꿈이 서러워  
또 울었다.



함은수

- 여주여고 졸
- 한국방송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
- 한국문인협회 여주지부 회원
- 대한노인회 여주지부 근무

## 내가 청소하는 이유

닦아야 할 것들이  
이 세상엔 너무나 많아

닦지 않아도 좋고  
닦으면 더욱 좋은 우리의 일상

가까운 사이라고  
소홀했었던 건 아닐까  
잠시 게으름 닦아보면

고요함보다  
많은 반가움들이 기쁘게  
자신의 태만을 깨우쳐 줄꺼야

잊고 있었던 지난날도 정리하다 보면  
먼지 쌓인 사이사이로  
보석같은 그리움들이  
뭉클 뭉클 가슴을 덮혀 줄꺼야

자책 또한 가슴을 치겠지  
반성으로 오늘을 만들고  
희망의 미래를 꿈 꾸겠지

그러나  
잊을 건 잊어야 해  
덮어 둘 건 덮어야 해

아픈 것은 아픈 채로  
고통스러운 것은 고통스러운 채로  
하나 하나 소중하게  
운기가 나도록 닦아봐  
이 세상 아름답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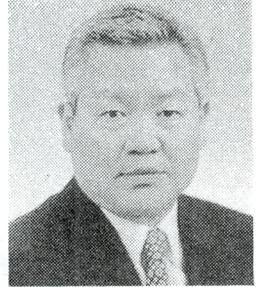


홍 은 숙

· 한국문인협회 회원  
· 여주교리 주유소 운영

수 밀





구 흥 서

- 자유총연맹 여주지부장 역임
- B. B. S 여주군지부장 역임
- 정진건축소장
- 여주대건축과 겸임교수
- 순수문학, 농민문학에서 수필부분 우수상 수상

## 분홍 슬리퍼

여자를 봄의 전령사로 이야기하는게 오래 전부터의 일이다. 봄이오면 여자들의 옷 색깔이 변했다느니, 봄바람이 난다느니 ... 그렇게 표현들을 했다.

대개의 여자들은 분홍빛으로 표현되길 바라며, 그 분홍빛은 아름답고 화사함을 간직한 빛깔이기에 신혼의 침대 커버나 덮는 이불 역시 분홍빛 이었다.

아내는 분홍빛을 꽤나 좋아했다. 철마다 바뀌는 침대보와 이불은 분홍빛 무늬를 넣은 것으로 했고 화장실에서 쓰는 물 컵도 칫솔도 분홍빛은 의례 아내의 것이고 다른 빛깔의 것은 내 것 이었다. 립스틱도 잘 바르지 않으며 갖고 있는 것은 분홍빛이다.

붉거나 검붉은 것은 내가 싫어하기에 역시 아내의 빛깔이 분홍으로 점철된 듯하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빛깔에 그리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다.

그저 편한 색의 옷을 사고 아내 역시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분홍빛에서 탈피하고 있었다. 아마 분홍빛을 쓰는 것에 질렸는지도 모르지만 색깔에 관심을 놓은 것을 보니 늙긴 늙었나 보다. 외출할 때도 옷엔 그리 신경을 쓰지 않고 너무 수수해 잔소리를 한 일이 있다.

옷 좀 분위기있게 해 입으라고 ... 그리고 나이가 들었으니 좀 신경 써가며 준비하라고 했지만 아내의 옷은 예전과 다름없이 그저 평범 이하의 수수한 옷이다.

원래 치장이라곤 하지 않아 목걸이는 부처님 말씀이 새겨진 것 하나, 반지도 귀걸이

도 없다. 하지 않고 다니니 해주고 싶어도 망설이게 되고 “해주려면 몇 개릿 되는 다이아몬드를 해주던지 …” 라고 주눅을 들게 해서 감히(?) 사주려하지 못한다.

물건을 아끼고 간직하는 나와는 상반되게 아내는 과감하게 버리는 걸 잘한다.

소위 구질구질 한걸 보지 못하는 성격에다가 두어 보았자 창고나 채우게 되고 보관만 힘들게 되고 짐이 되어 버리는 게 미덕이라는 대답이다.

주섬주섬 옷 보따리를 모아 상자에 담는걸 보면 ‘또 버리는구나’ 생각했다. 속옷만 빼고 한두 철 지나간 옷은 모조리 담아 조금 어려운 손아래 친척에게 주려는 것이다.

입던 옷을 주기가 미안해서인지 불러놓고 된장, 고추장, 간장 일년 내내 준비한 것을 아낌없이 퍼주며 데리고온 아이들에게도 일일이 용돈을 쥐어주기에 불만은 없다.

“좋은 옷 도 아닌데”라며 미안해하는 아내의 옷장 속에 걸린 분홍 빛 옷은 볼 수가 없다. 사랑을 잃어버린 건 아닐텐데 … 꽃다운 청춘이 지나가는데 남자뿐이 아니고 어느새 아내도 아줌마가 되어있는가 싶더니 할머니가 되어서 인지 분홍빛에 그리 집착을 하지 않았다.

저녁에 집에 가서 화장실 속에 슬리퍼가 바뀐 것을 보고 웃었다.

밑이 알강겨려 버릴까 하다가 두었는데 어느새 버리고 새 슬리퍼를 사다놓았다.

하나는 하늘색, 하나는 분홍색.

이전 내 거, 이전 당신 거 … 라며 내가 웃는걸 보고 아내가 말했다.

아내의 슬리퍼는 오랜만에 분홍색 이었다.

다시 찾은 아내의 분홍색.

오랫만에 아내의 세월이 되돌려지듯 분홍빛을 보며 행복했다. 언제나처럼 아내가 분홍빛을 간직하며 늙음이 와도 변하지 않는 그의 색을 간직하길 바라는 마음이 행복했다.

## 원칙을 찾아서



이 상 국

판문점 견학을 간다. 높은 분들이 가는 길이라 배웅할 양으로 떠나는 자리에 섰다가 권에 못이겨 차에 올라 수 인사를 한다.

각자의 인사는 판문점의 역사와 뼈아픈 조국의 이야기들이다. 차례가 되어 "6년 전 유럽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오스트리아로 넘어오는 국경선에 장막이나 철조망은 없었습니다. 파출소 경찰병력에 비할 군인 몇 명이 한담중이고 검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하듯 지나치며 고개를 떨구고 울고 있었습니다.

유홍준은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에서 김포의 대왕암 바닷가의 풍광을 설명하며 철조망 이야기합니다. 동해, 서해, 남해 ... 전 국토에 가지 철망을 쳐 놓은 국가가 세상천지 어디에 있는가." 짧은 인사에 두 배로 박수를 받아 기분이 좋다.

점심을 먹으며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먹는 거나 잘 먹으라는 팀장의 말을 건성으로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교육장에서 일등병 계급장이 경직된 자세로 해당자와 아년자를 구분 지으며 규정 지키기를 강조한다.

나는 아니다. 원칙에 벗어나 구차할 게 없다. 남의 이름 빌려 관광하기 보다 포기하는 것이 낫다 싶어 내 이름을 적어 떨려 난다.

머리 위에 독수린지 까마귀인자 검은 날개가 창공을 맴돈다. 을씨년스런 미루나무, 낙엽진 나무등걸마저 처량맞고, 찢겨 버려진 소파까지 슬프나.

JSA(공동경비구역). 1년전 상영된 팬츠는 영화다. 남한과 북한 병사들의 우정 넘나

들이 발각되어 총질이 오가고 몇이 죽어 정치사건으로 비화되어 진실은 묻혀진 채 주인공의 자살로 끝나는 내용이다. 철천지원수에서 동포로, 한 민족, 형제로 시각은 변한다.

돌아 와, 한 마디씩 하는데 이복 병사는 한 사람 밖에 보지 못했다. 지난번하곤 판판이다. 관광지를 돌고 온 기분이다. 대통령의 햇볕정책의 일환인가.

클린턴에서 부시로 바뀌어 경직되는 미국관계 ...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어찌란 말이나.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나.

일본인들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이 많다. 무엇을 생각할까. 찢겨진 아픔을 동감할까. 약소국의 설움을 감지할까.

의견이 각각이다. 원칙대로 승복해 고맙다는 의견, 그냥 결석한 사람 이름을 빌려도 될것을 그랬다. 몇 년전에도 대신 왔다, 남의 주민등록 번호를 외우지 못해 도중하차한 사람의 말을 인용해 '잘 했다'로 규결난다. 거짓으로 들어가 발각되어 혼쭐나는 병사들을 생각하면 더더욱 못할 짓이다.

임진강 오리 떼가 한가하다. 철조망으로 보이는 임진강은 무심히 흐른다. 6.25 사변에도 그렇게 흘렀고, 둘째 아들이 군복무로 여기서 근무할 때도 이렇게 흘렀을 것이다. 황혼의 강물 위로 솟아난 늘어지는 검은 갯벌, 갯벌 위로 세월처럼 무늬진 물결의 흔적과 물 새때 발자국이 정겹기만 한데 철조망으로 한기를 느낀다.

냉전으로 긴장하던 시절, 걸핏하면 좌익으로 몰아 고문하던 상처가 아픈데, 햇볕정책으로 동토의 땅을 데우다 솟덩이처럼 타 버려야 통일이 될까.

풀리지 않는 매듭, 프예블로호, 도끼만행, 김신조, KAL납북, 아웅산, 수지 김, 동백림, 땅굴, 제3국으로의 탈출, 눈물의 이산 가족, 총풍 위장 간첩 ... 수많은 사건으로 점철되고, 이승만에서 김대중으로 이어지는 대통령의 수도 많건만 매듭은 풀리지 않고 얽히기만 한다.

엉킨 실타래는 단칼에 베어 낼 양이 아니면 원칙과 순서에 따라 풀어야 한다. 이 논저놈 되는데로 제 고집대로 당기고 밀어 풀리기는커녕 엉키고 매듭만 더한다.

원칙을 무시한 사건들이 게이트 빅 스텔로 터져 전국이 아우성이다. 원칙대로 차근 차근 통일의 매듭을 풀어야 할 일이다.

판문점에서 원칙을 보고 돌아온다.

봄



이 장 호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하루하루가 다르게 산수유며 개나리, 철쭉이 제각기 자태를 뽐내며 다투어 산하를 물들이고 있다. 따스함을 넘어서서 이제 한낮에는 긴소매의 와이셔츠마저도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날씨는, 예년에 비하여 10여일이나 앞당겨져 개화(開花)했다는 꽃 소식이 아니어도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다.

어찌 날씨뿐이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인물의 하마평으로부터 시작하여 연일 뉴스를 장식하는 정치인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을 듣노라면 그 열기가 한 여름의 뜨거움에 비할까?

유명 정치인이 한 가족이 고급빌라에 모여 산다는 이유로 한바탕 곤욕을 치르고 50평 서민주택(?)으로 이사를 하더니, 장인의 경력까지 문제 삼아 사상에 문제가 있다고 떠들어대는 세상이다. 무릇 정치를 하려면 가족과 떨어져 살 것이며, 결혼 전에 처가 쪽의 전과조회서라도 받아 놓아야만 한다는 것이리라.

가득이나 날씨도 봄답지 아니한데, 요즘 불어 닦친 정치의 열풍은 계절마저 한 여름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곰곰히 생각하면 이 '춘래불사춘'이라는 어구는 '80년 서울의 봄' 때 널리 유행했었음을 기억해 낼 수 있다.

봄바람이 불어오기 전에 달려온 정치바람은 세월마저도 20년 넘게 되돌려 놓은 듯하다. 좌경, 급진, 진보, 혁신, 보수, 안정, 우국충정 등 이미 재탕에 삼탕을 넘어 셀 수 없이 써먹었으니 이제 약효마저 떨어질 법도 하건만, 아직도 지역주의의 망령과 함께 서서히 고개 드는 것을 보니 그 생명력은 가히 동방삭(東方朔)에 비견될 듯하다.

봄이 왔건만 봄이라 하기엔 뜨거운 봄을 넘어 이제는 한 여름에나 있을법한 짜증까지 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치인이 정치인답지 않고, 지식인이 지식인답지 않고 .. 결국 사람이 사람답지 않은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당리당락에 따른 정쟁이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하지만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면서 그 이유는 반드시 '국민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라고 빙자하는 유서 깊은 전통 또한 여전히 있다.

지난 총선 때 이정현의 '바뀌'를 서로 로고송으로 사용하기 위해 치졸한 싸움을 벌이던 그들이, 불과 몇 달 사이에 '바뀌'는 고사하고 유서 깊은 한국정치의 전통을 고수한다. 오히려 이 모습이 정치인답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마저 있을 정도이니 이 여름에 가까운 날씨도 봄이라고 불러줘야 할 것이다.

변방의 흉노땅에서 고향이 있는 중원을 그리는 왕자준(王昭君)'의 가련한 심정을 누군가가 대신하여 '호지무화초·춘래불사춘(胡地無花草·春來不似春 : 오랑케 땅에는 꽃도 풀도 없으니, 봄이 와도 봄 같지 않구나)'이라 읊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무엇답지 않은 무엇'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시대의 세월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여름은 여름답기를 그려보면서 .....

1) 왕소군(王昭君) 중국 전한(前漢) 말 원제(元帝)의 궁녀, 이름은 장(牆), 자는 소군(昭君). 클레오파트라가 자살하기 3년 전 즉 기원전 33년, 흉노와의 친화정책을 위해 흉노왕 호한야선우(呼韓 于)에게 시집갔고 그가 죽자 그의 아들에게 재가하여 그곳에서 생을 마쳤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전설화되어 후세에 윤색되면서 널리 전승되었고 시와 희곡의 소재로 널리 쓰였다. 소군 출새(昭君出塞 : 왕소군이 변방국(흉노국)으로 나서다)는 중국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된다. 소군은 중국의 공인된 중국의 사대미인 중 일인이다.

서경잡기(西京雜記)에 따르면 원제에게는 후궁이 너무 많아 일일이 천자가 그녀들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화공에 일러 볼 수 있게끔 초상을 그리게 하였다 한다. 이에 후궁들은 너무나도 화공에게 뇌물을 바치게 되었는데 많이 내는 자는 10만전, 적게 내는 자는 5만전을 바쳤다. 하지만 유독 왕소군만은 뇌물을 바치지 않았다. 그녀는 사람에게 밋게 보인 덕에 자연히 초상도 실물보다 터무니없이 못나게 그려지니 천자 곁에 가 볼 수가 없었다.

그럴 즈음 세력이 커지기 시작한 흉노가 입조하여 한의 미인을 구하고자 하였다. 원제는 화공이 올린 초상화를 보고 그녀가 제일 못생긴 줄로 알고 그녀의 초상화에 점을 찍어 흉노족에게 시집보내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녀가 수레에 실려 가는 때에 이르러서야 겨우 그녀의 미모를 본 원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말했다. 그녀가 후궁 중에서 제일가는 미녀였기 때문이었다. 원제는 땅을 치며 후회하였지만 이미 결정된 일인지라 번복할 수가 없었다. 일이 이렇게 된 책임을 물어 그녀의 초상을 실물에 훨씬 못 미치게 그린 화공을 죽이고 재산 또한 몰수하였지만 이미 때는 늦고야 말했다. 실로 중국인으로서 애석하게 생각하는 미녀이다. 왕소군의 이 역사적인 드라마틱한 슬픈 이야기는 중국이 오랑캐들을 달래기 위한 화친정책 때문에 생긴 비극이라 할 수 있다.

昭君拂玉鞍	소군, 치맛자락으로 구슬 안장 건드리듯
上馬啼紅頰	말 위에 오르니 붉은 두 뺨이 우네
今日漢宮人	오늘까진 한궁의 여인이지만
明朝胡地妾	내일부터는 오랑캐의 첩

이백은 왕소군이란 제목의 시를 두편 지었는데, 이것은 후편이다. 이백의 다른 왕소군은 이렇다.

漢家奏地月	한나라 진 땅의 달이
流影送明妃	달 그림자 뿌리며 명비를 보내네.
一上玉關道	한 번 옥문관을 나서더니
天涯去不歸	하늘 끝에 가 다시는 오지 않네.
漢月還從東海出	한나라의 달은 여전히 동해에 뜨건만
明妃西嫁無來日	명비는 서쪽 땅으로 가더니 돌아오지 않네.
燕支長寒雪作花	연지산은 늘 추워 눈꽃을 만들고
蛾眉憔悴沒胡沙	미인은 초췌해져 오랑캐 땅에 묻히네.
生乏黃金枉圖書	살아선 황금이 없어 초상화를 잘못 그리게 하더니
死留青塚使人嗟	죽어선 청총을 남겨 탄식케 한다.



먼저 어떻게 집을 지을까? 하고 주택에 관한 월간지를 몇 개월 쟤 사보고는 있지만 마음에 쏙 드는 집이 별로 없었다. 집의 자재도 목조집, 통나무집, 철골조집, 황토방 집 등이 있으며 지붕의 형태는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 놓았는지 ….

단순한 기거 위주에서 다양한 형태의 집 모양과 건축자재들은 그 동안 주택문화가 많은 발전을 해 왔다고 생각되면서도 마음에 만족할 만한 설계도면이 없는 것 같아 여의도에서 행사하는 주택전시장에도 가 보았다. 전시장엔 많은 인파가 모여 있어서 어느 곳을 가나 항상 줄을 서야 했지만, 많은 상식을 얻게 되어서 집을 짓는데 도움이 되었다.

서울에서 시골로 오가는 동안에도 차창으로 들어오는 집들의 형태를 보면서 어떤 집이 좋을까를 생각하며 보는 중에 보너스로 들어오는 가을의 자연경관은 갈색의 보카시로 잘 정리되지 않은 푸근한 용단으로 장식된 농촌을 보니 40여 년 전의 고향이 생각난다.

그 시기엔 지금처럼 기계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약도 사용 안했다. 모를 심을 때면 여자들은 집안에서 수십 명의 음식을 해내기에 바빴으며, 남자들은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큰 깃발을 낀 장대에 매달고는 한 사람이 장구를 치며 선창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농요를 불러가며 모를 심던 농부들과 순박한 인심이 있었다.

친정 아버지께서는 오빠가 객지에 나가서 사업을 하려는 것을 막으시려고 하셨다. “원금의 88배 되는 장사를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다. 이론상으로는 맞는 말씀이지만, 지금의 농촌은 젊은 사람들은 거의가 도시로 나가고 노부부들만이 커다란 집들을 지키고 있는 형편이다.

이제는 매일 밤이면 우리 두 내외는 집 내부의 설계를 하며 지붕의 형태, 단장할 색 등의 의견 차이로 옥신각신 하다가도 금방 수그러 드는 편안한 나이가 되었다. 집은 그 소유주의 성격을 나타낸다는 말이 있듯이 남편은 예쁜집을 짓고 싶다고 하신다. 나는 첫째 튼튼하고 여자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실용적인 집을 짓자고 하니, 옆에 있던 작은 아들은 “아버지, 집은 주위환경과 너무 튀어나게 지으면 안돼요”라며 한 마디 거든다.

어제는 서울서 다섯 살 짜리 손자가 왔다. 우리는 손자의 환심을 사려고 장난감과 여러가지 과자를 사다 놓았다. 마당에 매어있는 흰 강아지를 보더니 쉽게 친해져, 과

자도 주고 끌고 다니며 놀기만 한다. 점심을 먹을 때에도 당아지를 방안으로 들여놓고 같이 먹겠다는 고집에 강아지가 호강을 한 날이다.

나는 수환이를 기쁘게 하려고 “수환아! 다음날엔 이곳에 새로 집을 지을꺼야”라고 했더니 “나는 이 곳에 안 살꺼야, 우리 집으로 갈꺼야”라며 농촌생활에는 관심 없다는 듯이 강아지하고만 놀고 있었다.

결국은 우리 부부가 살면서 가끔은 자녀들이 다녀가는 그런 전원 주택을 지으려고 3개월 여 넘게 생각에 생각을 하는 중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알랭[ALain]의 행복론에서, 행복은 주위환경과 잘 조화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나는 5개월 넘게 시골에 살면서도 주위환경이나 이웃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으니 행복한 조건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나 자신을 위안시키고 있는 말이 있다. 그것은 「아인슈타인」의 행복론이다. 즉 행복은 많은 말을 하지 말 것, 생활을 즐길 것, 한가한 시간을 가질 것이라는 말 …, 이 얼마나 멋진 말인가!

도시 친구들이 조용하고 공기가 좋다고 한다. 그것이 전원의 생명 아닌가! 하루라도 조용하게 마음 편하게 살며,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만으로도 현대를 사는 자(者)로서의 행복이 아니라, 집을 지어 놓고 시골생활의 단점을 보완해 가며 행복을 위한 설계도를 다시 구상해야겠다.



## 어느 작은 결혼식

유 지 순

- 수필가
- 현대수필로 등단
- 현대수필 문인회 회원
- 한국수필학회 회원
- 한국문협 여주지부회원

눈 덮인 순백의 대지 위에 그들은 어떤 그림을 그려갈까. 시야를 가릴만큼 함박눈이 쏟아지고 있다.

지은지 100년이 넘는 미국의 버팔로 시청청사 13층에서 내려다 본 거리는 건물과 차가 대나무밭을 통해 내다보는 듯 아른아른 하기도 하고, 안개꽃을 흩뿌리는 사이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기도 하다. 청사 13층에 마련해 놓은 예식장은 10평쯤 되는 홀에, 벽에는 시가지 전경을 찍은 사진과 결혼을 축하한다는 글귀를 쓴 종이만 붙어 있다.

문 앞에 만들어 놓은 신랑신부가 입장하는 나무로 만든 아치는 망사로 꽃을 만들어 윗부분을 장식했고, 손으로 만든 덩굴줄기를 밑 부분에서 위로 감아 올려 푸른 잎을 대신했다. 누군지 결혼식에 썼던 작은 꽃다발을 아치 밑 부분에 꽂아 놓은 것이 초라하게 시들어 가고 있다.

딸아이가 사는 집 윗층의 중국학생이 대만 아가씨와 결혼을 한다. 우리 가족은 유학을 와서 가족이 없는 그들을 위해 잠시 가족이 되려고 결혼식에 참석했다.

예식장 복도에는 15분 간격으로 치루어지는 결혼식 차례를 기다리느라 여러 쌍의 신랑신부가 대기하고 있다. 곧 식을 올릴 신랑신부가 상기된 표정으로 앉아 있고, 웃음을 띄고 있는 양가 가족 몇 명은 아무리 간소한 결혼식이지만 축하해 주려는 마음으로 들떠있다. 대기실 안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신랑신부는 백인과 흑인, 황색인도 있

고 한 쌍의 흑백인도 있다.

하얀 드레스에 부케를 들고 있는 신부도 있고, 평상복 차림으로 꾸민 신부도 있다. 우리측 신부는 대만에서 가져온 빨간색 중국 비단옷을 입은 제일 아름다운 아가씨다.

먼저 결혼식을 치르고 나오는 신부는 대기하고 있는 신부에게 축하 포옹을 하며 행복을 나누어주고 떠난다. 우리 나라의 보통 예식장에서는 볼 수 없는 정겨운 모습이다. 차례가 되어 들어간 예식장의 간소한 분위기는 썰렁하지만 신랑신부는 행복해 보인다.

신랑신부는 그래도 긴장이 되나보다. 담당자의 결혼식 진행으로 부부가 되겠다는 맹서와 반지교환, 증인의 사인, 축하인사와 결혼증명서를 받은 것으로 모든 절차는 끝났다. 결혼식 비용은 모두 30불이 들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어렵게 만나 이루어진 결혼이니 순탄하게 살아가길 빈다.

저녁에 10명이 초대된 결혼 피로연을 약속하고 헤어져 가는 빨간 드레스의 신부와 벅타이를 단정하게 맨 신랑의 팔짱을 낀 모습이 이리호수에서 무섭게 불어오는 바람에 휘날리는 눈발 속으로 사라져 간다. 이리저리 예측할 수 없이 흩어지는 눈송이처럼 그들의 앞길도 헤아릴 길 없는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겠지만 잘 헤쳐 가면서 살아 달라고 간절한 애정을 보낸다.

신랑은 상해근처 시골에서 태어난 북경대학 출신이며 미국 유학생이다. 유학 온지만 5년이 넘었어도 집에를 가지 못하고 있다. 수백 명이나 되는 친척에게 사다줄 선물값 때문이라고 얘기한다. 통역관계로 고향 근처까지 갔었지만 집에는 들리지도 못하고 왔다. 외국에 나갔다 오면 선물을 해야하는 관습은 우리 나라의 외국 나들이가 힘들었을 시절과 똑같아 그의 입장이 이해된다.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들게 공부를 한다.

대만 아가씨는 집에서 보내주는 학비와 생활비로 편히 지내며 학교에 다닌다. 방학이면 대만 집에도 다녀오는 밝고 명랑하고 예쁜 아가씨로 고생하는 신랑을 많이 도와준다. 본토인과 대만인의 만남이 별 장애 없이 이루어진 것이 부럽다.

대만의 부모는 본토인과의 결혼을 많이 반대했지만, 본토의 부모는 아들에게 결혼에 대한 모든 것을 일임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른 사람들의 결합이고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니 대만의 부모는 불안할 것이다. 같은 언어를 쓰는 한민족인 그들의 결합이 중

국과 대만의 문제를 풀어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금방 아프리카에서 온 듯한 흑인 신랑과 하얗고 예쁜 백인 신부를 보면서도 마음은 같다. 피부색깔과 언어, 이념의 벽을 넘어 서로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다면 인종과 사회, 국가 사이에 많은 문제가 쉽게 풀릴 것이다. 식이 성대하든 간고하든 결혼이 함축하고 있는 그 가치는 똑 같다. 어떻게 성숙하고 세련된 삶을 이루어 가느냐가 문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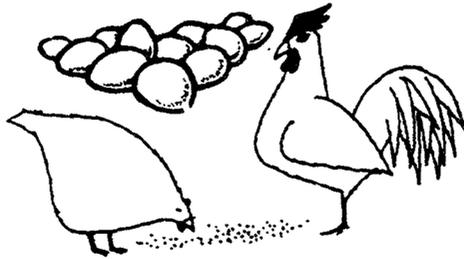
미국에서 신랑신부의 들러리가 16명이나 되고 꽃을 뿌리는 화동까지 20여명을 거느린 결혼식도 보았다. 호화스러운 결혼식의 여세에 들떠 주요한 삶의 부분들에 적응해 나가는 일이 더 힘들지도 모른다. 간소한 결혼식에서 삶의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더 두터울 수도 있다.

세상에는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도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해결 방법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사람에게 보이며 떠들썩하고 화려하게 거행한 결혼식이든, 적은 비용을 들여 간소하게 치룬 결혼식이든 상관없이 내용이 얼마나 알찬 것인지가 중요하다.

결혼비용 때문에 파혼하고, 자살도 하며, 기대에 미치지 못한 혼수로 구타 당하고 학대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물질과 형식보다 정신적으로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시청에서의 결혼식이 보기가 좋다. 함박 눈 속에서 치루어진 작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이 가슴에 훈훈한 미소로 자리 잡는다.

작게 시작했지만 큰 자국을 남기면서 그들은 살아 갈 것이며, 신랑의 단아한 모습과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이 함께 가치 있는 삶을 엮어 나갈 것이다.

창작동화  
잉크동화



## 고물들의 합창



강 태 희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

“감사합니다. 전화 받습니다. 저는 봉사 고물상 이철수입니다. 댁은 누구신지요?”

“네, 낙원아파트 관리실의 경비 김청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에 부탁하신 전자제품 고물이 쓰레기장에 버려졌기에 연락하니 빨리 오셔서 실어가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추력을 물고 달려 갈테니 잘 보관했다 주십시오.”

선화 아버지는 전화 수화기를 놓자마자 고물상 문을 열고 밖으로 속히 빠져나갔습니다.

이처럼 선화 아버지는 어디서나 연락만 오면 크고 작은 것을 관계치 않고 멀고 가까운 곳을 가리지 않으며 전자제품 모으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봉사고물상」이란 가게 이름처럼 선화 아버지는 전자제품 고물이란 고물은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모아다가 절판난 부속을 갈고 전기선을 손보며 깨끗이 색을 칠하여 새것이나 다름없이 완전하게 고쳐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운반비와 수리비의 원가만을 받고 값싸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선화 아버지가 전자제품 고물을 모아서 수리하여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값싸게 봉사하게 된 것은 전자회사의 기술직으로 일한 경험을 살려 봉사 고물상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나라와 이웃을 사랑하는 남다른 애국 애족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죽어만 가는 지구를 되살리기 위하여는 사전에 환경오염을 한가지라도 막자는 것이고 자신부터 물건을 아껴쓰는 절약정신을 어려운 이웃 사람들에게 봉사하자는 것입니다.

이 봉사고물상에는 매일같이 값싼 전자제품을 사려는 새주인들이 버글거립니다.

오늘은 이른 아침이라 고물상 아저씨가 밖을 나가며 문을 잠그고 나갔기에 아직 안팔린 고물들은 마침 조용한 기회가 온 것입니다.

“야, 우리 고물 친구들! 주인 아저씨는 고물 가지러 가고 물건 사러 온 손님들도 한사람도 없으니 우리 모두 모여서 그간 있었던 일을 서로서로 이야기해 보자. 응.”

이 봉사고물상에서 가장 오래된 전기다리미가 짜증섞인 목소리로 선수를 쳤습니다.

그로 그럴것이 이 고물상에 들어온지 꼭 석달이 넘었으니 새주인 기다리기가 이젠 실증이 났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고물들은 이곳에 들어와 수리도 할 새 없이 새주인이 나타나 팔려나가니 아마 부러울지도 모릅니다.

전기다리미는 이제까지 사가겠다는 새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니 얼마나 귀가 막힌지 모릅니다.

“그래, 찬성이다. 주인 아저씨도 좀 먼곳으로 가는 눈치였으니 시간이 걸릴 것이고 고물상문이 자물쇠로 꼭 잠겼으니 손님들이 못들어와서 조용하니 우리 탁 털어놓고 지나온 애길 서로 이야기해 보자. 응.”

이 고물상에서 두번째로 오래된 전자시계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지난 애길 꺼내지, 전에 살던 주인 아주머니는 사흘이 멀다 하고 백화점 식품코너에서 금방 먹지도 않는 반찬거리를 보따리보따리 사들여 냉장고가 터질 정도로 억지로 넣어 숨도 못설 정도니 전기 소모와 그 낭비는 말로 다 할수 없었다오.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결국 내가 너무 적다고 대형 냉장고를 사는 바람에 나는 쓰레기장으로 쫓겨났으니 얼마나 억울한지

한마디 하려는 거요. 안 그래요?”

봉사고물상에서 가장 몸체가 작다고 쓰레기장에 버려졌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인지 아세요, 난 더 억울하다오. 아직 여름도 오지않았는데 월부판 매병이 들어 그 비싼 에어컨을 설치하고 전기도 별로 소모되지 않고 시원하게 잘 돌아가는 선풍기를 이젠 쓸데없다고 쓰레기장에 버렸으니 얼마나 분하고 억울한지 분통이 터질 것만 같다고요.”

아직도 멀쩡한 선풍기는 눈물을 흘리며 한탄하는 울음소리였습니다.

“나는 더 웃긴다오. 요즘 대형 테레비에 유행병이 들어 소형 테레비는 갈곳이 없이 헌신짝처럼 쓰레기장에 버려진다고요. 대형 테레비가 거실에는 필요하겠지만 안방까지 대형테레비로 바꾸는 집이 허다하니 소형 테레비 신세는 가엾게 되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요. 안 그래요?”

대형 테레비 때문에 쓰레기장으로 쫓겨난 소형 테레비의 한숨짓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더 우습지요, 우리 집 주인은 대형 전자시계가 너무 커서 좁은 거실만 차지한다고 쓰레기장으로 쫓아냈으니 냉장고나 테레비 같은 친구들은 몸체가 작다고 쫓겨났지만 난 몸체가 크다고 쫓겨났으니 얼마나 우습지 않아요.?”

이번엔 몸체가 큰 전자시계가 집집마다 사정은 고루지도 못하다고 불평을 늘어 놓았습니다.

“나 역시 쓰레기장으로 쫓겨난 것이 너무 분하다오. 외국에서 사온 전기다리미가 별것도 아니고 전기만 많이 소모되는지 모르고 외제품 병에 걸려 국산 다리미를 아직 쓸만한데 마구 버리니 주인 집 아주머니도 복받을 수 있을까요?”

국산 다리미라는 이유만으로 까닭없이 쓰레기장에 버려져 봉사고물상에 왔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아까워요. 구식 전축은 구식대로 운치가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서 요즘 새로 나온 최신형 전축이 음색과 디자인만이 좋다고 항상 쓰던 전축을 아깝게 버리니 얼마나 분해요. 이러다간 아이엠에프로 또한번 서리맞는 것이 아닌가요?”

구식 전축이 신형 전축에게 쓰레기장으로 쫓겨나 앞날을 경고하는 말이었습니다.

니다.

“고물 친구들이 지난날에 겪은 것을 모두 잘 들었지요. 정말 걱정이네요. 몸체가 작다고 혹은 몸체가 크다며 또는 구식이라고 아깝지도 않은지 쓰레기장으로 쫓겨난 가없는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한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전자제품 고물들은 쓰레기장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땅속에 파묻거나 태워 없어졌을 것인데 봉사고물상 아저씨의 덕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전자제품 친구들 안그래요?”

처음 이야기를 시작할때 말을 꺼낸 전기다리미가 봉사고물상 아저씨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자 우리 고물들 모두 「 짹, 짹, 짹 」 힘찬 박수를 치는 데 봉사고물상 아저씨가 큰 냉장고를 등에 지고 문을 열다 고물들의 우렁찬 합창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

백

# 여주문화

제11호

- 인 쇄 : 2002 년 6 월 30 일
- 발 행 : 2002 년 6 월 30 일
- 발행인 : 한 만 규
- 발행처 : 여 주문 화 원  
(031) 883-3450

---

이 책은 여주군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